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현대불교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홈페이지 : www.sanchon.com

news.buddh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0월 9일 수요일(주간) 제390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치안감의 귀의

서울경찰청의 김기영(54 · 치안감) 차장이 지난 2일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불교에 귀의 하겠다"며 표연히 집을 떠났다.

지방경찰청장으로의 영전 직전인 시점과 정권말기, 대선정국 등 복잡한 시류 속에서 선언된 경찰 고위간부의 출가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선친이 승려였던 가족력과 한 때 출가를 했던 이력이 알려지면서 이미 예정된 출가였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는 '가진 자'였고, '가진 것'을 버린다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일이기에, 그의 출가는 '귀의'란 행위의 순수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불교대사전(홍법원)은 여러 전적(典籍)들의 해석을 빌어 "절대 믿음을 받들어 의지할 존재로 삼는 것(구사론)"과 "불 법 승의 삼보(三寶)를 존중하는 것(개목초)" 등으로 귀의를 설명하고 있다.

김 차장의 출가는 '풍진 세상 등지고 머리 깎고 절에 간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며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남은 인생은 그동안 경찰생활로 바빠 본의 아니게 소홀했던 불교에 귀의해 보낼 작정"이라 한 그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조계종의 한 중진스님은 "일할 때 열심히 하고 떠날 때 미련두지 않는 지혜를 보여준 것"이라며 "불법에 귀의하는 일은 자신의 청정심을 회복하고 불성을 밝혀 성불하겠다는 대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김 차장의 출가는 말은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인간에게는 돌아가 의지할 곳이 있고 거기서 때 묻은 마음을 닦아 본래청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김기영 차장이 세간에 남긴 선물이라면, 아름답게 떠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고 때를 알아 떠나는 지혜를 갖추는 것은 세간 사람들의 몫이겠다. ☞관련기사 4면

임연태(뉴미디어부 부장)

"불교계 앞날 비관적" 74.7%

대학생 불자 200명 대상 설문…부정적 인식 높아

스님 청정성 저하 · 재가활동 미흡 이유
인재양성 · 자정 개혁 · 종교간 대화 요구

Hyundae Bulkyo 8th 현대불교 창간 8주년

대학생 불자 10명중 7명이 불교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6명은 졸업 후 불교계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등 불교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교단 자정과 불교인재양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같은 내용은 참여불교재가연대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8월10일부터 9월20일까지 전국 80여 대불련 지회 소속 대학생 불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설문은 불교계 현실, 신행활동, 승 · 재가의 생활윤리, 향후 진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가연대는 지난 2000년에도 이같은 설문조사를 했었다.

설문에 따르면 '불교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응답자의 74.7%가 '아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 이유로는 '스님들의 청정성 저하'(23.6%) '교단의 불건전한 운영'(20.1%) '재가불자 활동력 미흡'(20.1%) '교단의 사회참여 활동 미비'(17.4%) 등이 꼽혔다. 이는 수행풍토 저하, 승가의 불협화음, 사찰의 비민주적 운영 등 현재 불교계가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에 대한 청년 불자들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계 단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활동분야는 무엇인가' 질문에는 '불교인재 양성'(23.8%) '교단자정과 개혁'(23.2%) '종교간 대화'(17.3%) '시민사회활동'(16.2%) 등을 꼽았다.

졸업 후 교계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60.6%가 '종사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출가자의 경우 '육식을 허용해야 한다'(60.7%)고 생각하는 반면 '고급유흥장 출입'과 '화투/포커'에 대해서는 66.9%와 58.1%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신행경력에 대한 질문에서 38.8%가 '어렸을 때부터'라고 응답, 2000년 조사 때의 11%보다 크게 늘어났다. 반면 '대학교부터'(69.9→44.1) '고등학교부터'(14.2→11.2)의 비율은 낮아졌다.

☞관련기사 3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우리가 걸으면 세상이 열립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고령화 사회 준비를 위한 시민걷기 대회가 3일 열렸다. 청명한 가을 날씨속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홍 조계사 주지 등 스님들과 신도, 노인복지센터에 다니는 노인들, 가족 등 2천여명이 동참해 조계사에서 출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걷기대회를 가졌다.

사진=임민수기자

'불교문화산업기획단' 결성

이사장 도후스님 인프라 구축 · 콘텐츠개발 · 보급

불교계의 문화 · 언론 · 출판 · 예술 관련 전문인들이 모여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을 결성하고 도후스님(불교방송 이사장 · 관련인터뷰 26면)을 이사장으로 추대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불교문화의 현대화를 통한 한국문화산업 육성을 취지로 창립된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캐릭터, 시나리오,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출판 등 문화 장르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불교문화의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첫 사업으로 그동안 불교미술연구가 고미술에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근 · 현대 미술 분야에는 무관심해왔다는 점을 인식해 활발한 연구 활동과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윤범모 교수(경원대)는 근 · 현대 미술 기초조사 과정에서 백승산정혜사 관세음보살 좌상이 일제시대 최고의 조각가 김복진씨의 작품임을 밝혀냈다. 한편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지난 7월 31일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신행수기 보내주세요 제8회 공모

불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8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교인연 이야기,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수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 마감: 2002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2003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buddmaster@buddhapia.com

12월 17일까지 편집국 담당자 앞

시상내역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 현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상금, 부상을 각각 수여하며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구독료 이달부터 월 5천원

기존독자 종전대로 월 4천원 적용
구독료 자동이체 관음보살도 증정



◇김의식 作 '관음보살도'.

이달부터 구독료가 신규 독자에 한해 현행 月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구독료 조정은 본지 창간 이래 8년 반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신문 1부당 순수 제작원가가 창간일인 1994년 10월15일에 비해 2002년 9월 현재로 제작비 · 발송비 · 인건비 등을 포함해 67%나 상승했습니다.

현대불교는 구독료 인상을 계기로 독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기존 24면 발행체제를 10월2일자부터 A판 12면, B판 16면 등 총 28면 발행체제로 변경합니다. 더욱 풍부해진 정보, 생활 속의 불법수행을 위한 충실한 가이드 역할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기존 구독자인 경우는 종전 구독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이달부터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만 새 구독료를 적용합니다. 1년 단위 구독신청에 적용해오면 할인제도는 폐지합니다.

영구 구독신청의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62만5천원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새로 독자가 되시면서 구독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사은의 뜻으로 미려한 색감의 16도 정밀 인쇄된 관음보살도(김의식作, 27cm×37cm, 시중판매가 2만원상당)를 드립니다. 이 보살도는 그대로 벽에 거시거나 액자에 넣고 보시면 수준 높은 예술품이 됩니다.

구독료 자동이체 문의 : 고객부 (02)737-0090

현대불교신문사

특집II 불교상담 어디서 어떻게 6~7면

창간 8주년 기념 금주 32면 발행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말양: 055)353-1196

팔만대장경 수호를 위한

보살계 수계법회 및 가사불사 회향 법회

가야산 해인사는 천이백년의 긴 세월 동안 화엄의 근본도량으로서 중생들을 일깨우고 불자들의 신앙적 귀의처가 되어왔으며,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법보종찰로 이름 높으며 삼백여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 도량입니다.

해인사는 매년 가을마다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고 신앙심 고취를 위해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보살계 수계법회와 아울러 올해에는 그동안 신심과 원력으로 동참하였던 가사불사를 회향하고 가사를 점안하는 의식을 해인총림 방장 법전 큰스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스님들이 수하는 가사는 무상의 대복전(大福田)이며, 최상의 해탈복(解脫服)이므로 이번 가사불사 회향에 동참하신 공덕으로 수행하는 스님들에게는 깨달음의 옷이 되었으며, 신도님들에게는 복덕을 짓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사불사에 적극 동참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야산 해인사에서 봉행하는 「팔만대장경 수호를 위한 보살계 수계법회와 가사불사 회향법회」에 신도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고려 팔만대장경과 불법이 이 땅에 오래 머물기를 발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29일 영가천도법회」에도 많이 동참하시어 조상을 천도하시고 가정의 안녕과 소원을 이루시길 축원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불기 2546년 10월 19일~20일 (음력 9월 14일~15일)
■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 · 보경당

10월 19일 (음력 9월 14일)		10월 20일 (음력 9월 15일)	
입재	오후 4시	영가시식	오전 4시
예불기도	오후 6시	괘불봉안	오전 7시
보살계법문	오후 7시	수계식	오전 8시
영가천도 대령관욕	오후 9시	가사불사 점안	오전 10시

■ 증 명 : 조계종정 · 해인총림 방장 법전 대종사
전계아사리 / 법전 대종사 · 갈마아사리 / 세민 대화상 · 교수아사리 / 혜능 대화상
■ 법 문 : 지관 큰스님(보살계 법문), 혜인 큰스님(영가천도법문), 지오 큰스님(가사불사의 공덕법문)
■ 보살계 동참금 : 삼만원 ■ 영가동참금 : 일위당 만원
■ 접수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종무소 / 055-931-1001~2 원주실 / 055-931-1009
천도재 사무실 / 055-931-8771~2 Fax / 055-931-1010
■ 온라인 접수 : 농협 / 843174-51-003929 우체국 / 611806-01-000327 예금주 해인사

불기 2546년 10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수봉 세민 합장

사 설

대불련 활성화 계획 세워야

대학생불교학생회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다. 최근 몇 년간의 취업난 등으로 대학생들이 종교동아리 활동에 소극적인 것은 불교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저학년으로 갈수록 불교동아리 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으며, 불교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졸업 후 불교계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2년전의 조사 보다 7% 이상 늘었으며, 불교계에서 일을 한다면 언론 출판, NGO, 어린이 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불교계도 일반 직장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성을 살리고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별히 대학생불교회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들이 한국불교계의 잠재적인 인력은행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회원들이 졸업 이후 출가하거나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 사회 각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계 안팎의 사건이 발생할 때는 호법을 위한 결속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불교계는 대학생 불교연합회의 발전과 각 대학 불교학생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다. 장학제도, 취업알선 등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초중고 불교학생회와 대학생불교학생회의 활성화는 바로 한국불교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불교계의 지도자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수재의연금 1200억에 담긴 뜻

올해의 수재의연금이 모금 사상 가장 많은 액수인 1,200여억원에 이르렀다 한다. 겨레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정성에 이렇듯 온 국민이 함께 하여 큰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축하해야 할 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의 성과가 우리 겨레와 나라의 앞날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번 성금 모금의 큰 성과는 우리 겨레가 하나임을 온 몸으로 표출하였던 월드컵의 열기가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느낌으로 받았던 '우리는 하나'가 바로 이웃의 아픔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졌기에, 한 때의 열기로 끝날 수 있었던 민족적 동질감이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큰 힘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제 이렇게 모아진 우리 국민의 느낌과 실천의 물꼬를 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보다 더 큰 흐름으로 증폭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수재의 아픔을 당한 분들에게 좀 더 빨리, 좀더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성금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그 분들이 느낀 감사의 마음이 다시 우리의 '하나됨'의 움직임을 증폭시키는 반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성금의 조속하고도 효과적인 사용에까지도 따뜻한 우리의 눈이 뒤따라야 한다.

자비와 화합의 종교인 불교가 이러한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이룩하는데 주역으로 나설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불교계 전반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l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전국경불회 조직률 30% 밑돌아

경승단 조사 정기법회 봉행 경찰서 1/3에 불과

경승, 기독교 비해 태부족·활동도 저조

전국적으로 경찰서 불교회인 경불회 조직율이 30%를 넘지 못하고, 정기법회를 개최하는 경찰서가 3분의 1도 안되는 것 등 경찰 포교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경승단이 7월부터 9월말까지 전국 231개 경찰서 중 경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1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뒤, 회신이 온 162군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경불회 경우 경북(17곳 중 1곳), 부산(10곳 중 1곳), 충북(12곳 중 2곳), 전북(5곳 중 1곳) 지역 등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전국적으로 28%의 낮은 조직율을 보이고 있다.

정기법회도 대부분 지역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5곳 중 0곳), 경북(17곳 중 1곳), 충북(12곳 중 2곳) 지역은 정기법회를 여는 경찰서가 거의 없었고, 전국적으로 27% 밖에 정기 법회를 개최하지 않아 경승이 있어도 제대로 포교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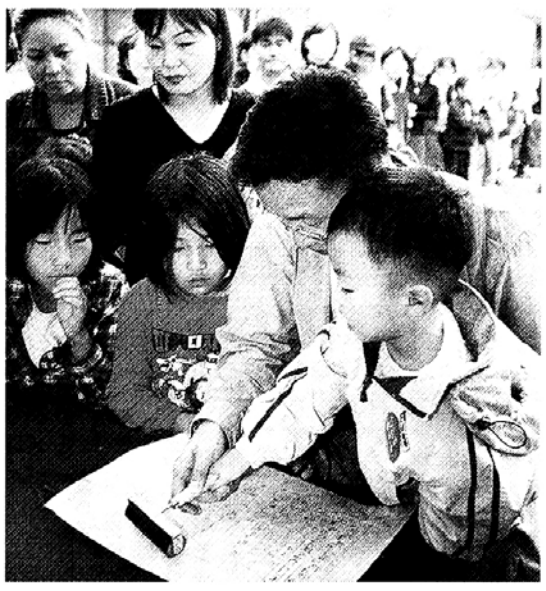
각 지방 경찰청 중 경찰서 대비 경승인원이 가장 적은 곳은 전남(경찰서 당 1.8명), 인천(2명), 충북 및 전북(2.4명) 순으로 드러났다. 경승인원은 경찰청 예규상 본청 4명, 지방청 4명, 각급 경찰서와 기동대에 각각 5명 씩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승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천주교 선교활동을 하는 전국 경신 인원이 800여명, 개신교 선교활동을 하는 경목 인원이 외곽단체를 합해 2500여명인데 비해, 불교 포교를 하는 경승 인원은 514명에 불과하다.

경찰서 내 경승실은 대구(4곳 중 0곳), 경북(17곳 중 1곳), 충북(12곳 중 1곳) 지역이 전무하다시피 하며, 전국적으로도 3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당의 경우 부산, 대구, 인천, 충북, 제주 지역은 하나도 없는 등 전국적으로 23%밖에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 및 경기지역이 경찰서 당 경승인원 3명과 7.4명, 경승실 80%와 54% 등과 비교할 때, 지방 경찰 포교가 상당히 취약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조사와 관련 경승단 한 관계자는 "경승 개개인이 포교사로서의 관점이 미비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매개체로 직위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 뿐 아니라 전무하다시피한 전·의경 포교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11일 유성 스파피아 호텔에서 열리는 전국경승실장 연수에서 경찰포교 활성화를 위한 강의 및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편 조사 분석에서 경찰청 직속기관은 4곳에서 1곳에서만 회신이 왔고, 울산지방경찰청은 4곳 중 한 곳도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했다. 남동우 기자



"책 이렇게 만들었단다"

덕수궁서 '책의 날' 행사

제16회 책의 날을 맞아 2-6일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 '책 마당 큰잔치'에서 시민들이 〈월인천강지곡〉 인경 체험(사진)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지심체요절, 훈민정음도 인경체험을 했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교보문고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북한도서특별전' '시각장애인용 도서 특별전' '출판 인쇄 역사 패널전' '전자책 전시 및 시연' '인터넷 서점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사진=고영배기자

제26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태고종, 11월2일까지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7일부터 11월 2일까지 4주 동안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제26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갖는다. 이번 수계산림에는 183명의 행자가 참가해 4주동안 매일 새벽 4시 아침예불 및 300배 참회정진을 시작으로 강의, 참선, 저녁예불 및 700배 참회정진 등 각고의 수련을 쌓는다. 또한 예경의식, 불교예절, 초발심 자경문, 태고보우국사의 생애, 태고종사, 사찰문화재, 전통홍가사, 좌선의 등도 교육받는다.

교육을 마친 행자들은 교육 마지막날인 11월 1일, 그동안의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득도고시를 실시, 여기에 합격해야만 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다. 이경숙 기자

세계 밀교의식 시연회

세계의 밀교 의식 시연회가 국내에서 열린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오는 18~19일 서울 성북구 총인원에서 한국, 일본, 몽골, 티베트 등의 밀교의식을 선보인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혜정 대정사(진각종 교육원장), 티베트의 니창 린포체, 몽골의 단장 랍, 일본의 다카하시 류덴(진언종) 등이 참석해 각국의 밀교의식인 호마의식을 재현한다. (02)913-0136 김철우 기자

"'북한산도로' 강행땐 산사태"

회룡사 인근 소음평가 누락, 재조사해야"

국회환경노동위 국감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시 발생할 수있는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2일 민주당 안동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터널의 최저 토피고(土皮高, 터널 최상부에서 지반까지의 높이)는 16.9미터로 터널 최상부에서 지반까지의 거리가 불규칙하여 얇은 곳은 16m 밖에 안된다"며 "수리변동보고서 상 토피고가 50m되는 곳에 대한 산사태를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터널이 지하수와 지표샘물에 미치는 영향조사와 회룡사 인근지역의 소음평가가 누락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리한 추진보다는 환경영향재평가 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북한산 노선조사위 인원 모두 16명으로 확정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조사위원회 16명 명단 윤곽이 잡혔다. 조계종 공동대책위측은 최주영 대진대 교수(교통 및 총괄), 전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사찰환경) 등 6명 중 5명을 확정했다.

서울고속도로(주)측은 남영국 인천대 교수(총괄) 등 6명을 확정했다. 김용구 조계종 공동대책위 간사와 한광훈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설계팀장이 대표 간사를 맡으며, 김영길 서울시 도로계획과장과 정석규 경기도 2청사 도로교통과장이 참석한다. 남동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승가가 모범을 보여주세요"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修德寺
방 장 원담
주 지 법장
총무 지운 기획 보정
교무 수암 재무 정묵
포교 정암 사회 흥범
총림대중일동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번지
☎ 041)337-6565(대) FAX 041)337-0072

불교의 정론지 현대불교의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僧寶宗刹 松廣寺
方丈 梵日 菩成
會主 度然 法興
住持 玄鋒 외 大衆一同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061)755-0108

정체 · 전문성 확보 지향점 뚜렷해야

불교NGO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활동영역 확대도 불교NGO발전의 중요요소로 꼽힌다. 사진은 불교재가연대가 지난해 11월 개신교 ,천주교와 함께 한 '종교NGO네트워크' 발족식 모습.

법륜스님의 막사이사이상 수상 이후 불교 NGO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NGO들의 활동 기반은 척박하기만 하다. 재정 · 정체성 · 전문성 · 접근방식 등이 NGO 활동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불교 NGO의 현황과 문제점

시대적 상황에 따라 종교 NGO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교 NGO들 활동은 그리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불교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정토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수십여개의 NGO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NGO 활동의 문제점 중 먼저 재정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불교 NGO들이 월 500~1000만원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있다.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회보 발행 등 경상비에 쓰고 나면 기존 사업 외에 새롭게 돌출되는 사업을 하려 해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정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아직 사회적 회향을 하는 문화가 덜 정착되어있다"며 "이는 개인적 기복신앙에 치중하는 교계 내부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NGO 정체성 부분이다. 즉 NGO들이 출범할 당시부터 이념적 지향성을 뚜렷하게 세우고 차별화된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불교아카데미 연구실장은 "현 교계 NGO 중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이 내세우고 활동하는 단체는 드물다"며 "이 때문에 NGO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셋째 NGO 활동가들 전문성 문제다. 한 NGO 활동가는 "내부에서도 활동가들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고 이를 고민중에 있다"고 밝힌다. 실제 한 불교 NGO 종회에서 감사보고를 통해 활동가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넷째 NGO들의 접근 방식 부분이다. 정성운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불교계 NGO들은 아직 축적된 노하우가 부족하다"며 "일반 NGO들의 축적된 노하우에 불교적 사상을 담아 일반 불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여기에 활동가들의 보수 문제,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의 NGO들에 대한 인식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활성화 방안

NGO 활성화 방안 중 재정 부분에서는 재가연대가 실시하고 있는 CMS(Cash Management Service) 제도가 눈에 띈다. 회원들로부터의 약정된 회비를 매월 자동이체 형식으로 후원받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고정된 수입원으로 인해 계획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나 불교환경연대 등도 CMS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정부나 각 종단 총무원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 사업권 획득, 교육 사업 등 부대사업 실시, 후원자 발굴 프로그램 개발 등도 재정 확충 방안으로 거론된다.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NGO가 다양화되고 세분화 될수록 정체성과 자생력이 강화된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분야가 전문화될수록 활동목적이 뚜렷해지고 그에 따라 불자들의 동참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활동가 재교육을 통한 자생력 강화와 일반 NGO들과의 연대 사업을 통한 전문성 습득도 정체성을 확보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활동가들 전문성 문제에서는 교계 NGO들이 준비하고 있는 '불교사회단체 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주목받는다. 여기에서는 교계 NGO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습득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NGO에 뛰어 들려는 청년 불자들을 교육시키고 기존 활동가들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 구축도 고려할만 하다.

접근 방식 부분에서는 불교환경연대의 '산행'을 들 수 있다. 회원 또는 비회원들과 산행시 생태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NGO와 개인간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다.

또 재가연대에서 실시하는 '불교아카데미'나 '21세기 사찰모형 탐구', 인드라망에서 실시하는 '화엄광장'과 같이 교육과 홍보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가 시급하다.

이 외에 정토회나 재가연대의 인도 및 아프가니스탄 지원 사업, 인드라망의 생협, 한국불교환경연구원의 쓰레기 제로 운동 등도 활동의 외연을 확장시켜주는 매개체로 거론되고, 재가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 불교시민사회단체 및 시민사회교육 지원법 제정'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모범사례

정토회에서는 논의점이 발생하면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토론한다. 정토회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목적의식을 공유한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교육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고, 회원관리 및 확보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후원프로그램 개발 등 재원대책 시급
일반 NGO와 연대 · 재교육시스템 필요

재가연대 · 대불련 조사

포교 · 친목 · 사회활동에 불만족

대학생 신행패턴 변화 불교계 수용 못해

신행과 진로 두 분야에 대한 대학생 불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불교 활동은 다양하게 하고 싶으나, 직장은 다른 곳에서 얻고 싶다'로 요약된다. 생활윤리와 관련해서는 스님들의 일반적 사생활은 보장하되,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행활동

현재의 불교학생회 활동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64.8%가 '만족한다'고 응답, 2000년 조사(64.3%)와 비교해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 조사 때 '교리 및 경전공부' '종교간 연합활동' 부족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냈던 것과 비교해, 이번 조사에서는 '포교활동 부족'(19.1%) '친목 · 사회활동 부족'(16.1%) '수행부족'(14.5%)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만족을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 불자들의 관심이 다양해지면서 신행패턴이 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충족시킬 프로그램은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적으로 사찰에 다닌다'는 응답은 2000년 40.5%에서 47.5%로 늘어났으며, '교계 활동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참석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57.8%만이 '참가하겠다'고 응답, 2000년 64.6%보다 다소 감소했다.

'대불련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교계의 관심과 지원'(32%) '불교계의 사회 이미지 향상'(11%) 외에, '활동프로그램 개발'(32%) '회원의 수행력 향상'(17%) 등을 꼽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생활윤리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승가에 대해 현실적으로 허용해야 할 부분은 허용하자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음주 · 고급유흥장 출입 · 육식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출가자의 경우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대학생 불자들은 스키(61.1%) 육식(60.7%) 골프(49.8%) 주식 등 재테크(34.7%) 음주(29%) 화투/포커(12.4%) 고급유흥장출입(5.7%) 순으로 '적극 허용' 또는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재가자의 경우 이 7가지 항목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고급유흥장 출입(38.2%) 화투/포커(50%)를 제외하고는 80% 이상이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대학생 불자들은 출가자들의 식생활과 여가생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윤리적 수준에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급유흥장 출입, 화투/포커와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윤리적 수준을 요구했다.

"승가 음주 · 육식 어느정도 허용을"
졸업후 불교계 취직하고 싶지 않다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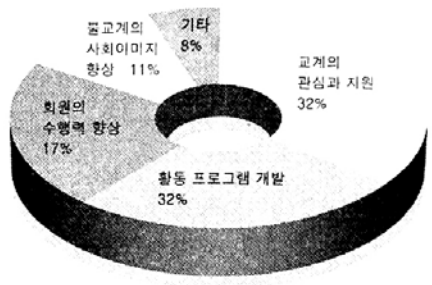
●진로

'졸업 후 교계에 종사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60.6%가 '종사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2000년 조사 때의 53.1%와 비교해 7.5%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부정적인 응답이 늘고 있는 이유는 불교계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직장이라는 인식을 갖기에는 안정성이나 전문성 등이 일반 직장과 비교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불교계에서 종사하고 싶은 분야로는 '언론 출판' 분야(19.5%)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GO'(17.2%) '어린이 청소년'(12.6%) '학술 · 연구'(11.5%) '사찰/종무기관'(11.5%) 순이었다. 특히 '언론 · 출판'은 2000년 조사 때 거의 응답자가 없었던 분야로, 몇 년 새 불교 언론과 출판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어린이 청소년' 분야는 2000년과 비교해 선호도가 절반으로 줄었고, '신도활동' 분야의 경우는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이 두 분야의 젊은 인력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대불련 활성화를 위한 과제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대선후보들의 불교공약

1. 불자님은 12월 대통령선거와 관련 후보들의 대(對)불교계 공약에 관심을 갖고 있으십니까?
①관심 있다 ②관심없다
2. 후보들의 대불교계 공약이 불자들의 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①많이 준다 ②조금 준다 ③영향 주지 않는다.

설문 참여: 10월 10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1호 A판 4면에 실습니다.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일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선천개도5000년 · 후천법립19년
개 도 법 립 5019년
자유도덕종교 · 평화도덕종교 · 정의도덕종교
사단법인 미 륵 종 교 협 의 회

正 上 正

미륵종교협의회는 체미행도(替彌行道)이다. 미륵을 대신하여 도를 행하는 것이고, 정기화인 대천행도(正己化人 代天行道)이다. 중앙무기 오십토운(中央戊己 五十土運)으로 미륵삼불세존께서 탄생하시어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실천한다는 뜻이다. 즉, 선후중천(先後中天) 오중운도(午中運度)로 유불선(儒佛仙) 삼종합일(三宗合一)의 삼대원리(三大原理)를 천칙(天則)으로 삼아 삼일의성사상(三一義誠思想)으로 억조창생(億兆蒼生)을 구원하여 도덕용화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미륵종교협의회라고 하는 것이다.

覺 醒 詩

말로서 得道를 하면 생각에 그치고
글로서 成道을 하면 아는 곳에 끝나니,
말로서 得道의 길을 자랑하여 유혹하지 말고
惻隱之心으로 修身躬行 할 것이며,
글로서 成道의 길을 보이려 애쓰지 말고
羞惡之心으로 實踐躬行 할지니라.

法門으로서 大通을 하면 자신을 속이는 곳에 그치고
衆生으로서 大覺을 하면 생각에 속는 곳에 끝나니,
說敎로서 神通의 길을 자랑하여 죄짓지 말고
辭讓之心으로 良心躬行할 것이며,
衆生으로서 悟道의 길을 보이려 궁상떨지 말고
是非之心으로 眞實躬行 할지니라.

聖運이 다한 종교는 반드시 不覺에 그치고
삿된 믿음은 반드시 不成에 끝나니,
깨닫지 못하면 누구나 지옥에 떨어지고
성취가 안되면 누구나 괴로워지는 것이니
甘言利說의 종교에 물들지 말고
惑世誣民의 믿음에 오염되지 말아라.

자신을 속이는 것은 하늘에 죄짓는 곳에 그치고
생각에 속는 자는 일평생 실패하는 곳에 끝나니,
어리석은 마음에 떨어지지 말고
우매한 언행에 빠지지 말아라.
중생은 물같이 흐르는 것이니
서로 가지려고 싸우지 말고,
진리는 해가 뜨듯이 돌고 도는 것이니
네 것 내 것 시비하지 말아라.
실력을 갖추면 물에 고기가 생기듯이
중생의 인연이 생기고,
깨달으면 태양이 뜨듯이
지혜의 등불이 세상을 밝게 하리라.

彌勒宗敎協議會 敎主 道佛道主 合掌

제5회 미륵사상과 도덕사회 구현 학술세미나

일 시
2002년10월 21일 월요일 오후1시

장 소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프레스 센터)

논문주제발표
발제 총론-윤이흠(서울대 교수)
미륵사상과정치-양은용(원광대 교수)
미륵사상과경제-김항섭(한신대 교수)
미륵사상과문화예술_이애주(서울대 교수)
미륵사상과윤리-신수현(미륵종교협의회 연구위원)

논 평
김종서 (서울대 교수)
서영대 (인하대 교수)
배영기 (숭의대 교수)

주 최
사단법인 미륵종교협의회

주 관
미륵대도 금강연화종

후 원
문화관광부 · (재)대도문화재단 · 관성정도회

문의처
사무국: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84-3
TEL: 032-831-6803 FAX: 032-831-8967

이사회, 12일까지 '개원준비위' 구성

동국대 불교병원 내년 7~8월 개원

동국학원·학교·조계종 이견조율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이 9월 27일 준공식을 가졌지만 개원시기가 늦어지면서 교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동국학원 이사회가 절묘한 해법을 내놨다.

동국학원은 1일 동대 교무회의실에서 제 187차 이사회를 열고, 불교병원 개원에 대한 각계의 공감대 형성과 무리 없는 일 추진을 위해 12일 이전까지 위원장 1인, 법인 3명, 학교 3명, 동창회 1명, 감사 1명 등 총 9명으로 '병원개원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개원준비위원회는 병원 경영 컨설팅업체를 초빙하여 개원에 따른 공간배치를 조정하고, 현안이 된 정관개정 및 불교병원장 선임,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개원 이후 대처방안 마련 등 현재의 미해결 과제와 향후 병원의 미래까지 수립하게 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실무, 운영, 기획팀이 가동된다.

개원준비위가 가동됨에 따라 그동안 동국학원, 조계종과 학교, 동창회가 서로간의 불신으로 병원개원을 놓고 개원시기와 정관개정, 병원장 선임 등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단큼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타결책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불교병원은 내년 7~8월 정상개원이 가능해지고, 10월 내 이사회가 열려 정관개정을 통한 직원선발, 의료기기 구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격자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1차 직원선발(200여명)의 경우 최근 법인사무처가 이사장 명의로 학교에 '전형자들의 민원이 관계부처에 끊이지 않은 만큼 정관개정과 관계없이 미리 합격자를 발표해도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원 41명에 대해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하권익 병원장 인사에 대해 '안된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연꽃마을 감로당 준공

효문화원 기공식 함께

연꽃마을이 최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위한 시설 확충에 본격 나섰다.

연꽃마을은 8일 경기도 안성 장릉리에 전국 최대 규모의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인 감로당 준공식을 가졌다. 감로당은 대지 1천5백평, 건평 7백2십평의 이층 건물로 평생 입주 노인 70명, 단기보호노인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1층에는 단기보호소, 식당, 이·미용실, 목욕탕, 상담실, 치과 진료실, 명상실 등을 들어서며 2층 노인들의 주거 생활관으로 꾸며졌다.

또한 이날 연꽃마을은 연건평 1천5백평 지상 지하 7층 규모의 '효문화원' 기공식도 함께 가졌다. '효문화원'은 국내 유일의 효 테마 전문 교육장으로 세워진다. 강유신 기자

재가연대 印불교지원 본격화

1차 3곳 학교·법당 건립에 3만5천불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의 인도불교 및 수계운동 지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가연대는 제1차 인도불교 지원 사업으로 석가족이 밀집해 있는 우따 쁘라데시(Uttar Pradesh) 주 3곳(학교, 법당, 불교공원)에 시설 건립 명목으로 3만 5천 달러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3차에 나눠 20일에 열릴 수계식 때 1차로 1만 달러가 전달된다.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상카시아(Sankasya) 지역에서 10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석가족 수계식 때, 인도불교청년회의(Youth Buddhist Society 이하 YBS)의 요청으로 25,000여명의 식사(한화 130만원 상당)를 지원한다. 기금은 성균관대 유필화 교수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또한 20일 법요식에서 계를 받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사진, 단주, 수계증, 법요집 등을 제공한다. 예상금액 1,200여만 원은 보덕학회 류홍우 거사의 500만원과 한국불교법사연합회 기탁금 700여만 원으로 마련됐다.

재가연대는 인도지원 사업을 한국사찰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9월 말경 1차로 서울 경기 지역에 후원 서류를 발송했다.

남동우 기자

초대사장 오현스님 추대

춘천불교방송 운영위



춘천불교방송 초대사장에 오현스님(60·신흥사 회주 사진)이 추대됐다.

춘천불교방송은 2일 춘천베어스타운 호텔에서 종단과 지역을 대표하는 운영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연직 운영위원장에 마근(신흥사), 부위원장에 청화(청평사), 백운(석왕사), 월도(삼운사), 원행(구룡사) 스님 등 4명을, 감사에 밀본(정법사), 금곡(계조암) 스님, 고문에 현해스님(월정사 주지)을 각각 선출했다.

춘천불교방송은 1일 시험방송을 시작했으며 11월 1일 개국한다.

강지연 기자



◇무궁사 스님과 신도들이 9월29일 울산~해운대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대웅전뒤에 6차선 고속도

무궁사, 소음·진동·식수고갈 등 심각한 환경피해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무궁사(주지 대한) 대웅전 바로 10m 뒤로 울산~해운대간 6차선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소음, 진동, 식수 고갈 등 심각한 환경 파괴가 야기되고 있다.

통도사 말사인 무궁사 대웅전 바로 뒤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식수 고갈, 소음, 진동 등으로 스님들의 기도와 수행은 물론 신도들의 신행생활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될 공산이 크다.

7백 여평의 대지에 대웅전 용왕당, 요사채 등을 갖춘 무궁사는 지금도 공사 소음으로 찾는 신도들이 현격히 줄어 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궁사 신도회는 무궁사 수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찬묵)를 구성하고 9월 29일 무궁사 경내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도로공사의 무분별한 도로 공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보우제 일환 영화제 개최

봉은사, 14일까지 7편 상영

"불교영화 보러 오세요"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는 조선시대 불교의 중흥조인 허응당 보우 스님의 뜻을 계승하기 위한 보우제 행사의 일환으로 영화제를 마련했다.

6일부터 14일까지 보우당에서 매일 1편씩 1~2회 상영되는 불교영화는 달마야 놀자(8일 오후 4시30분), 룬둔(9일 오후4시30분), 만다라(10일 오후 4시30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11일 오후 4시30분, 12일 오후 4시30분), 리틀붓다(14일 오후 2시, 6시) 등 7편.

이와 함께 보우스님 행장 영상물, 봉은사 홍보 영상물, 근세의 큰스님들의 행장 및 법문 등도 상영된다.

김원우 기자

"이젠 마음을 닦고 싶다"

출가 선언한 서울경찰청 김기영차장



서울경찰청 김기영(치안감·사진) 차장이 2일 "불교에 귀의하겠다"며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을 떠나 관가(官街)는 물론 불교계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차장의 '출가선언'은 그가 경찰로서 적지 않은 공적을 세웠을 뿐 아니라 승진을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다소 충격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계에서는 "더 일해야 할 사람"이란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 김차장의 명퇴와 출가선언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의 행적과 불교에 대한 평소의 소신은 잔잔한 감동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인사담당관에게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남은 인생은 그동안 경찰생활로 바빠 본의 아니게 소홀했던 불교에 귀의해 보낼 작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명퇴서 제출 직전에는 상관을 만나 자신의 명퇴 계획을 상의하며 "세속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분에 넘친 사랑을 받았다. 이제는 본래 제가 갈 길을 가야 할 것 같다"는 말도 했다. 부인에게도 최근 "경찰직을 그만 두고 불교를 공부해야겠다"는 의사를 비쳐 왔다. 주변 인사들에게도 '바람이 나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며 분주한 생활을 마감하고 마음 닦기를 원해 왔고 스님이었던 선친의 뒤를 따라 은퇴 후 불교에 귀의하겠다는 말도 자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바쁜 생활 그만, 본래 가야할 길 가는것"

김차장의 출가는 선친의 영향과 한 때 승려 생활을 했던 개인적인 이력 등으로 볼 때 예정되었던 결행으로 풀이된다.

2일 서울을 떠나 경북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차장은 부산 동래고와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와 1975년 간부후보생 제23기로 경찰에 입문, 강동경찰서장, 서울경찰청기동단장, 경비부장 등을 거쳐 올초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봉직해 왔다.

임연태 기자

목탁소리 씁쓸한 실천승가회 10돌

남동우 (취재1부 기자)

2일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 이하 승가회)가 창립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파주 보광사에서 열린 10주년 기념법회는 승가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낸 자리였다. 오후 3시로 예정된 법회는 4시가 되어서야 열렸고, 참석한 스님도 200명 회원 중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의장 청화스님도 법회에서 "이렇게 하려면 아예 승가회를 해산하자"라고 얘기했을 정도였다.

정토구현전국승가회와 대승승가회가 힘을 합해, 독재 권력의 반이성적인 탄압이 극에 달하던 때 이에 맞서 싸우던 재야운동이 실천승가회라는 결과물로 나타났다.

승가회는 불교계의 사회참여와 94년 종단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종헌·종법 민주화나 행동하는 승가상 정립에도 기여를 했다. 또한 양심수 문제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북녘동포돕기 운동 등 불교 외부로도 시각을 넓혀, 고통 받는 중생들과 함께 '실천'하는 '승가'상을 보였다.

그러나 요즈음 승가회의 모습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마디로 예전보다 활동성이 약화됐고, 불교계 내부 문제에도 힘있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화 스님은 "예전의 싸움꾼 이미지를 벗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한 과도기"라고 표현했다.

지금은 승가회 출범 당시와는 사회 상황이나 불교계 상황이 많이 변했다. 하지만 승가회가 지향하고 있는 '중생 구제·정토사회 구현'은 여전한 시대적 요청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실천'하는 '승가회'가 되길 바라는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HR (주)화림한방 화장품
화장품
•미백제리 •에센스 •영양크림
비누
•피지제거 •미백 •여드름제거
식품
•다이어트 •선식 •천연향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중
불자로써 화장품·비누 식품사업에 참여하실분(소자본 / 재택근무가능)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254-16
Tel. 053)313-2711 Fax. 053)313-2716
HR (주)화림한방 바이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 행자(예비스님)모집 - 조계종
행자 교육 전문도량
- 행자원(시내 또는 산중) 있음
- 1인 1실 및 대중방
- 엘리트 스님 양성 목표(40세 이하,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민주적 교육 분위기
- 문의 : 011)9852-0075(총무스님)
▶ 납골당
- 최신의 시설로 영구보존(납골당의 신개념)
- 설, 추석 제사천도 및 기일 축원 해드림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가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음
문의 대구 053)474-8228
www.TVbuddha.co.kr

대한불교 조계종
운흥사
주지 지우
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5동 151번지
Tel.053)768-3882 / 767-9627

대한불교 조계종
월인사
회주 혜국
주지 혜관
신도회장 김상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605-6

대한불교 선화종 총본산
황방사
조실 의천 합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만성리 산84
Tel.063)214-0788, 214-0108

대한불교 선화종
대원사
조실 의천 합장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152
Tel.063)288-2752, 232-8078

2003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미리 주문하세요! 불교사진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달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32종)
마하몰 02)732-1520
http://www.mahamall.co.kr

www.bbsradio.co.kr FM 89.9 MHz
BBS 부산불교방송

개산 1200주년을 기념하는 법요식이 열린 10월 1일 해인사. 개산조 순응스님과 이정스님을 기리는 법요식이 끝났는데도 도량 풍경이 분주하기만 하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차인들이 가을 단풍

해인사 개산 1200주년 '불전 헌공다례' 봉행

처럼 도량 여기 저기를 물들이며 오가고 있었다. 대적광전 앞마당에는 넓은 돗자리가 펼쳐지고 좌복이 깔렸다. 해인사 창건 당시 세워진 장중탑을 중심으로 사방에 회색빛 좌복과 차도구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놓였다.



◇10대 제자를 상징한 10명의 스님들과, 해인사 개산 1200주년을 상징한 120명의 차인들이 다구앞에 정렬해 있다.

"청정수 감로차를 올리나니…"

해인사가 개산 120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마련한 불전헌공다례. 해인사 강원 스님들의 차모임 다경원(茶經院)의 비구 스님 5명과 산내 암자 삼선암 비구니스님 5명을 비롯, 우바새 우바이 120명이 정렬돼 있는 다구(茶具)앞에 앉았다. 10대제자를 상징한 10명의 스님들과 120명의 일반 차인들은 1200년 역사를 상징하며 사부대중을 대표해 부처님전에 차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타종과 함께 주지 세민스님, 강주 지우스님 등의 헌향, 헌화가 먼저 올려졌다. 진향을 피워 최고의 지혜를 내려는 마음과 깨달음의 묘과(妙果)인 해탈을 얻을 때까지 부단히 정진하겠다는 서원을 담은 꽃, 향 공양이 끝나자 세 번의 죽비소리에 맞추어 점다(點茶)가 시작됐다. 다관에 마른 차잎을 담고 끓는 물을 부어 차를 우리는 점다. 빛깔, 향기, 냄새, 맛이 없고, 신령한 진수(眞水)를 부어 정성껏 차를 우려내기 시작했을 때, 찻물 끓는 소리를 내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돗자리와 땅에 부딪치는 빗소리는 '소소소'를 연발해 '똑똑똑' 찻물 끓는 소리와 화음이 절묘했고 그럴수록 대중들의 고요는 깊어졌다. 말라있던 땅에 빗물이 스미며 피어 오른 흙내음이 차향에 보태져 차향이 더욱 진하게 피어올랐다.

내리는 비로 옷이 젖고, 앉아 있는 자리마저 젖어 들었지만 부처님전에 올려질 차를 우려내는 차인들의 손놀림은 고요하기만 했다. 진색(眞色), 진향(眞香), 진미(珍味)를 내는 진다(眞茶)와 진수가 중정(中正)의 도에 의한 점다의 솜씨를 만났을 때 비로소 '참마음'의 세계가 담긴 감로다(甘露茶)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빗속에서 일체의 분별을 내려놓고 텅빈 마음으로 차를 우리는 차인들의 모습은 그대로 선다일여(禪茶一如)의 경지를 느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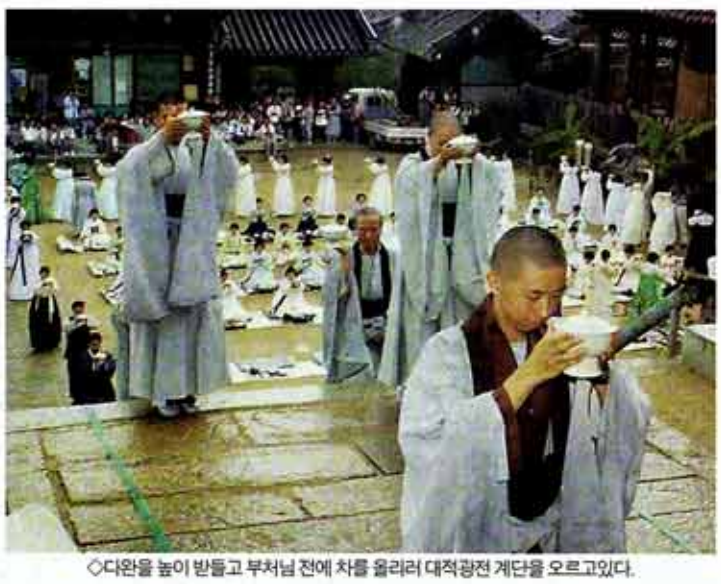
"헌다하시오" 사회자의 말이 떨어지자 다완을 높이 받쳐든 스님들이 먼저 대적광전을 향하는 계단을 오르고, 그 뒤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120명의 차인들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 수행 정신을 일깨우며 차례차례로 계단을 올랐다. 한 걸음 한걸음 부처님전을 향해 나아가는 차인들과 함께 지켜보는 대중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

헌다가 끝나자 다게가 이어졌다. 동참 대중들도 나직히 마음속으로 따라 외었다.

"아금청정수 (我今淸淨水) 변위감로다 (變爲甘露茶) 봉헌삼보전 (奉獻三寶前) 원수자비애납수 (願垂慈悲哀納受)

제가 지금 맑은 물을 감로의 차로 만들어서 삼보님전에 받들어 올리오니 원컨대 어여삐 여겨 거두어 주소서"

삼귀의, 반야심경, 헌향, 헌화, 점다 및 헌다, 다게의 순서로 50여 분간 이어진 이날 불전 헌공다례는 퇴공으로 끝을 맺었다. 삼보에 대한 공양이 여법하게 끝났음을 알리는 죽비 3타가 다시 울렸다. 불전에서 차를 내리는 퇴공의 순서뒤에 다인들이 헌공다완에서 수구에 차를 따둬 세 번에 나눠 음다하는 순서가 이어지게 되어 있으나 이날은 우천관계로 퇴공으로 끝을 맺었다.



◇다완을 높이 받들고 부처님 전에 차를 올리러 대적광전 계단을 오르고있다.



◇대적광전 앞에 마련된 차단위에 차를 헌공하는 차인들.

스님·차인 120명 茶具앞에
타종과 함께 헌향·헌화
죽비소리에 맞춰 點茶
진색·진향·진미의 차 완성
스님·차인 다완높여 헌다
"진수로 감로차 드리니" 茶偈
퇴공후 참석자들 차맛 음미

불전에서 차를 내려 다시 마당에 되돌아오는 것으로 불전 헌공다례가 여법히 마쳐지자 거짓말처럼 빗줄기가 잦아 들었다. 먹구름이 걷히고 대적광전과 앞마당 위로 푸른 하늘이 열렸다. 개산의 모습이 이러했을까? 사바의 먹구름과 중생들의 업장을 말끔히 걷어내고자 산을 열었던 개산조들의 마음처럼 햇살이 내리고 하얀 물안개가 산허리를 타고 흐르며 신비감을 더했다. 청도의 금정다례원에서 참석한 임상점(64)거사는 "차공양을 올리고 나니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분이 든다"며 "오늘 내린 비는 중생들의 업을 씻어 내리고 맑은 마음, 참마음을 공양 올리라는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날 불전 헌공다례에는 석정원(서울) 푸른차문화원(대구) 종정다례원(청도) 아란야 다도회(부산) 등 전국의 차인들 중에서도 수련이 깊은 37개 다도회가 참석했다. 오래 다도를 익혀온 차인들에게도 불전에 차공양을 올리는 것은 일생에 단 한번일지도 모를 귀한 경험이다. BC 1500년~1200년경의 고대 인도에서 유래된 '사원다례'는 부처님 생존시로 이어지며 참마음, 즉 초월의 상태를 차를 우리는 과정에 담아 올리는 의식으로 정착되었다. 이후 불사리탑에 차를 올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곳곳의 부도전에 차공양이 올려지긴 했지만 법당 부처님전에 전통의식으로 차를 헌다하는 불전헌공다례 시연은 몇백년만에 재현된 이례적인 행사였다.



◇'진색·진향·진미'를 내기위해서는 일체의 분별을 내려놓고 허공같은 마음으로 차를 우려야 한다.



◇헌다가 끝난후 퇴공하는 모습.

한편 다경원은 전날인 9월 30일에는 차문화강좌를 개최했다. 스님과 차인 등 모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전통문화원 석정원차회 원장 선혜스님의 '불교사원의 차문화와 차례', 임지암 주지 여연스님의 '현대생활불교와 차문화', 동국대 김상현교수의 '해인사와 차문화' 등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날 여연스님은 "오늘날 차 문화는 고급과 최고만을 따지는 사치의 전유물처럼 변해버렸다"며 겉모양만 호화스러운 형식을 중요시하는 현재의 차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오늘날, 차를 행하는 행위에 무게중심을 실어 진짜 중요한 차의 빛깔, 향, 맛을 제쳐두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우리 불교역사와 문화의 전통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차문화를 막연히 현대라는 틀속에 가두지 말고 옛 시대의 발자취를 연구해,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새로운 차문화 정립에 나서자"고 말했다.

글=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차 마시는 일도 수행의 하나"

다경원 원장 도안스님



"해인사 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차를 좋아하는 학인들의 다도모임 '다경원'입니다. 오늘 헌공다례도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가야산 마애불 부처님께 다공양을 올려오던 다경원의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다경원 원장 도안스님은 다경원이 43년 전통의 해인사 강원의 수행 가풍을 세우는 중심에 있다고 소개했다. 경전공부와 수행자의 위의(威儀)를 익혀가는 강원의 학인들에게 차를 마시는 일은 곧 수행의 일부로 여겨질 정도로 비중이 높다.

1987년 12월 설립된 다경원은 〈다로경권(茶爐經卷-차를 우려내는데 필수품인 화로인 다로와 경전의 문구를 적은 두루마리)〉이라는 회지 발간을 통해 차문화 보급과 차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일에 주력해왔다. 이는 차문화 보급이 삭막한 세상에 부처님의 감로수를 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매년 3월3일·9월9일 마애부처님께 茶공양

이후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가야산 마애불 부처님께 차공양을 올리는 현다행사를 이어온 다경원은 해인사 개산 1200주년을 맞아 2년만에 회지 〈다로경권(111호)〉을 재발간하기도 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Hyundae Bulkyo 8th 8 창간 8주년 특별기획 II

불교상담 현황

고민·신행 궁금증 함께 풀어요

사찰·단체·복지관 등 상담활동 활발
작년 4,924건… 전년보다 1,550건 증가
재원·봉사자 확충, 정신적 복지 서둘때

이러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나란히 설립된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불교명상심리학과·상담심리학와 선상담연구원이 불교 상담전문가 양성에 나서기로 하는 등 포교 및 복지의 한 방편으로 불교 상담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사찰에 한정되어 있던 신행상담실도 불교교양대학, 신행단체 등으로 보급되고 있다. 특히 60여개에 달하는 교계 복지관들도 저마다 가정 폭력문제, 성폭력, 자녀교육 문제, 가정 법률문제 등까지 범위를 넓혀 상담활동을 펴고 있어 불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청소년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주고 있는 불교계 청소년시설의 상담프로그램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제 불교상담은 신행의 동반자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교의 방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상담 현황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비의 전화 12주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걸려온 총 상담건수가 4,924건으로 재작년 3,374건에 비해 무려 1,550건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종교문제 상담 건수는 178건에서 140건으로 38건이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불교상담 전화를 이용하는 이들이 불자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많다는 반증으로 전화상담이 포교에 일조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일반 시민들이 사찰을 방문하다 보면, 법당 문이 열려있어서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자유롭다. 하지만 절의 역사나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때는 그렇지 못하다. 불교에 대해 묻고 싶어도, 그 사찰의 신도가 되고 싶어도 마땅히 물어볼 사람도, 공간도 없다.

이웃 종교들은 절에 들어와서도 선교를 하려 하는데, 불교는 찾아오는 사람들조차 외면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현실이었다. 험난한 세상살이에 자신의 인생을 불교적으로 해결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하지 못한것은 불제자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현재 불교계의 상담관련 시설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100여 곳이 넘는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신행상담소가 10여곳, 전화상담 기관이 10여곳, 가정 및 여성관련 기관이 20여 곳, 청소년 및 아동관련 기관이 15곳에 이른다. 전문상담소를 비롯한 상담교육, 노인, 인권, 세무법률, 실직, 결혼관련 상담기관도 각 5곳씩이 넘는다.

◑왜 불교 상담인가

불교와 상담의 친연성은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부처님의 설법은 내담자가 해결해야 하는 괴로움의 진술을 출발로 한다는 점. 둘째, 부처님과 내담자와의 의사소통은 당면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셋째, 부처님은 내담자의 변화에 기여하는 전문적 소양과 지식을 갖춘 상담자란 점. 넷째, 부처님은 대기설법, 방편시설과 같은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내담자의 통찰을 도와주어 이를 통해 무명을 타파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점이다.

불교상담은 개인에 대한 문제, 즉 '자아'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본질적 입장에서 현대적인 심리학적 상담에도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어쨌든, 불교의 정신에 부합되는 원리나 방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불교상담'으로 볼 수 있다.

◑불교상담의 역사

불교계에서 상담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자비원에서 '자비의 전화'를 개설하면서부터다. 이후 부산 '자비의 전화'(84년), '희망의 전화'(85년), 수효사 '자비의 전화'(87년), 광주자비원 상담전화(90년), 제주 '자비의 전화'(92년), 한국불교청년회 마음의 전화(96년) 등이 잇달아 개설됐다. 88년 불광사 무료법률 상담소와 90년 조계사 무료법률 상담소가 생기면서 비공식적인 신행상담만 실시해 온 사찰들이 법률, 세무, 가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시작했다.

2년전 발족한 불교상담개발원과 여성불교연합회가 정기 상담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하면서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늘고 있다. 앞으로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의 불교명상심리학과 및 상담심리학과와 선상담연구원에서 전문자격을 갖춘 불교 상담사들이 배출될 전망이어서 불교상담의 저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과제

사찰과 복지, 신행단체 등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상담을 비롯한 '정신복지' 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다. 상담복지를 활발히 펼칠 수 없는 데에는 재정 부족, 자원봉사 활보의 어려움, 스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족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승가원 원장 현각스님은 "노인, 청소년, 부녀, 법률, 소비자 상담 등 분야별 상담기관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상담요원과 시설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며 "스님들이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상담자를 맞는다면, 사찰의 환경조건과 스님들의 신뢰성이 가장 좋은 상담여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관련 상담기관

분 야	기 관 명	연 락 처
신 행	조계사 천수천안의전화	(02)720-7096
	불광사버라밀상담소	(02)420-3182
	법왕사 신행상담실	(053)766-9088
	봉은사 봉은상담실	(02)516-5651
	원각사 상담실	(062)223-3168
	장엄포교원 상담센터	(043)646-3023
	능인선원 복지상담실	(02)577-5800
	관음사 불교상담전화	(053)474-0108
	동산반야회 신앙상담실	(02)722-0108
종합상담	열린마음클리닉	(02)732-8144
	그래 심리상담연구소	(02)722-2757
	화연	(02)704-3577
	포교사단 상담팀	(02)737-7588
전화상담	자비의전화	(02)737-7378
	본각사 나눔의전화	(02)654-0872
	대구 마음의전화	(053)625-2486
	마음의전화	(02)747-5787
	맑고향기로운전화	(062)266-0410
	대구 자비의전화	(053)753-9736
	대불련 상담전화	(02)723-5850
	참나참사랑복지협회	(02)952-2266
상담교육	불교상담개발원	(02)737-8803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02)808-6582
	선상담연구원	(02)733-5311
	광주 상담교육원	(062)222-1165
가정·여성	여불련 이혼예방센터	(02)738-5586
	희엄동산	(02)2642-1364
	선재가정상담소	(02)942-0149
	행복의 전화	(02)3611-7942
	공주 가정폭력상담소	(041)854-3737
	경주 가정폭력상담소	(054)749-1366
	대구 여성의 전화	(053)475-8082
	서울시 가정상담소	(02)322-1366
	동국대 소비자상담실	(02)2260-3057
	과천종합사회복지관	(02)507-6319
	자양종합사회복지관	(02)458-750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02)852-0525
	옥수종합사회복지관	(02)2282-1100
	청담종합사회복지관	(02)806-1377
	제천사회복지관	(043)644-2983
청소년·아동	디지털열린청소년상담실	(043)215-0804
	교사불자련 교육상담전화	(02)720-0218
	인간발달상담연구소	(042)477-1044
	자광아동·가정상담원	(02)762-7401
	참나청소년전화상담실	(02)747-5787
	청교련 청소년상담실	(041)932-1434
	불교교화원 청소년상담실	(02)699-2010
	동국대 청소년전화상담실	(02)2260-8996
	양정청소년수련관	(051)868-0750
	목동청소년수련관	(02)2646-0181
	삼전종합사회복지관	(02)421-6077
	월곡청소년센터	(02)918-3543
	카루나의모임	(054)741-0800
노 인	서울노인복지센터 상담실	(02)739-9501
	노인의전화	(02)303-0070
	성북복지관	(02)929-7950
	대구 노인상담전화	(053)476-6633
	효손재가노인복지상담소	(02)508-8226
인 권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02)3147-2600
	남화사 외국인노동자쉼터	(054)452-6568
	경불련 김포 인권상담소	(032)997-2301
	부천 외국인노동자의집	(032)654-0664
세무·법률	세무사불자회	(02)588-8744
	낙동종합사회복지관	(051)271-0560
	법왕사 세무법률상담실	(053)757-3324
실 직	영등포 보현의집	(02)678-4992
	아침을여는집	(02)924-1010
	부산 보현의집	(051)506-0146
	대구 노숙자상담센터	(053)426-5828
	구미 보현의집	(054)457-1120

부처님은 위대한 상담가였다

경전/속/상담

각계각층 사람들 질문에 응답
잠재력 일깨워 해탈의 세계로

어느 날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남의 잘못을 들출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히 머무를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남의 잘못을 들출 때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들추려는 잘못이 사실이어야 한다. 둘째 때에 맞아야 한다. 셋째 이치로 이익을 줘야 한다. 넷째 부드럽고 연하여 추하거나 까다롭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사랑하는 마음이어서 성내지 않아야 한다."(잡아함경)

〈잡아함경〉 등 초기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은 위대한 종교 창시자라기보다 인자한 어머니, 자상한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 투정을 부리면 받아주고, 몸이 아프면 찾아와 위로하고, 따지고 들거나 속이고 욕을 해도 따뜻하게 감싸주고, 심지어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자비로써 잘못을 깨우치게 해주었다. 경전속의 대화 하나하나가 마치 오늘날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담 장면 같다. 부처님은 어떤 질문자에게도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토록 해 마침내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위대한 상담가였다. 경전 곳곳에서는 어린이부터 노인, 국왕, 성직자, 부녀자, 살인마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상담사례가 엿보인다.

부처님의 상담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기도 한다. 이렇듯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 △구체적인 방안 제시 △상대방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언어와 방편 사용 △위엄 있는 용모를 통한 감화 등 부처님의 상담자적 기질 때문이다. 불자들을 바른 행동으로 이끌고 마음을 안정시켜, 해탈로 이끄는 것이 부처님의 상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재경 기자

사찰·단체 홈페이지 이용 활발

사이버/상담

'자비 24시' 비밀보장 1:1 상담
부다피아·달마넷 등 교리문답

인터넷이 보편화된 요즘, 불교계 사이버 상담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개설된 사찰 및 신행단체 홈페이지의 신행상담 코너에 많은 불자들이 신행생활 중 겪는 의문점을 물어오고 있는 것. 직접 상담자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또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는 이들이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것도 인터넷 상담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인터넷 상담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은 조계종 포교원 불교상담개발원의 사이버상담실 '자비24(jabi24.org)'다. 이곳은 '열린상담' '메일상담' '비밀상담'으로 나뉘어져 불교교리와 수행상담 뿐 아니라 법률,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하고 있다.

상담실이 개설되어 있는 불교계 포털 사이트로는 현대불교신문이 운영하는 부다피아와 달마넷, 불공닷컴 등이 있다. 부다피아는 신행상담 뿐만 아니라 건강, 법률, 세무 상담 등 생활전반에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 황선정 사무국장은 "40대 이상의 상담도 늘고 있어 앞으로 인터넷 상담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주요 인터넷 신행상담 코너

사찰 및 단체	사이트 주소
불교상담개발원	www.jabi24.org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달마넷	www.dharmanet.net
불공닷컴	www.bulgong.com
불교인터넷텔레비전	www.buddhatv.com
목탁소리	www.moktaksori.com
안국선원	www.ahnkookzen.org
보리수선원	www.borisu.or.kr
정토회	www.jungto.org
서울 조계사	www.jogyesa.net
합천 해인사	www.haein-sa.org
순천 송광사	www.songgwangsa.org
전남 백양사	www.baekyangsa.net
청주 관음사	www.gwanumsa.org
부산 법어사	www.boomeosa.net
양산 통도사	www.tongdosa.or.kr
일산 여래사	www.ibuddha.tv
부산 삼광사	www.samkwangsa.or.kr
단양 구인사	www.chontae.or.kr
대구 동화사	www.donghwasa.net
한국불교법사대학	pubsa.buddhism.org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최대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칠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 입니다.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46-4422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Hyundae Bulkyo 8th 창간 8주년 특별기획 II

불교상담 연구 어디까지 왔나

정신치료로 출발 정립단계 진입

불교명상법을 상담심리학에 접목
이론 바탕 '초기불교·유식·선'에서
학문으로서 '불교상담학' 미정립

국내 학계에서 불교 사상을 상담심리학적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는 주로 정신치료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출발했다. 1968년 이동식 교수(전 연세대·이화여대 교수, 정신과)가 쓴 '한국에서의 상담과 정신 치료의 철학적 정초 서설'(윤태림박사회갑기념논문집)은 불교의 명상과 상담 심리학을 접목시킨 최초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고려대 김기석 교수가 선(禪)을 상담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글들을 쓰기 시작했고, 1970년대 들어서는 가톨릭대 윤호균 교수와 경북대 의대 정창용 교수가 가세했다.

특히 이동식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정신치료의 철학적 기초가 선을 비롯한 〈능엄경〉 〈대승기신론〉 등의 사상에 담겨 있다는 주장을 펴 이 분야 연구의 토대를 다졌다. 또 〈한국인의 주체성과 도〉(일지사, 1974)과 〈노이로제의 이해와 치료〉(일지사, 1974) 등의 책을 통해서는 선불교의 '교외별전'이나 '견성성불' '불립문자' '직지인심' 사상이 현대 정신분석이나 정신치료와 직결된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다.

불교상담과 관련한 논문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온 것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다. '팔정도 수행법과 심리치료'(박영동, 1989)를 비롯해 '연기법의 중도 사상에 기초한 상담 모형의 탐색'(조혜진, 2000), '상담심리의 불교적 접근—오온설과 사성제를 중심으로'(조경자, 2001) 등 10여 편의 석사 학위 논문을 불교상담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 논문은 불교 사상 중에서도 초기불교와 유식사상, 선 등 3분야에 집중돼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초기불교에서 상담심리학적 요소를 뽑아내려는 노력이 많은데 가톨릭대 심리학과 윤호균 교수가 대표적이다. 선은 주로 치료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권경희씨의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불경에 나타난 석가의 상담 사례' 연구—잡아함경을 중심으로'처럼 초기 불교 경전에서 상담심리학적 요소를 추출해 내는 시도가 돋보인다.

그러나 응용불교학으로서의 불교상담학은 '이제 겉음마를 걷기 시작한 수준'이라는 게 관련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선(禪)상담연구원을 개원한 인경 스님(보조사상연구원 연구실장)은 "서구 상담심리학에 기반을 둔 학자들이 불교를 상담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70년대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불교상담과 명상치료, 명상심리치료라는 용어가 함께 쓰일 정도로 학문적 정립은 아직 안 된 분야"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불교 상담프로그램 개발 시급"

禪상담연구원 개원한 인경스님



"불교상담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학문적 정립과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선(禪)상담연구원을 개원한 인경 스님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불교적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경 스님이 상담을 처음 접한 것은 즙가 전 서울교육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불교상담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99년부터 2년간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이라는 모임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심리학적 방법에 기초해 사람의 내면을 바꿔나가는 새로운 포교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한 목사의 얘기를 듣고 큰 자극을 받은 스님은 "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스님들을 보면서 불교계에서도 상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불교를 상담에 적용하면서도 절대 심리학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면 불교쪽 전공자들은 심리학에 관심이 없다. 둘 다 한계가 있다.

인경 스님은 "서구 심리학의 참고 자료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 이론 기반을 갖는 불교상담학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불교상담에서의 심리학적 기초 확립, 불교의 명상과 심리학의 결합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인경 스님은 "서구 심리학은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과 진단에 유용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불교상담은 세간적 상담과 자기 문제를 포함한 출세간적 상담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명상·심리학 결합 이론 연구 주력
세간·출세간적 상담 서로 융합돼야

권형진 기자

내적공감 얻는 상담이 곧 '치료'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의 상담현장



"얼마 전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종교가 기독교여서 결혼까지 가는데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타인의 종교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면서 아는 스님이 계신 조용한 사찰에 가서 조언을 부탁드리고, 새벽예불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작전(?)을 한 번 세워 보세요."

지난달 30일 삼청동 '예띠의 집, 가족아카데미' 정원에서 이근후 원장(66, 불교상담개발원)이 이성간의 종교문제로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는 김정숙(가명, 23)씨와 상담하고 있었다. 이 원장은 의료봉사차 네팔을 방문하고 돌아온지 이틀밖에 안돼서인지 무척 수척해 보였지만 상담 의뢰인과 얘기할 때만큼은 시종일관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40여년동안 정신과 치료를 해온 이 원장은 불교적인 상담원리를 찾아내고 체계화시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훌륭한 포교가 될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

이 원장은 "실제로 불교상담은 '문제를 가진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 물음 속으로 직접 들어가, 선이나 명상 등 자신을 통찰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팔정도 수행을 심리치료 과정으로 응용한다거나 스트레스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명상법을 권하는 등 상담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설명한다.

역시 해결책은 '일체유심조'임을 깨닫게 된다는 이 원장은 "의뢰자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공감을 이루어내는 상담 자체가 곧 치료"라고 불교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팔정도수행법·명상법 마음치료 응용
가정·청소년·인생문제 경전내용 활용

김주일 기자 jeem@buddhapia.com

"상담에 불교적용 전망 밝아"

가톨릭대 심리학과 윤호균교수



가톨릭대 심리학과 윤호균 교수는 초기불교의 연기 사상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는 대표적 상담심리학자다. '불교와 상담—연기론과 유심론을 중심으로'(강석헌교수회갑기념논문집, 1998) 등 연기론과 상담에 대한 논문도 이미 여러 편 발표한 윤 교수는 97년부터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이를 적용해 오고 있다.

"상담 및 치료에서는 특히 자신과 세계가 고정불변하는 실체라는 생각과 자신이 남들과 다른 정체성을 지닌 별개의 존재라는 생각이 괴로움의 생성과정에서 핵심을 이룬다는 불교의 설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윤 교수는 "상담에 불교를 접목해 보는 시도는 확실히 의미 있고, 전망도 밝다"고 강조한다.

윤 교수는 "남들이 모두 자기만 쳐다보고 무시하는 것 같아 혼자 다니지를 못하는" 대인공포증에 시달리던 한 여대생의 사례를 들었다. "연기론을 원용하면, 무명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항상 같은 모습이며 그 현상을 좌우하는 확고한 실체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문제 역시 자기 마음에서 나온 '공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공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윤 교수는 "이제 상담의 기법에 불교 이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정도지 '불교상담'이라고 부르기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한다.

윤 교수는 "상담 및 정신치료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이론적 연구를 통해 검토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과정을 거치고서야 '불교상담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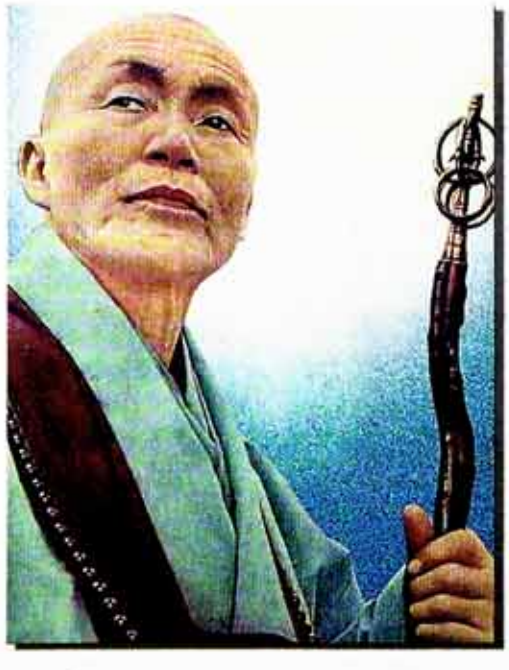
'자기집착'이 고통 핵심 통찰 필요
이론·현장적용 상호 검증있어야 발전

권형진 기자

奉

청담대종사 탄신 100주년

祝



肉身은 有限하고 法身은 無限하다

한국 불교 근현대사에서 청담대종사의 수행은 치열했고 활동과 역할은 매우 넓고 컸다고 아니할 수 없다. 부처님 법대로만 살자는 기치 아래 1947년에 주도한 봉암사 결사가 그렇고, 1954년부터 열반에 이르도록 올곧게 이끌어온 불교정화운동이 그러하며 공부하는 불교, 참회가 있는 신앙운동을 선도하고, 육영사업과 아동 복지 사업을 통해 세상과 함께 하는 불교를 건설해 가는 노력 또한 탁월한 안목과 시련의 모습이었다.

스님은 종정의 직분으로, 원로원장으로, 총무원장의 직분으로, 때로는 동국학원 이사장으로, 불교신문 사장으로 사익보다 공익을, 문중보다 교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

스님의 삶은 조계종의 출범과 성장, 그리고 발전의 궤적과 같이 하셨다. 따라서 스님의 삶은 조계종 근현대사와 분리될 수 없는 생애였다.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청담문도회는 이 날의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종단과 협의하여 스님에 대한 추모의 정을 다한 가운데 때마침 종단이 추진하는 통합 종단 출범 40주년 기념사업에 부응하여 청담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회고하고 근현대 조계종사적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고 정리하는 좋은 기회로 삼도록 합의하고 함께 기념 행사를 갖도록 하였다.

청담대종사 생애와 사상연구 학술 세미나

- 학술 세미나 I : 2002년 10월 10일 13시 30분 프레스센터 (서울 태평로 소재)
- 학술 세미나 II : 2002년 10월 12일 10시 봉녕사 (수원시 팔달구 소재)

청담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법회 및 청담기념관 개관

- 2002년 10월 15일 삼각산 도선사

청담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축제 - 산사음악회

- 2002년 10월 20일 18:00 - 21:00 삼각산 도선사 야외 무대

출연진 : 이상벽, 해바라기, 최성수, 이은하, 김태곤, 전미경, 강진한, 박정희, 머루와 다래, 김향금 무용단, 세모시 민속악단 등 (일부 출연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청담대종사 열반 31주기 추모 법회 및 탄신 100주년 기념 36,500등 불사 회향법회

- 일 시 : 2002년 11월 15일 오전 11시
- 장 소 : 도선사 호국 참회원

문 의 도선사 02)993-3161~3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담문도회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 청담문화재단, 불교신문사

◆ 후 원 : 봉녕사, 불교방송국, 불교텔레비전, 법보신문, 현대불교, 주간불교, 대한불교, 중앙신도회, 학교법인 청담학원, 애명복지원, 보육원, 애명양로원, 청담복지관, 청담 도봉어린이집, 도선사 신도회



교양학습만화
삼 국 유 사

**삼국시대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책!**

이 책 <교양 학습 만화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근원을 알려 주는 단군 이야기와 삼국의 신화, 재미있는 전설과 민담, 그리고 불교 이야기와 향가고유의 시가가 실려 있는 역사책 <삼국유사> 5권 중에서 어린이들에게 교훈과 재미를 주는 내용을 골라 알기 쉽게 만화로 꾸민 것이다. 우리 민족의 기원과 삼국의 생화 · 문화를 한눈에 알 수 있을 뿐더러, 조상들의 생각과 정서까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허순봉 구성 · 한걸 그림
46배판/287쪽/값6,500원
능 인
전화 02-567-0700 팩스 02-567-9610



불교용어 기초지식

불교에 대한 전체적이고 개괄적인 이해와 더불어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요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결합한 독특한 책이다. 불교의 역사, 사상, 수행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용어들에 대해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교라는 숲과 그것을 구성하는 개념과 용어라는 나무를 적절하게 소화해내고 있다.
또한 주요 용어에 대해서는 색인란을 두어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水野弘元 지음 · 석원연 옮김
/국판/313쪽/값9,900원
도서출판 들꽃누리
전화 02-455-6365 팩스 02-455-6366



원 동 이

잊혀진 동심을 화폭에 담는
원성스님,
그 맑은 감동을 글로
빚어낸 또 하나의 책!

원성스님 글 원동이 그림
신국판/225쪽/값8,500원
솔과학
전화 02-725-8655 팩스 02-725-4656



붓다의 상담

– 아함경을 알면
부처님이 보인다.

권경희 지음
신국판 양장본/662쪽/값30,000원
도서출판 도피안사
전화 031-676-8700 팩스 031-676-8704



히말라야 있거나 혹은 없거나

– 히말라야를 알면
우주가 보인다

임현담 지음
신국판 반양장/368쪽/값15,000원
도서출판 도피안사
전화 031-676-8700 팩스 031-676-8704

현대불교신문 창간

불교서적 총판

**푸르디 푸른 가을 하늘만큼이나
상쾌하고 선선한 가을 바람만큼이나,
맑고 청정한 불교의 가르침과
세상 사는 지혜를 담은 책들이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항상 불교서적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전화 02)3672-7181~5
팩스 02)3672-7186

본 연합광고의 서적은 전국
책방 여시아문(02-732-1521)에서는 11월 3



문수기도 공덕

이 책은 저자가 그간 전통적인 문수도량인 오대산 상원사 선원에서 오래도록 공부하면서 해제 때마다 수시로 문수기도 공덕 관계의 글을 모아 정리해 두었던 것을 간행한 것이다.

어떤 중생이든지 문수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독송하는 이는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 문수보살 반열반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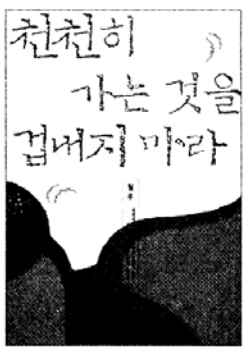
정념스님 지음
46판 양장본/208쪽/값 6,5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왕초보, 불교 박사 되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방장, 조실스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법문을 마친 뒤 왜 '할(억)'하고 큰 소리를 내십니까?
여성 신도를 왜 '보살님'이라고 부릅니까?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습니까?
스님은 왜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었습니까?
주지스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석지현, 윤창화, 일지 씀
46판 양장본/320쪽/값7,5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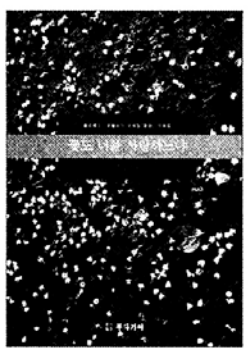


천천히 가는 것을 겁내지 마라

파계사 영산율원장 월우스님이 쓰신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이야기

가슴을 울리는 잔잔한 깨우침 속에는 소중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이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참된 행복을 찾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철우스님 지음
신국판/266쪽/값8,000원
도서출판 부다가야
전화 051-865-4383 팩스 051-865-4821
http//:www.buddhagaya.co.kr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쉼 없는 수행자의 투명한 감동

이 글은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교훈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고 담박하고 깔끔한 문장이 잡은 참에 읽힌다. 내 자신도 늘 되돌아보는 바이지만, 출가 수행자에게는 글 쓰는 일이 수행의 한 여기(여기)에 지나지 않는다. 수행자의 본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착실한 중노릇이다. 스스로 깨어있고 이웃을 깨우는 일이다. – 법정스님 –

혜총스님 지음
신국판/319쪽/값8,000원
도서출판 부다가야
전화 051-865-4383 팩스 051-865-4821
http//:www.buddhagaya.co.kr



바로 이번 생에

위빠싸나 선사 우빤디따 스님의 가르침

우빤디따 스님은 자유가 숨결처럼 직접적이고, 걷는 것처럼 근본 됨을 일깨워 주는 탁월한 스승이시다. 옛 이야기와 일화를 곁들여 생생하게 명상 세계를 보여 주는 '이 책은 부처님께서 밟으신 대 자유의 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분명하고도 신뢰할 만한 지침서로서 부처님이 가신 길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여, 영웅적인 해탈의 길로 우리 모두를 초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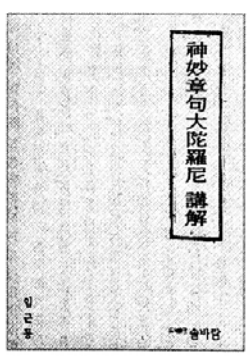
조미라 옮김
신국판/360쪽/값9,000원
불광출판부
전화 02-420-3200 팩스 02-420-3400
홈페이지 http//:www.bulkwang.org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서론에서는 대장경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과 성과가 간략히 정리 되었으며, 본론으로 들어가면 고려대장경의 체제와 조성기구에 대한 내용, 고려대장경 조성의 참여형태와 계층에 대한 분석, 대반야경 금광명경 대승대교왕경 등을 대상으로 대장경 조성에 대한 사례분석 등 고려대장경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김윤곤 지음
신국판 양장본/668쪽/값30,000원
불교시대사
전화 02-730-2500 팩스 02-723-5961



신묘장구대다라니 강해

불자들이 수지 독송해온 신묘장구대다라니, 생명의 언어로 다시 태어났다!

임근동 선생님이 우리말로 풀이하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고 있노라면,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으신 관세음보살님이 고난에 찌든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시는 듯한 느낌이 든다.

다라니를 외우는 우리들의 지극한 정성에 감응하시어 자비의 화신이신 관세음보살님이 천의 눈으로 살피시고 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니 빈 곳은 채워지고 아픈곳은 치유되며 독한 키운은 사라져 흩어진다.

임근동 지음
신국판 양장본/207쪽/값10,000원
도서출판 솔바람
전화 02-720-0824 팩스 02-722-8760



김호성 교수의
배낭에 담아온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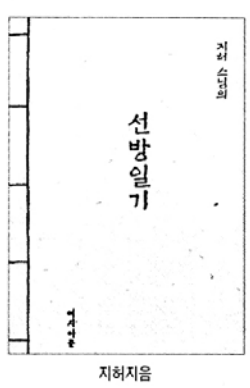
인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다리놓기

올드 델리의 한 시장에서는 길에 체중계 하나만 놓아두고 몸무게를 달아주고 1루피를 받는 아이들이 있었다

팁을 주면 그저 고개를 좌우로 가웃거리는, 표정없는 릭샤 왈라를 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알고 보니 그것이 고맙다는 인사다.

아잔타 동굴을 지키면서 청소하는 할아버지는 학교에 다니는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봄퀸을 주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대견한 생각이 들어서 봄퀸을 주었다. 나중에 그것이 봄퀸을 얻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그 할아버지의 진심을 믿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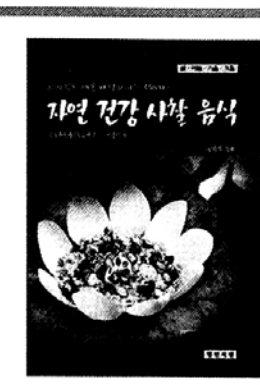
김호성지음
신국판/331쪽/값9,000원
여시아문
전화 02-732-1521 팩스 02-737-0695



선방일기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세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하는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될 것이다.

지허지음
46판/136쪽/값5,000원
여시아문
전화 02-732-1521 팩스 02-737-0695



자연건강사찰음식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이여영의 새롭게 선보이는 358가지 자연건강 사찰음식

사찰음식의 특징은 어육류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고 채식을 위주로 하는데 있다. 이것은 생명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 수련의 승화된 경지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찰음식의 특성을 살리고 더 나아가 현대적인 조리법을 더함으로써 사찰 음식을 선미로 발전시켰다.

– 사찰음식 발간에 부치는 글 중에서 –

이여영 지음
크라운판 양장/값 30,000원
열린서원
전화 02-446-8399 031-564-5215
팩스 02-452-3191



조용히 기대어 쉬고 싶을때 마음에 위안을 주는 선물

TV 동화 행복한 세상 1, 2

매일 500만명이 눈물 흘렸습니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 1, 2>는 베스트셀러로 이미 80만 독자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이 책은 감동의 진수를 보여줌으로써 퇴색해진 행복과 삶의 의미를 짚어보게 한다. 읽을 때마다 코끝이 찡해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TV 동화 행복한 세상>은 2002년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다.

기획 박인식(KBS한국방송 PD) 글·구성 이미애
신국판/1권 272쪽, 2권 286쪽/값 각권 9,000원
샘터

전화 02-742-4929 팩스 02-3672-1873



학교로 간 붓다

현장 교사가 엮은 붓다 초청 특강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붓다 선생님의 학교 방문기.**

붓다의 방식대로 가출하자.
108배로 나를 낮추자.
친구 데리고 강남 가자.
밥 한 숟가락 속 인연을 잊지 말자.
어머니의 가벼운 뼈를 기억하자.
악기의 줄을 조율하듯이 공부하자.

최시선 지음
신국판 변형 / 276쪽 / 값 8,500원
시공사

전화 02-588-0833 팩스 02-588-0835
홈페이지 www.sigongsa.com



회색 고무신

성철 스님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사리!

청담 스님의 땀로 태어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마침내 한국 비구니계의 가장 큰 스승이 되기까지, 한 편의 소설처럼 펼쳐지는 묘엄 스님의 일생.

청담의 딸, 성철의 제자' 세속의 잣대로 보면 왕대밥 소속이다. 그러나 출가수행이 배경이나 그늘로 성취될 수 있는 여정이던가? 아버지와 스승의 이름은 빵빵한 유산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벽이다

노비구니 스님이 조곤조곤 구술한 극적인 입회와 수행의 역정을 격조 있게 꾸민 원로 방송작가 윤청광 선생의 솜씨도 돋보인다. 잔잔한 웃음이 일고 가끔씩은 아리한 감동이 목구멍을 막는다 —조선일보

묘엄 스님 구술 · 윤청광 엮음
/신국판/356쪽/값9,000원
시공사

전화 02-588-0833 팩스 02-588-0835
홈페이지 www.sigongsa.com



이 세상은 나의 사랑이며 또한 나다

**명상과 실천을 통해
평화를 전파하는 실천불교의 정수**

틱낫한, 달라이라마, 잭 컨필드 같은 불교계 위대한 스승들과 하자, 저솔가 등이 실천불교 출판 10주년 기념문집으로 출판된 책. 틱낫한을 존경한다고 했던 강원룡 목사가 한국기독교의 최대 약점은 "명상 과정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스님은 철저히 명상중심의 불교를 이야기한다. 그의 명상은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래서 스님의 말씀은 우리를 쉽게 평화로움에 이르게 한다.

틱낫한 외 지음/진우기 신진욱 옮김
신국판/300쪽/값9,200원
도서출판 양문

전화 02-722-7181 팩스 02-738-6167



틱낫한의 평화로움

나에게로 떠나는 명상 여행 - 틱낫한의 대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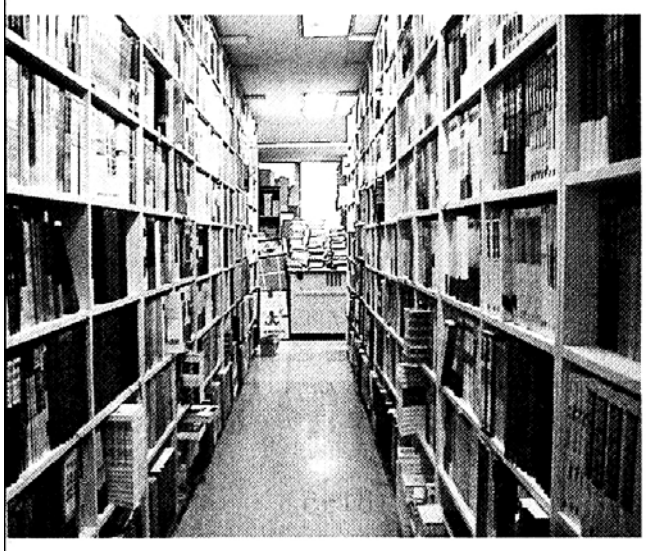
틱낫한은 이 책에서 '이 한장의 종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이 우주에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말한다. 한 장의 종이는 종이가 아닌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종이 속에는 구름, 숲, 벌목꾼 등 다른 많은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사실 이 우주 안에 독립된 개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 장의 종이 안에서 '내가 수많은 나 아닌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비로소 깨닫는 것, 그것이 틱낫한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로움에 이르는 길이다.

틱낫한 지음/류시화 옮김
신국판/213쪽/값9,000원
열림원

전화02-337-0700 팩스 02-337-0401

주년을 축하합니다!

운 주 사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지 특설 판매 코너를 마련하여 판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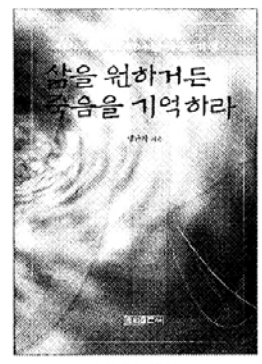


재미있는 사찰 이야기

사찰은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서도 과학적으로 응용하여 저마다의 조형물들이 중생구제를 위한 조성목적에 부합하도록 통일성을 띄고 있으며, 조성된 조형물이 오랜 세월 동안 유지 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배려하면서, 뛰어난 예술성을 마음껏 발휘해 놓은 곳이다. 이 책은 이러한 사찰에 담긴 의미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위주로 구성 하였다.

한정갑 지음
신국판 /263쪽/값7,000원
도서출판 여래

전화 02-730-8976 팩스 02-723-6801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

역사 속 인물의 죽음에 관한 기록들!

'역사 속으로 떠나는 죽음 기행' 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약 100여명에 이르는 역사 속 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뒷 이야기들이 사실감 있게 그려져 있다. 즉음의 순간까지 옥중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소크라테스, 마지막 순간을 '야 참 좋다'며 삶에 대한 한없는 만족감을 표했던 철학자 칸트하며, 열반에 드는 순간까지 몸으로써 홀구(頌句)를 보여준 옛 선사들의 이야기까지 참으로 눈을 떼기 어려운 '아름다운 죽음'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

맹난자 지음
신국판/296쪽/값9,000원
우리출판사

전화 02-313-5047 팩스 02-393-9696



이솝 아저씨도 감동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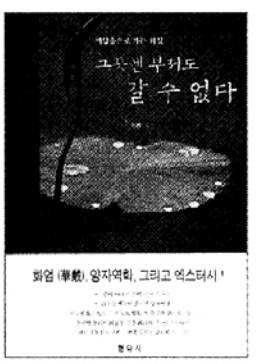
'석가모니 지혜동화'
'석가모니 슬기동화'

부모님과 함께 읽으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마음껏 깨달아 보세요.

이책은 최초의 동화집이라 일컫는 필만대장경 '불생경' 이라는 경전에서 웃음과 깨달음, 큰 감동을 주는 동화 73편을 골라 2권의 만화책으로 엮었다.
재미있는 만화로 구성하여 경전의 교훈을 아이들에게 쉽게 전해 주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다양한 비유와 설화를 통해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주는 한편, 유익하고 감동이 넘치게 구성되어 있어 서점가에서도 대한한 인기를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하순봉 엮음 · 이규성 그림
46배판/각권303쪽/값 각권8,500원
은하수미디어

전화 02-3402-1386 팩스 02-449-2706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그 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아무런 공력도 들이지 않고, 죽비로 내려치듯이
- 화엄 (華嚴), 양자역학, 그리고 엑스터시 -**

물리학 원리와 화엄경,
절창 禪詩와 선문답을 아울러
깨닫지 못한 누구라도
절대 경지를 엿보게 한다.

大愚 지음
국판 양장/388쪽/값15,000원
현암사

전화 02-365-5051 팩스 02-313-2729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두려움과 근심없는 생활을 위한 붓다의 마음 다스리기

이 책은 '왜 근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초판이 출판된 이래 독자들의 폭발적인 요청에 따라 인쇄를 거듭하게 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불교인들뿐만 아니라 힌두교, 회교, 기독교의 신자들과 심지어 자유사상가들의 감사 서신이 쇄도해 왔다. 이 책이 호소력을 갖는 것은 간명하고 가식 없는 내용으로 쓰여졌다는 사실과 불교적 견해에서뿐만 아니라 타종교 와 위대한 사상가들의 설득력 있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인생의 여러 면모를 밝혔다는 점이 그 주된 원인이었다.

-서문 중에서-

담마난다 지음, 홍종욱 옮김
신국판/239쪽/값8,900원
지혜의 나무

전화 02-730-2211 팩스 02-730-2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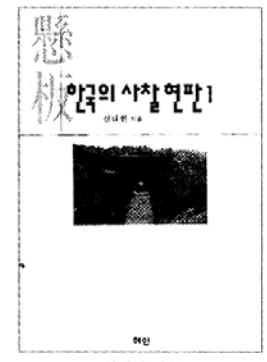


참선요가(상,하)

저자 정경 스님이 십 수년간 선원과 토굴에서 실천해온 참선과 요가 수행의 조화를 정리한 책으로, 우리의 잘못된 일상생활이 야기시킨 온전치 않은 인체의 순수한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수련법을 담고 있다.
한 동작 한 동작 자세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치유효과에 대해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경 지음
신국판/269쪽/값 각권 9,000원
하남출판사

전화 02-720-3211(代) 팩스 02-720-0312
홈페이지 : http//www.hnp.co.kr



한국의 사찰현판 1

역사의 어둠에 묻힌 사찰현판 본격 재조명!

국내 사찰 44곳의 현판을 통해 그 절의 역사와 당대의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 최초의 책.
당대 명필들이 쓴 편액의 후광에 가려 그늘진 곳에 버려져 있던 현판들. 그러나 그 안에는 다른 어느곳에서도 볼 수 없는 절의 역사와 일화들이 오롯이 담겨 있다.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사료의 공백을 메우고, 기존의 속설을 과감히 뒤집어 역사를 바로잡기도 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인 현판을 재조명한다.

신대현 지음
신국판/400쪽/값12,000원
도서출판 혜안

전화 02-3141-3711-2 팩스 02-3141-3710

山寺의 美를 찾아서 박도하 지음

사색의 향기가 짙게 피어나는 유명한 사찰 36곳의 아름다움을 담았다.

올컬러/256쪽/값 13,000원



한국의 마애불

이태호 · 이경화 지음, 유남해 외 사진

산 속 깊이 숨은 은자의 아름다운 미소, 108 마애불을 담았다.

양장/올컬러/496쪽/값 45,000원

다인세상 www.ddworld.co.kr



관 선 무

관선무는 호흡과 자세와 마음의 안정과 정신집중, 그리고 육체적인 동작을 통일시켜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전통수행법의 하나이다. 관(觀)과 선(禪)과 무(武)의 조화와 통일을 추구하며, 황폐해진 정신과 허물어진 육체를 바로잡는 효과를 가져온다. 동작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풍부한 사진으로 꾸며져 있다.

광원 엮음
신국판/272쪽/15,000원
운주사

전화 02-926-8361 팩스 02- 926-8362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우리에게 익숙한 진언들에 대해 그 의미와 공덕, 수행법 등을 밝힌 책!

누구나 행하여 성불할 수 있는 수행법인 진언행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옴람', '옴 치림', '옴 마니반메훔' 및 준제진언 '자례 주례 준제 사바하'등 에 대해 상세히 풀어놓고 있다.

석법성 · 송지화 편역
국판 양장/160쪽/8,000원
운주사

전화 02-926-8361 팩스 02- 926-8362



태고종 서울 3寺 순방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은 총무원 부장들과 함께 9월 25일 서울 봉원사, 백련사, 안정사 등 3사를 순방, 종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링 린포체 초청법회

세민 해인사 주지는 7일 1029일 영가천도 열세번째 49재에 티베트 링 린포체를 초청법사로 대적광전에서 법회를 봉행했다.



전몰영가 합동위령재

명섭 구례 화엄사 주지는 14~15일 화엄석경 정대불사 및 지리산에서 전쟁으로 희생된 영가들을 위한 합동위령재를 연다.



고산스님 초청법회 봉행

도업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은 9일 오후 4시 정각원 법당에서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봉사활동 공로…국민포장

혜자 도선사 주지는 2일, 매년 경로잔치 개최 등 20여년간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일주문



서호노인복지관 개관식

성관 수원포교당 주지는 21일 오후 2시, 수원시에서 수탁받은 서호노인복지회관 개관식을 갖는다.



백제불교회관 체육대회

장곡 백제불교회관 관장은 27일 대전 공무원 연수원에서 백제불교회관 신행단체들의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생태조사실장에 선출

법현 회룡사 스님은 9월 26일 포교원 2층 제2강의실에서 열린 불교환경연대 제2회 정기총회에서 생태조사실장에 선출됐다.



'우리는선우' 11돌 법회

박광서 우리는선우 이사장은 12일부터 13일까지 충북 미타사 및 진천 보탑사에서 창립 11주년 기념법회 및 행사를 연다.



제3기 경영관리자 과정

윤천수 불교아카데미 이사장은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북악파크호텔 2층 세미나실에서 제3기 경영관리자과정을 개최한다.



남북여성통일대회 참가

김묘주 한국불교여성연합회장은 16~17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여성통일대회'에 참가한다.



연예불자 초대회장 피선

장미화 불자가수는 9월 30일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연예불자 라이온스클럽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국제포교사 연수 마쳐

김안수 미국 LA 불교대학 부학장은 9월 17일 내한, 국제포교사 연수프로그램에 참석하고 4일 출국했다.



종로갤러리서 개인전

장영철 화백은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관훈동 종로갤러리에서 제3회 개인전을 갖는다. '무봉(無峰)' 등 50여점의 수묵화가 선보인다.

"실현성 있는 공약 이끌어 낼 것"

종훈스님 '대정부 정책팀' 운영 방안 밝혀



"대통령 후보들로부터 실현성 있는 공약을 이끌어 낼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불교계에 대한 공약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9월말 구성된 조계종 총무원의 '대정부 정책개발팀'에 대해 기획실장 종훈스님(사진)은 "대통령 후보들의 대 불교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사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돼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팀의 주요 역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팀이 처음 운영되는 만큼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정부 정책개발팀'은 총무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총무원 각 부서별 실무자들이 팀원으로 참여하며, 종훈스님이 총괄하게 된다.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공약의 지위 확보', 즉 책임있는 공약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훈스님은 후보가 직접 공약에 사인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까지 받아내겠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公約'이 '空約'이 돼버렸던 과거의 전철을 또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각 후보자 측에서도 불교계 공약을 준비하겠지만, 우리도 언론이나 학계의 자문을 구해 정부정책과 관련한 종단 주요 현안 및 요청 사항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후보자 측과 절충해 실현 가능한 공약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한일 불교교류 기여했으면…"

한일불교문화학술상 제정 이시가미 교수



일본에서도 불교문화 연구의 권위자로 통하는 한 노(老)교수의 국경을 넘어선 '한국사랑'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석좌교수로 있는 이시가미 젠노(石上善應·73·사진) 교수. 일본 대정대학 인문학부장을 거쳐 현재 상임이사, 숙덕단기대학 학장(학장은 한국의 총장에 해당)으로 있는 그가 동국대에서 받은 월급을 몽땅 털어 '한일불교문화학술상'을 제정했다.

9월 26~28일 동국대 불교병원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이시가미 교수는 "동국대에서 받은 월급을 일본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방법을 찾다가 젊은 학자들에게 학문적 자극을 주고, 한·일 불교 교류에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상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젊은 불교학 연구자 가운데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학자에게 주는 이 상은 대신 일본어로 발표한 논문이나 저술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한·일 문화교류의 학문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에 그 성과가 알려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시가미 교수는 대학원 특강 등으로 한국에 올 때마다 일본에 있는 자신의 불교학 관련 책을 나르고 있다. "한국이 분단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출간된 책들이다"며 "한국에서 더 유익하게 쓰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소장도서 전체를 기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인증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어느 장애인가족의 '힘겨운 살이'

헌옷·버린물건 주워 생계

"안락한 주택 건설, 저희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최첨단 주택 문화를 열어 드립니다." 남양주시 도농동 산동네 마을 밑. 주택 재개발 공사로 포크레인 소리가 여간 시끄럽지 않다.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길을 30여분 걸어 오르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연화네 식구가 사는 달동네이다. 연화네 가족은 2년째 여기서 지하단칸 셋방을 얻어 산다. 가족은 할머니 김금산(78), 아버지 김순철(48), 어머니 진정분(47) 그리고 연화(15).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연화와 연화 엄마는 꽃가꾸기를 좋아한다. 모녀가 나란히 화분 옆에 앉아있다.

아버지 청각·어머니 목발 의지 장애인

재개발에 밀려 단칸둥지도 잃을 처지

연화의 아버지는 어릴 때 귓병을 앓아 소리를 들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다. 엄마도 어릴 때 앓은 결핵성 관절염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고 무릎 연골이 없는 신체 장애자다. 목발이 없으면 한 발짝 떼기도 어렵다. 할머니는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평생 화전민 생활을 했다. 살기가 어려워, 한 때 재가를 하기도 했다. 그것도 잠시. 새 남편마저 얼마 안 돼 사망하자, 평생 과부로 늙었다.

연화 아버지의 학력은 중학교 중퇴. 4살 때 중이염을 앓았다. 남편도 없는데다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인 연화 할머니는 아들의 병을 고칠 능력이 없었다. 병이 있는 줄도 몰랐다. 10년 넘게 앓아온 중이염은 만성 중이염으로 악화되고, 중학교 때는 피고름이 귓구멍에서 줄줄 흘러 나왔다. 끝내 모든 청력을 잃어버렸다.

이 때문에 연화 아빠는 직장을 구해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나마 구한 일거리도 한 두 달만에 쫓겨나기 일쑤다. 그래서 연화 아빠는 남의 집에서 쓸모 없어 버린 물건을 주어다 파는 고물상이 됐다. 20년 째 이 일을 하고 있다.

연화는 경춘선 철길 밑 쓰러져 가는 단칸 한옥에서 태어났다. 연화 엄마가 결혼할 때 가져 온 200만원으로 다련한 전셋집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차가 지나가고 그 때마다 깜짝 놀란 연화가 자지러지게 울곤 했다. 밤이면 쥐들 때문에 연화네 세 식구는 편히 잠을 잔 적이 드물다.

목발을 짚고 다니지만 연화 엄마는 참 부지런하고 알뜰한 사람이다. 남이 버린 전자제품, 옷가지는 그냥 놔두지 않는다. 모아서 닦고 고쳐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한다. 장마철이면 곰팡이 슬기 쉬운 지하 단칸방에 살건만 계단마다 꽃을 심어 놓는다. 남편이 만원, 이만원 벌어오면 조금씩이라도 저축한다. 그래서 결혼 16년만인 2000년, 이곳 달동네로 이사왔다. 네 식구가 지내기에는 너무 비좁은 집이지만 할머니와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 처음으로 온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리고 2년. 연화 가족은 새로 마련한 둥지마저 빼앗길 위기에 있다. 달동네가 재개발되기 때문이다. 연화네는 20여 년 살아온 남양주시를 떠나 시골로 가야 한다. 지금 돈으로는 전셋집조차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화는 모처럼 사귄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 동화책 읽기를 좋아하는 연화. 연화의 가족은 올 겨울 어디서 나야 할까?

후원계좌: 예금주 김순철 농협 204020-52-169452

전화: (031)569-4896 강유신 기자

바다에서 솟아오른 관세음보살님 점안 연등제

- 동해바다 신비한 사찰 휴휴암 -

억겁의 침묵을 깨고 만중생을 제도하시려고 해중지혜관음보살님께서 바다로부터 솟아올라 나투셔서 많은 불자님들이 참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만해도 감격스럽고 가슴이 뭉클한 모습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묘적전 법당에서 묘한일들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본시 관세음보살님은 바닷가 절벽에 항상 계신다고 하였는데 휴휴암 바닷가에 그 몸을 나투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몸을 나투신 것은 기도정진으로 불국정토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이에 휴휴암 사부대중은 지극한 정성으로 해중지혜관음성상에 점안식을 봉행하게 되었으며 이 날을 맞이하여 관음연등제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불자님께서는 이웃에게 서로 권고하고 권장하여 관음연등제가 원만성취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해중지혜관세음보살님 점안 연등제에 동참하신 여러 불자님들 가정에 이차인연 공덕으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일 혼잡을 피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동참하실분은 미리 접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철야 정진기도 ■ 10월 29일 화요일(음 9월 23일) 저녁 7시부터 24일 일출시까지 기도후 해맞이를 합니다.

※ 점안 연등제 ■ 일 시 : (음)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관음재일

■ 장 소 : 휴휴암 바닷가 연화법당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033)671-0093, 0525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성지 휴휴암 주지 홍법 합장



조동종, 제8차 중앙연수교육

조동종(총무원장 덕담)은 1~3일 서울 용천사 보리원에서 제8차 중앙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종정 덕찬, 일광 총무부원장, 법공 포교원장, 덕우 교육원장, 덕림 호법원장, 대휴 중앙선원장 등 종도 80여명이 참가한 연수교육은 종단 사 강의, 종무행정 및 운영방안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총화종, 현해탄 수륙대재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현해탄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종정 동광 스님을 비롯 종도 450여명이 참가해 전통 의식에 따라 수·육·공 영가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으며, 후쿠오카 남장원 등 일본 불교성지를 순례했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 작품전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회장 신응수)는 2일 덕수궁 중유물전시관에서 '제6회 한국문화재 기능인 작품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최우수상에는 '보협인석탑'을 조각한 이재순씨가, 우수상에는 '모란당초사군자문머릿장'의 정명채, '석가여래좌상'을 조각한 이용주씨 등이 차지했다.



법사회 14돌 기념 금강보탑 봉안

대한불교법사회(이사장 목정배)는 창립 14주년을 맞아 3일 서울 신당동 약수법사에서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금강사리보탑 봉안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88년 용산 대원정사에서 출발한 법사회는 현재 전국적 7개 지부에 600여명의 재가법사를 배출했다.

방송·신문사 불자들 힘 하나로 모은다

언론사 불자연합회 17일발족

KBS·MBC·SBS 등 방송사 불자회 주축
연합법회 등 연대 강화 … 회장에 정종철씨



◇언론사 불자들이 17일 '언론사불자회 연합회(가칭)'를 창립한다. 사진은 4월 27~28일 월정사에서 열린 불자 방송·언론인 연수에서 발우공양을 하는 모습.

국내 공중파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사에 종사하는 불자들이 연합회를 결성한다. '언론사불자회연합회(가칭)'는 17일 오후6시30분 여의도 홍우빌딩 10층에 위치한 여의도포교원에서 총회를 겸한 창립법회를 갖는다.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언론사 불자들이 힘을 결집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합회 결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창립 언론사의 불자회 창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 불교연구회와 서울방송(SBS) 법우회 대표자들은 지난 7월 전국직장직능단체 지도자수련회에서 '방송사불자연합회' 결성 의사를 타진한 이후 두차례의 만남과 각 회원들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언론사불자회 연합회 구성을 확정했다. 당초 방송사에 근무하는 불자들로 연합회를 결성할 예정이었으나, 경향신문사 불자회 등도 포함시키는 등 신문사 불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2년 임기의 초대회장에 KBS 불교연구회 정종철 회장을 내정했다. 또 MBC 불교연구회 황진욱 회장과 SBS 법우회 허원제 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창립총회에서 2명 내외의 고문을 추대하기로 했다. 연합회 운영은 KBS 불교연구회가 맡게 되며, 예산 확보 방안과 고문단 선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창립에 앞서 한차례 더 모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다.

언론사불자회연합회는 앞으로 미창립 언론사의 불자회 창립 지원 활동, 연합법회 등 연대활동, 공동교리연구, 친목도모 등 활동을 펼친다. 신문사 중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향신문사 불자회와 연내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일보사의 가입도 추진한다. 미창립 언론사에 근무하는 불자들은 개인별 회원가입을 통해 불자회 결성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BS 불교연구회 정종철 회장은 "서로 가까운 지역인 여의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었던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사 불자들이 연대에 공감하고 연합회를 결성한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연합회 결성을 계기로 언론인 불자들이 개인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고와 경험의 폭을 넓혀 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9월 27~28일 양산 통도사에서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공불련 창립 2돌 … 내실·결속 다져

노옥섭 회장 재선출 재정 안정화·여성회원 확대 추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는 창립 2주년을 맞아 9월 28~29일 양산 통도사에서 정기총회 및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전국 공무원불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법회에는 1백여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불자회에서 8백여명이 동참했다.

공불련은 소속 지회에 분담금을 책정, 재정 운용을 안정화 시켜나가는 한편 여성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회장단과 사무국 임원에 여성회원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공불련은 정기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노옥섭(53·감사원 감사위원) 현 회장을 재선출했다.

노옥섭 회장은 "47개 기관으로 출발했던 공불련이 180여 단체, 7천여 회원을 거느리는 연합단체로 성장해, 이제는 내실과 결속을 강화할 시점"이라며 "지역불자회간 연합활동을 장려하고, 회원들의 기본교육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산= 박봉영 기자

운불련 안양서 체육대회
22개지역서 1천명 참가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김주본)는 29일 안양 자유공원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축구, 줄다리기 등 7개 종목으로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는 대구, 부산, 대전 등 22개 지역회에서 1천여 회원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김주본 회장은 "회원들간 정을 돈독히 하고 운불련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우리 모임에선

중석초경 석불회 운문사 순례

대한중석초경 석불회(회장 임갑수)는 13일 청도 운문사에서 순례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운문사 승가대학 강사 일진스님으로부터 '연기법과 불교사상'에 대해 법문을 듣는다.

약사보리회 티베트에 의약품 지원

불자약사보리회(회장 백경숙)는 티베트 망명정부에 상비의약품을 지원했다. 10월 2일 항공편으로 발송된 의약품은 위장약·진통제·영양제 등 1백여만 상당이다. 이번 의약품 지원은 불자약사보리회와 인연이 있는 혜국스님(前 주 남국선원장)이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를 방문했을 때 티베트측이 요청해 옴에 따라 이뤄졌다.

경인교사불자회 5주년 법회

서울경인교사불자회(회장 이호영)는 9월 28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법당에서 창립 5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교사와 청소년 포교에 매진하기로 했다. 지역교사불자회와의 정보·신행자료 등 원활한 포교를 위한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장애학생을 위한 봉사활동, 군부대 위문, 일반교사 대상 불교 일반연수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단체장 동정



12~13일 월악산 산행

이욱태 부산청년불자산악회장은 12~13일 제천 월악산을 찾아 산행에 나선다. 12일 오후11시 부산불교회관 앞에서 출발한다.



100만㎞ 무사고 주행

김태웅 철도청 대전기관차승무사무소 법우회장은 2일 100만㎞ 무사고 주행 기록을 달성했다.



가을의료봉사 준비점검

김주효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은 9일 국립서울정신병원 간호과장실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가을의료봉사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불교의식강좌 열어

정진호 우리은행 불자회장은 10일 본사 소강당에서 법현스님(서울 천중사 부주지)을 초청해 '불교의식 강좌'를 연다.

우리불자회는요

전남도청 공무원불자회

불교에 관심이 있고 뜻을 같이하는 직장 동료들이 모여 불자회를 만든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돌이 되었네요. 1주년 기념법회가 열렸던 2일, 지난해 창립 준비부터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저로서는 형언하기 힘든 감동이 느껴졌어요.

공무원불자회 만큼은 '열악한 호남불교'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겠다는 굳은 서원으로 시작된 활동이었지만, 현실은 회원 확보부터 어렵기만 했었지요. 불교를 좋아하는 분들은 조용하고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성품 때문에 가입을 주저하더군요. 그렇다고 불자회 가입을 강요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홍보한 결과 창립 당시 60여명이었던 회원이 지금은 110여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지역 공무원불자회도 22개 시·군 중 7개 시·군에 결성돼 400여 명의 동료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1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풍경소리'라는 회보를 만들어 시·군 공무원 불자에게 나누어 주고, 전남도 홈페이지에 있는 불자회 코너를 매주 업데이트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들이 노력한 결과라 기쁨은 더욱 큽니다.

회원들은 매월 두차례의 법회와 성지순례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있어요. 정기적인 활동이라서 브통 소홀하기 쉽지만,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적절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8월에는 해외불교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중국에 있는 영은사, 옥불사 등 주요사찰을 순례했었지요.

성도절,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사, 기원법회 등 크고 작은 불교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지요.

우리 불자회는 다른 지역 불자회와



◇2일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립 1주년 기념법회.

열악한 호남불교 중흥전기 마련 서원
영호남 연합법회 … 지역감정 해소 앞장

의 교류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영 호남의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대구시청 및 7개구청 공무원 불자회와 백양사에서 연합법회를 열기도 했었지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왕래를 통해 영 호남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각오입니다.

불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 개개인의 활동이 좀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전 공부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활동, 봉사활동과 같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표현 같지만, 열악한 호남불교가 중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불자회가 앞장 서 나갈께요. 지켜봐 주세요.

김채홍 총무(지식기반산업과)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불자들을 위한 바른 수행의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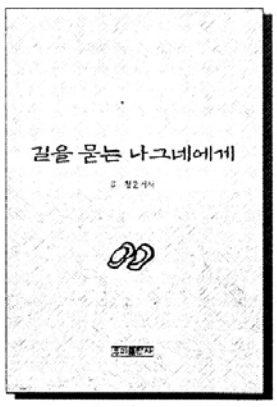
길을 묻는 나그네에게

이 책의 특징

진심(眞心)에 대해서는 그 참뜻을 추상적(抽象的)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신행(信行)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밖에서 찾고 있는 기복적 신앙(信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대상이 다양한 우리 불교의 현실, 즉 토속신앙에서 유래된 지신 등 여러 신들과 불보살들의 명호 및 부처님들의 다른 이름 등에서 근본적으로는 진여인 자성불 일불(一佛)로 귀결되며 이 일불만을 믿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모든 공덕의 으뜸은 자기 성품을 깨치기 위한 자성공양이며, 자기 자성불을 믿고 이를 보기 위한 수행만이 바른 신행이며, 이것 외에는 모두 외도(外道)라 하여 보시의 공덕과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였다.



글·청운거사 / 신국판 / 288쪽
값 10,000원

무엇이 정법(正法)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수행(修行)인가!

부처님의 설법(說法)과 역대 조사(祖師),
근대 선지식(善知識)께서 설하신 법문(法文)
중에서 언제나 가슴에 와 닿는 주옥같은
말씀을 모아 우리 불자들이 다만 한 게송(偈頌)
한 구절이라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엮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E-mail : woribook@chollian.net 우리출판사

목어

마음찾는 여행권



얼마 전 '내셔날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는 이집트 피라밋의 발굴조사를 2시간 여에 걸쳐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를 실시하였다. 지구촌의 눈길을 모았던 이 야심찬 생중계는 파라밋안을 조사하는 로봇이 예상치 않게 나타난 내부벽에 부딪쳐 더 나아가지 못했다. 고대 문화의 신비를 풀지 못하고 싱겁게 끝나버린 것이다.

이집트의 〈사자의 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죽은 자는 오시리스의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한 다음, 심장의 무게 달기 의식을 치러야 한다. 저울 한 쪽에 올려놓은 심장은 깃털(진리와 정의의 여신인 마아트의 상징)처럼 가벼워야 한다. 만약 심장이 무겁거나 죽은 사람의 악행이 선행보다 많으면 옆에서 입을 벌리고 있던 사람잡아 먹는 여신 아미트가 죽은 자를 씹어 영원한 제2의 죽음으로 밀어 넣는다.

우리나라 불화 가운데 지옥도를 보면 업경대와 업저울이 등장한다. 업경대에는 자신이 생전에 지은 행위가 낱낱이 비춰지고 업 저울은 선업과 악업을 엄격하게 저울질한다. 이와 같이 문화는 지역을 넘어 공통성을 보여주어 흥미롭다.

물리적인 우주 공간에서 지옥과 극락이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은 진부하다. 그러나 당위론적으로 지옥과 극락은 존재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사성(四聖)은 윤회를 벗어나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지만 육범(六凡)의 존재는 윤회의 고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상의 무덤을 좋은 곳에 마련하여 그 음덕으로 대권을 장악하려는 사람이 21세기 우리 땅에는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중세시대 면죄부를 사고 판 일도 있지만, 영원한 여행에서 극락을 찾아가는 가장 보배로운 여행권은 권력이나 금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승에서 땀 흘리며 가꾸어 자신의 삶으로 얻어야 하는 티켓이다.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 모르는' 우리들, 언젠가는 영원으로의 여행을 떠나야 한다. 이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 가을, 가을걷이를 하면서 영원으로의 여행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리라.

이기선(조계종 성보문화재 위원)

불자 세상보기



양형진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

진정한 보배는 자기안에 있는데…

미국 국방부는 올해 미국대학의 나노기술 연구소를 지원하면서 '전투병력 나노기술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 연구소에서는 나노기술을 전투장비 개발에 응용하는 연구를 하게 된다. 나노기술로 개발된 재료는 머리카락의 백 분의 일 정도 두께를 가지는데, 이를 다른 재료와 혼합해 쓰면 기존의 전투복보다 가벼울 뿐 아니라, 온도가 자동적으로 적절하게 유지된다든가 위험한 화학물질 침투를 자동으로 막아주는 전투복을 만들 수 있다.

나노(nano)는 그리스어로 '난장이'를 의미하는 '나노스(nanos)'의 줄임말이다. 현재는 도량형의 접두어로 사용한다. 백 분의 일이나 천 분의 일을 의미하는 센티나 밀리보다 더 작은 단위가 필요할 때 쓰는 접두어가 마이크로(micro)나 나노인데, 마이크로는 백만 분의 일, 나노는 10억 분의 일을 가리킨다. 그래서 1 nm(나노미터)는 10억 분의 일 미터이다. 나노과학은 1 내지 수십 nm 크기의 물질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는 원자 서너 개를 합한 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크기가 되면 전혀 새로운 물리적 특성이 나타나게 되며, 이를 적절히 이용하면 대단히 유용한 소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한 예로 탄소 나노 화합물을 이용한 트랜지스터는 전극간의 거리가 약 1 nm이고, 한 개의 전자로서 구동되는 것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트랜지스터로 이미 개발되었다. 이를 사용하면 정해진 공간에 많은 회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나노 소자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집적 회로는 컴퓨터의 연산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나노기술은 소재 개발 뿐 아니라 원자나 분자의 위치를 대단히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술은 하나의 원자에 1 비트의 정보를 저장하게 하여 정보 저장 기술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소재 및 제어 기술의 발전은 의학 분야에서는 진단 센서 및 극미세 수술용 기구 개발에 대단히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노기술은 아직까지는 여러 면에서 초보적인 단계지만, 앞으로는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물질을 다루는 현재의 기술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환경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주 작은 세계에서 나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을 밖에서 찾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인류사에서도 제국주의 시대에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지배하는 일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자연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렇게 밖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천으로 깔려있는 모래 속에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안 건 얼마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우리의 감각 기관은 주로 외부 상황을 알아차리게 되어있다. 몸이 안 좋거나 배가 고픈 때가 아니면 몸 안 상황에 대해 감각 기관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일에 분주하기는 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지는 않는다. 내시경으로 뱃속을 진찰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가치에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진정한 보배는 아주 작은 곳에,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천하의 가을이 이미 내 뜨락에 다와 있는데 다시 그 가을을 찾아 나서지는 말아야 할 텐데.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휘장패용 이렇게 본다

9월27일 조계종 법계위원회가 여섯가지 색상의 휘장을 가사에 부착해 법계를 구분하자는 내용을 확정하면서 이에 대한 찬 · 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본지 389호 2 · 4면 기사 참조>. 이에 따라 법계위원회는 이날 확정한 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휘장패용에 대한 찬 · 반 이유를 철우스님과 효림스님을 통해 듣는다.

찬성 철우스님(파계사 영산율원장)



결사의 현장이나 종단의 출범, 승풍을 진작하는 개혁의 현장에는 언제나 승려의 의제 개선이 중요한 사안으로 제기됐으며, 특히 법계에 따른 의제시행은 옛날부터 내려온 한국불교의 전통이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승가교육과 법계제도, 의제가 불분명해 위계질서가 무너졌고 심각한 폐해가 야기됐다. 다행히 1995년 교육원이 별원으로 독립하면서 교육체계가 잡히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법계제도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종단은 승가고시를 통과한 스님들에게 합당한 법계와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구분하기 위한 표식으로 휘장을 수여하도록 했다.

선사, 강사, 종회의원, 볼교학자 등 200여명이 모였던 1972년 종단 중진회의에 결의된 주요 사항 중 하나도 의제 개혁이었으며, '모든 승려는 그의 법계에 따라 희장을 패용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2000년 700여 스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0%가 법계에 따른 의제 시행에 찬성했다.

휘장 패용은 법계 구분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스님들로 하여금 교육과 수행에 더욱 매진하도록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무조건 무차별화'는 곤란하며, 이는 무질서와 혼란을 낳는다. 오히려 차별 속에 조화를 추구해야 하며, 거기에는 위의와 질서가 요구된다. 조계종만의 법계 휘장은 이런 위의와 질서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가사의 휘장을 통해 여타 종단과의 구별은 물론 무적승과도 구별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찬성 철우스님(파계사 영산율원장)

의제 확립 · 타종단 · 무적승 구별효과

반대 효림스님(실천승가회 부의장)



승가의 질서를 확립하고 위의를 바로잡겠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휘장 패용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 없다. 우선 법계조차 정착되지 않은 마당에 휘장 패용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 조계종은 지난해야 비로소 법계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3급 승가고시를 거친 스님들에게 중덕(비구) · 정덕(비구니) 법계를 수여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사실상 법계제도가 없었다. 이렇게 아직 법계제도가 시행된 지 1년에 불과한 시점에서 휘장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법계제도가 정착되고 나서 필요성이 느껴질 때 공의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계제도 정착뒤 다른방식 휘장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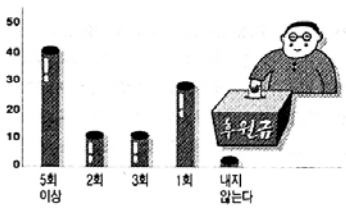
법계제도가 정착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휘장 패용은 문제가 있다. 진정한 승가의 위의는 위에서 모범을 보이고 아래에서 이를 본받을 때 비로소 세워지는 것이다. 이런 본질을 외면한 채 제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위험하다.

또 하나는 휘장 패용이 시대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점이다. 현대사회는 서열파괴시대다. 그런 마당에 승가가 오히려 거꾸로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휘장을 패용할 스님들이 있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적어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지금과 같은 계급장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의 휘장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불자의 생각

후원금



대부분의 불자들은 복지단체나 불교계 목적사업 등에 대해 후원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7명이 동참한 붓다뉴스네티즌설문조사결과, 연간 몇 회정도 후원금을 내느냐는 질문에 24명(42.1%)이 5회이상, 17명(29.9%)이 1회, 7명(12.3%)이 각각 2회, 3회이상 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내지않는다는 응답은 2명(3.5%)에 불과했다. 후원금을 내는 액수는 1만원이상이 20명(35.1%)로 가장 많았고, 10만원이상과 5만원이상도 각각 15명(26.3%)에 달했다. 또한 3만원이상이 5명(8.8%), 2만원이상이 2명이었다.

후원금 1년에 5회이상 42.1%

이렇게 들었다

고령화 사회 진입 … 대책 서둘때

노인은 미래의 나

우리나라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10.2%가 '매우 심각하다' 47.8%가 '심각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는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은 노인의 날이다. 200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7.2%에 달해 고령화 사회(전체 인구의 7% 이상)에 진입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노인복지대책은 고령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치매요양원 1곳당 수용해야할 인원이 5천600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그 증거다.

'되지 않을 것만 같고, 되지 않기를 바라는' 노인이 바로 내일의 내 모습이라고 인식한다면, 노인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만일 중생이 인간으로 태어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사문 바라문을 존경할 줄 모르며, 진실하고 미덥게 행하지 않고 복업을 짓지 않으며, 후세의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는 이것으로 인연하여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지옥에 나게 된다. 〈중아함천사경〉

▨물질적인 공양을 하고도 삼보를 믿게 하지 못하면 아직도 불효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은중경〉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증일아함경〉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의식을 제공함은 하품의 효양(孝養)이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함은 중품의 효양이며, 부모님의 공덕을 여러 부처님께 회향함을 상품의 효양이라 한다. 〈아함경〉

국태민안 국민대화합을 위한

一心寺 山神 石窟 法堂 佛事案內

귀의삼보하옵고
소납이 지난 7월25일, 남북이 하나로 이 땅 불국정토기원 일심사 아미타 좌불 봉안후, 월드컵 경기때 국민화합 하는가 했더니 요즘 와서는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시끄러워 한반도 백두 대간의 정기를 다루시는 33山神을 봉안코저 산신 굴법당 佛事중이오니 참불자 인연 맺고저 합니다.

● 일 시 : 2002년 11월18일 오전 10시
연예인 초청공연 오후1시부터 4시까지
● 장 소 : 일 심 사(충남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 1구)
● 문 의 : 016-407-2549, 041-356-2549

일 심 사 주지 설 호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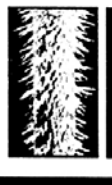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근교
- 부지 : 1400평
- 법당 : 25평(목조)
- 요사 : 150평(현대식)
- 양도 : 30억
- 위치 : 안양시내
- 대지 : 25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 : 7억 5천(융자가능)
- ※ 뒤는 산이며 안양시내가 내려다 보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천시 원미구청 옆 5분거리 4층 건물 중 2층 35평
- 법당, 주방, 주지실, 상담실, 화장실별도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 보증금 :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32)652-9384
011)729-6011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밀집지역
- 건평 : 30평, 3층 중 지층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1)427-8211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근교
- 산세수려한 계곡물
- 법당 30평, 산신각 7평
- 요사 20평, 150년 이상된 사찰된
- 현재 불사된 금액 1억 5천이상
- 가액 : 7천만원, 전세가능 병원비 관계로 '급'

041)567-0391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 양북
- 부지 : 75평
- 요사채 : 2동 30평
- 가액 : 4천 5백
- ※걸망 풀어놓는 곳
- ※마을 있고 언덕배기 바다 보임
- 위치 : 밀양 상동
- 부지 : 약 400평
- 인법당 : 20평 (법당자리 비워 둠)
- 가액 : 1억 5천
- ※ 마을과 인접하고 교통편리
- ※ 산중턱에 있고 전망이 기가 막힘

부산 영남지방 풍수전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전통한옥사찰 최고요지
- 대지 : 78평, 건평 60평, 중 대웅전 23평 석자 삼신불 후불옥금탱화 100평, 칠성목금탱화 60평, 신중목금탱화 60평
- 홍송 삼단 법단 특급시설일체
- 큰방 2개 별채 방 2개
- 즉시법회 창건을 원하시는 스님 비구니 스님 보살님께서는 연락바람 답사 후 결정

011)650-8481
063)285-6464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수도권(신도시 중심지)
- 특징 : 인구 85만, 아파트숲, 역세권빌딩 7층
- 투자금 전세 1억 8천만원, 시설비 1억5천만원
- 가액 : 3억(절충가능함)

031)978-0530
011)9183-8993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 대지 : 30평, 건평 : 12평
- 2층 양옥집
- 짐풀 곳을 원하거나 새로 시작하실 스님
- 교통편리
- 가액 : 4000만원

051)642-1627
016)376-3338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수 **스님 입니다**
상주할 인연 사찰을 찾습니다.
011)9859-7425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법 당 : 100평
- 요 사 : 110평
- 부 지 : 3,000평
- 위치 : 진주지역
- 법 당 : 15평
- 요 사 : 40평
- 부 지 : 467평
- 가 액 : 2억 5천
- 위치 : 경기 가평
- 법 당 : 15평
- 요 사 : 40평
- 부 지 : 2,000평
- 가 액 : 13억
- 가 액 : 13억 ※ 최고의 산세와 경관을 지녔으며 차후계획으로 종합병원 고속도로 및 터미널 10분이내 구리시 30분내 거리에 위치함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락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방학동 761 강북 중심상가(신동아A.P.T) 단지 옆 아파트 밀집지역
- 건평 : 4층건물에 3층 35평
- 가액 보증금 1000만 월 80만원
- 시설 삼존불, 신중, 지장, 탱화모심 특 A급, 스님해외발령

02)955-6411
011)289-0476

사찰안내
- 위치 : 동작구 상도2동 201-60호 백운사
- 대지 : 66평
- 건평 56평(1, 2층, 지하)
- 삼존불
- 가액 : 5억 2천(절충가능)

02)815-0302
011)722-0302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만덕동 지하철역 인접 교통편리
- 평수 대지 53평 3층건물
- 건평 150평, 공터 27평
- 구조 : 방 3개, 거실 주방겸, 인법당 후불탱화, 신잔탱화, 산신탱화 A급
- 가액 : 13000만원

051)331-9937
017)844-9937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고찰
- 구교지임대 : 약 7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락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운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한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소재
- 부지 : 80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30평(신축)
- 가액 : 4억 4천만원
- 특징 : 천년고찰터에 신축으로 조성된 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좋습니다.
-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안면 소재
- 부지 : 약 5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60평
- 가액 : 3억원
- 특징 : 신라시대동불(보물급)이 있는 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좋습니다.

▷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일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사찰 안내
- 위 치 : 경북 경주시 동국大에서 10분거리
- 대 지 : 170평
- 대웅전 : 15평
- 삼성각 : 5평
- 요사채 : 30평
- 가 액 : 7000만원

011)9625-7130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6층 건물 2층
- 건평 : 110평(법당 : 70평)
- 빙 3개, 주방, 식당, 세면실 완비
- 가액 : 9000만원, 월 180만원 시설비 : 5000만원

02)3494-6441

사찰(급)안내
- 위치 : 심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휘히 보이고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 부지 약 3000평(준농림지) 중
- 법당 27평, 요사채 약 50평(스라브)
- 주지실 12평, 삼성각 16평(목조)
- 가액 3억 7천만원

※ 복지시설로 하기 좋은 산세좋은 도량 임 대형차량 진입 됨(주차장 약 200평)

016)207-5600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주 시내 전통 한옥 구가 사찰이나 포교당을 원하시는 스님 비구니 스님 보살님께서는 답사하세요
- 대지 : 79평 ● 건평 : 55평 중
- 법당 22평 큰방 2개 법당 연결 별채 방2개 전체 수리 입주 가능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융자됨)

063)287-8481

사주명리학배우실 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기타
수료후 간명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제공함
주 3회(1회 2시간씩) 3개월 완성
개강 10월 4일(금요일)부터
한 국 명 리 교 육 원
☎ 02)336-8484

건물 및 부지 안내
- 위치 : 도봉산 19번 종점에서 도보로 25분거리, 차량 운행시 5분거리
- 대지 : 임야포함 1502평(개인사유지)
- 건물 : 건축물대장 2필지(1필지 28평, 1필지 17평)
  - 현재 식당 25년 운영중임(영업하가증, 사업자등록증 보유)
  - 사찰로 운영할 경우는 재건축 요망
  - 식당으로 운영하실 경우 인수 후 즉시 영업가능
- 가액 : 상담 후 가격 후 절충

연락처 02)955-4785 / 011)399-4785

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진산면 (대전에 20분거리)
- 대지 : 전, 밭, 임야 합 8746평 도로 전기 공사 완료
- 육각정(목조) 한동 주거용 컨테이너 1동
- 약수터(옹달샘) 및 연못
- 가액 : 평당 3만오천원

011)826-688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화성
- 대지 : 220평
- 요사채 : 30평 이상
- 법당 : 23평
- 산신각 : 5평
- 공양간 25평, 주차장완비
- 가액 : 2억 8천(절충가능)

011)226-2880

포교원 안내
- 인천 부평구청 전철역 5분거리 4층 건물 중 (3층) 34평
- 법당, 주방, 주지실, 화장실 별도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탱화 영단, 앰프시설 불기 일체
- 전세 2000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 1200만원/답사후 절충가능

032)521-1717
018)384-3146

사찰 안내
- 위치 : 계룡신도시 아파트 3만세대 밀집지역
- 대지 : 150평
- 건평 : 99평(법당, 요사, 식당) 3층건물
- 특징 : 현재법당 불사 중,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 1천만원

011)436-7529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 (2, 6호선 신당역)

사 찰 안 내
- 위치 : 충주댐 강변 진입 도로변
- 사찰시설물 : 칠성삼신각 (3칸 콘테이너 박스)
- 노상 석불상 15척입상(좌대 3척), 좌(석)불상 3척(좌대 4척)
- 석굴암 50M 굴 중 10M 위치에 5척 좌불상 있음
- 법당 3층 콘테이너 15평 박스 건물, 5층석탑(좌대3.5척)
- 종교사찰부지 703평 : 1억 5천만원 외 부지 1300평 별도포함 : 2억원정(가격불변-30% 세일가)

연락처 043)848-1766/043)853-2896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내동 3층 건물 중 3층 '신축' (법당자리)
- 건평 : 60평
- 보증금 : 4000만원 월세 : 40만원 전세가능 가액 : 7000만원 현장 방문 후 가액 조절

017)845-7090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상남동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7)856-720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 법당 : 40평, 3존불(3.5자) 후불 탱화,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화, 다다미 마루, 방2칸, 부엌 1칸
- 가액 : 5천만원(상담절충가능)

011)735-9178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덕산 옆
- 평수 : 법당 관음전 7평 임법당 30평(목조 새건축)단청완료
- 대지 : 640평
- 70년 전통의 물좋고 산세수려, 포장도로 완료, 최신식 시설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1)401-5206
041)337-120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소재(국도변) ● 부지 대지 350평
- 건평 : 법당 25평(기와, 단청필), 보일러실
- 주지실 및 요사채 : 30평(스라브)(방3개, 거실, 주방, 욕실, 보일러실)
- 요사채 : 25평(스라브)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2개
- 신신각 및 용왕당(천연자연수)
- 사찰내 차량진입 가능하며, 사찰 뒷편 자연림 고목으로 산세수려함
- 요사채 위 2층으로 필요시 건물 증축가능
  ※부산 경남권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최적지 임
- 매가 : 2억5천만원(감정가) 1억 8천만원에(급) 양도하고자 함

011)9017-5445

사찰 안내
- 위치 : 팔공산 갓바위 입구
- 대지 : 100평, 법당 15평, 요사채 15평
- 교통 최적지 암자이지만 법당이 훤출함, 전망좋음
- 가액 : 1억 1천만원

053)853-4418
011)9390-4418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 대지 : 200평 평수 1층 30평
- 2층법당 19평 요사채 창고 등 별도있음
- 주차장 170평
- 가액 : 1억 1천만원

011)534-5014

사찰부지안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756-48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김해 최고 요지
- 법당 삼존불 지장 산신 용왕 지장소불 108불 영가단 후불 흙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 평수 3층 50평 방 3개
- 주방 샤워실 주차장 완비
- 가액 : 전세 3000만원에 월 45만원 시설비 : 2000만원 절충가능

017)556-569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 대지 : 88평 (실사용 200평 이상)
- 건물 : 임법당 10평, 요사 15평
- 특징 : 교통 주차 편리
- 가액 : 8천만원

055)852-4130
011)879-4791

사찰양도안내
- 부지(종교용지) : 2013坪 ● 法堂 : 13평
- 요사채 : 20坪 ● 매가 : 8억 5천만원 ● 위치 : 서해안
- 특징 : 1. 1400년된 전통사찰(사지)
  2. 마이여래불(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성연대 고려말로 추정)
  3. 암반약수(수량풍부) 4. 자동차 진입 가능
  5. 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람한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한 대찰터임
  6. 지방 문화재 보전 사업비 지원 사찰임

사찰정보센터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권 대창불교건축 권 대 창 목 재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 781-4989
H P 016)768-4324
011) 246-2210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중봉 합장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읍 위치 서산사
- 법당 : 30평
- 요사채 : 25평(2동)
- 대지, 임야 : 5000평
- 가액 : 1억9천(가액조정가능)
- 만약 증축시 70평 가능함

011)9457-6954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부근
- 건물 : 최신건물로 대지 100평 건물 30평 텃밭 500평 임법당 법당 방 2개 욕실 2 주방 1 난방심야전기
- 가액 : 1억 2천(절충가능)

011)429-6059
032)876-2248

포교당안내
- 위치 : 방학역에서 5분거리
- 평수 : 40평 방 2개
- 법당 : 25평 삼존불 모시고 있음
-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1)214-3499

사찰 안내
- 위치 : 김해 대동
- 대지 : 180평
- 법당 : 13평
- 요사채 : 40평
- 가액 : 2억 5천

055)335-7797

사찰(급)안내
- 위치 : 하도읍(마석) 5분거리
- 법당 : 25평
- 요사, 방 3개, 욕실 2개, 거실
- 주차시설 완비
- 전세 3000만원

011)211-9958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에서 택시로 20분 거리
- 부지 : 건물 2동 논, 밭 6천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송림울창한 적정처
- 주위에 송이버섯 많이 남 꽃나무 유실수 다수 정원 구며져 있음 전기 전화 있음
- 가액 : 6천만원

051)257-0052
018)762-4387

남 활법사 · 지부장모집 여
교육기간
- 정규반 - 16주(1주 3시간)총 48시간 ● 속성반 - 4박 5일(1일 8시간) 총40시간
  교육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협회의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숙식제공(단 1명이라도 교육함)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 마사지교육 4. 기공술 6. 운동회복법(저항운동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 한번회원이 되면 평생회원이 되며 3개월에 한번씩 세미나를 개최함.
※ 중국안마(추나)자격 취득 : 12월 10일 출발 7박 8일간. (현재 접수 중)
※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서 우송해드립니다.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4)655-6461 02)2212-8615 011)522-1122
http://www.hwalbup.or.kr E-mail wooh57kr@yahoo.co.kr

사찰 안내
- 위치 : 포천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산신각 : 10평
- 가액 : 2억(절충가능)

016)9669-391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
- 대지 : 160평
- 법당 : 목조 20평 단청필
- 요사채 : 20평 1동, 10평 1동
- 가액 : 7천만원(전세 가함)
- 주지스님 급한사정으로 구입가양도

055)973-226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완장리 선유동 계곡 옆
- 대지 : 80평 황토집
- 금액 : 1천 5백만원

011)419-7138

사찰 안내
- 위치: 서울시 성북구
- 대지 : 85평
- 법당 : 40평(3층)
- 요사 : 80평(1, 2층)
- 가액 : 7억(융자가능)
- 오래된 역사의 좋은 사찰임

011)530-1975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 평수 : 약 40평
- 시유지 : 약수터 위
- 가액 : 답사 후 결정

02)385-3338

포교당안내
- 삼존불 후불 신중 지장 산신 칠성탱화
- 3층건물에 2층 20평 법당15평 스님방 5평 주방시설완비
- 수원역5분거리 수원도청입구 대로변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9)319-5954
02)388-1597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광고가격 : 1Box(4.5×3) 3만원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법회 기도



금화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관음재일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경남 진주시 금곡면 석계리
055)753-9826, 754-2997
휴대폰 016-546-9826

향용사 법회안내
매월(음)초하루 오전10시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반곡 767-5
063)243-9152
017-658-9152

덕춘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관음재일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전북 군산시 송창동 3-68(7/2)
063)463-5907 / 011-684-1408

염창사 법회안내
매월(음)초삼일
전북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214-5
(창북초등학교 뒤 염창산 용정마을)
063)584-6571
011-659-6571

여래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30분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 매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100
02)3673-3886 / 011-732-6933

만장사 정기법회
매월(음) 초하루 법회
매월(음) 18일 지장재일
매월셋째 일요일 일요법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1등
031-448-8005 / 448-1144

보현정사
도심속의 기도 사찰
매월 초하루 기도
02)583-1080

수도사 법회안내
매월 초하루 정기 법회
요가선체조 수지침 강의
달마대사 부처佛자 그림 무료배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675
051)512-4008

덕춘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관음재일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전북 군산시 송창동 3-68(7/2)
063)463-5907 / 011-684-1408

소요산 중화사
인등법회기도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신신기도 매월 음력 초아흐레 오전 11시
지장기도 매월 음력 열여드레 오전 11시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30
031)865-5520

북한산 노적사
회엄신중기도법회 (음)매월초 1일~3일
철야정진기도 (음)매월 7일(약사재일전야)
약사재일 지장불공 천도법회 (음)매월 18일
관음재일 관음불공법회 (음) 매월 24일
참림 정각회(거사회)법회 (양)매월 둘째주 일요일
02)353-5016, 354-7900

복지도량 건립 사찰
불 은 사
매월 초하루 법회
복된장, 고추장 판매수익금은
전액 복지도량 건립에 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동 445
053)581-0770

북한 형제봉 심곡암
관음굴 산신각 천일기도
2차백일기도 입제
매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02)914-8860



구인 구직

부전스님 모십니다
▷ 65세 이상
011)376-3012

모십니다
신세좋은 조용한 암자에서 평생을 함께 하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십니다
041)952-4197
016)9311-4103
02)996-3813

소월성취기도도량
재단법인 성운사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철야기도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9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42-1
031)314-7577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신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 ~ 3
016)9414-1525

배우자 구함
가축인공수정소를 운영하고있는
41세 미혼남성입니다. 평생을 불심으로
함께 할 미혼여성을 원함
018)415-0086

지장기도도량
김포큰절 무량사
매월(음) 초하루, 보름 오전 10시 30분
매월(음) 18일 지장재이럽회
매주 토요일 밤 11시 철야정진 법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1리 산269-16
031)989-7515

마음어질고 성실한
부전스님 구합니다
● 월 80만원 보시
● 45~65세 ● 경북 구미
054)452-0845
011)539-0845

불심 많으신 사찰가족
다음과 같이 모십니다
● 공양주 한분 부부가능
● 운전기사 한분 남자 ● 부부혹은 3가족
02)577-0007/578-5508
011)9864-1095 심복사

같이 수행하실
행자스님 구합니다
041)566-0722
041)566-630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세이상 노보살님
02)917-3363(정릉)

부전스님
모십니다
▷ 65세 이상
011)376-3012
02)2254-2198

각종 염불해 드립니다
49재, 영가천도, 불공,
기도, 시달림
011)9596-4338

기도 · 부전스님으로
상주할 인연사찰
찾습니다
016)9993-0288

기도 부전스님으로
상주할인연사찰을
찾습니다.
016)9993-0288

행사 및 수행을 함께 할
학인을 모십니다.
위빠싸나, 관법수행
불가기공, 도가기공, 의도기공, 양생기공
051)264-9621, 011)5777-7600

부전스님 · 어린이
법회선생님 모십니다
031)266-6526
018)357-6526

사찰 사무원
구합니다
▷ 충남 서해 바닷가 사찰
041)673-3222

암자를 직접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암자 운영 무료, 종단불문
경북의성군 , 창건주
017)813-9126

산세수려하고 수세 감미로운
기도처에 수행원 건립하여
함께 정진하실 공덕주처사님
및 보살님 모십니다
017)593-3387

모십니다
김천불일사
사찰에서 공부하고 수행하실 신도님
간단한 의식집전이 가능한 분, 숙식제공
018)587-2363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40~50세 금호동 관음사
017)260-3310

배 우 자
볼심이 돈독한 40대 여성을 구합니다
공예업을 운영하고
재력 조금 있음
011)508-1234



알림 정보
[이전, 강좌]

참마음 수련 심전 대광사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033)435-3166

노인요양원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031)759-5320

고려대장경 간본대장경
속장경 돈황보장
불사자금관계로
급히 양도 합니다
054)853-3855

북한산 심곡암
제 5차 단풍문화축제
일시 : 2002. 10. 19 ~ 27일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02)914-8860

국제포교사고시 11월 10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서류전형, 필기고사와
면접, 종합 연수
접수기한은 11월 1일까지.
02)720-7060

정토수련원 '일상에서 깨어있기'
10월 19일
오후 2시~20일 오후 9시
서울 정토회관
02)587-8994

장인 정신
종종사 이전안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011)266-8639

화엄기도도량 해 원 사
원인 모를 병고
마음 병(정신)
031)336-3734
011-9711-3734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보급
해인서림
www.hoedang.or.kr
02)942-0127

불교용품 총판 견지불교사
이 전 안 내
건물 중축 관계로 조계사 옆으로 이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775-4242

대한불교조계종
도솔산 도피안사
도피안사 파라미타수행원
(하계, 동계수련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031)676-8700 ~ 2

불심으로 약방문을 지어 올립니다
삼 의 한 의 원
인술의 기본 처방에 불교인 동도로서불심을
담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가까운 도반입니다
침구과(본약, 환약), 내과, 부인과, 소아과, 피부과
원장 엄원섭
02)966-5725, 968-7777
(제기동 미도파 옆 약전골목 입구)

퇴 마
앗! 아이들이 위험해요
대한불교조계종
정욱사
주지: 정욱스님
017-217-2219

제9차 화엄광장
'오늘의 눈으로…' 개최
10월 4일 조계사 소설법전
02)737-6181

전국비구니회관 '한지공예'
중앙승가대 법연스님 초청강좌
매주 수요일 1시~4시
장소 서울 수서동 회관
02)733-5467

법왕정사 참선캠프 수련
10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3시
서울 청호불교문화원 7층
031)771-7745

국청회 '천수경 강좌'
동국대 불교대학원교수 정각스님
초청강좌 - 매주 수요일
서울 수송동 원당빌딩 3층 국청회 법당
02)730-1249

선간 四 柱
格局用神 격국용신
總說捷徑 총설첩경
通變話術 통변화술
(前編, 後編) 전편, 후편
사주의 격국용신과 통변술은
초보자라도 알수 있도록 총정리하여
역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著者 李恩周
靑雲易學院
02)723-7449

우곡선원 초심자 참선교실
10월 5일부터 26일
매주 화, 토요일 오후 8~10시
서울 본원과 부산 해운대 선원
02)529-5027, 051)740-6288

보리수선원 위빠사나 특별수련회
지도 묘원법사
10월 3일부터
매주 월~금요일
02)517-2841

한국불교범음회 학인모집
초급,중급,고급
매주 수,목
(오후 5시-7시)
051)554-1518

대구 여래선원 불교 수행학교
10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목요일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정통수행법(위파사나 및 참선)
053)255-0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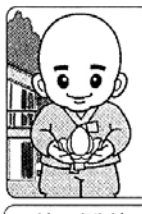
기와지붕시공전문
신형기술로 시공한 후
청소까지 완벽하게
덕신기와
011-302-7802

조선 불화 초본 전시회
10월 12일 까지
장소 : 동국대학교 박물관
02)2260-3462

남양주 보광사 태극권 주말수련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일요일
(1박2일 또는 2박3일)
모집인원 25명 내외.
031)594-1316

불자님께 최신형 핸드폰을
최고 25%까지
할인해 드립니다
016-838-1787

현 대 자 동 차
자동차의 모든것을
상담해 드립니다
011)284-3361



불교 용품

우리곁에온- **동판(銅版)달마 대사**
종류 : 포켓소지용, 중형액자, 대형액자, 특대액자
동판공예 연구회 02)2203-7821

조 양 향 단
대표 박규점
031)571-3091
017-226-6462
471-080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382-6

성 일 양 초
대표 박정하
053)851-7024
016-568-8000
성일양초는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초를 만듭니다

청동불상 제작 전문
성화불교전시관
02)2209-0080-1

상표등록 0472818호 415465호
팔공 갓바위 엿
대표 양재영
053)851-7467/011-805-6577
712-841 경북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476

당뇨 걱정 끝
"메디풀"의 경이적인 효과
한달 내로 확인할 수 있음.
주저없이 문의 하세요
02)402-2388/017-287-9667

불교서적 불교용품 전문점
부 용 당
대표 김호준
053)321-4612/011-820-4615
702-849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332-2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택 : 031)563-8733
031)563-8771
H · P : 011)255-3286

佛舍廊 禪宗社
불교용품 제작 판매
불교서적 · 불교음반
각종불사상담
011-9355-1328

삼보기업
호신카드(달마,탑다라니 등),
불교용품 주문 생산
전문 기업
꼭 전화 주세요
011-397-2715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알뜰 정보



Mo Mo
토탈 인테리어 디자인
1544-1088

나우하우징
사찰건축, 실내인테리어,
전원주택, 리모델링 등
종합건축 전문 기업
02)596-3232

쑥담배 BULE(블루)
쑥은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식물입니다. 발명:대한불교 건강복지회
대 표 청청 고운맘
(주)황금산트레이드
02)663-9229

낙 화(민속촌 내)
세계 유일의 향나무 명함 제작 기업
주문 수량에 맞게 제작해 드립니다. 서슴없이 연락주십시오
011-262-4371

생활 장터



승복 · 한복
유 마
서울 종로구 수송동 25-2
02)730-9994

출판, 불교기획
연 중
불서기획, 출판 정성껏
대행해 드립니다
019-696-0701

연지플라우어
각종 꽃 주문 배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2-399-7781

전국 관광버스
정기운행에
관한 자세한 문의
053)851-7044

대한불교조계종
구 담 사
조상 태아 영가 천도지장도량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36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부산아시안게임에서 많은 불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잔치상 차리기에 나서면서 부산 불심이 후끈 달아올랐다.

아시안 게임에서 보여주는 부산 불자들의 활약은 선수촌내의 불교관 운영과 43개 참가국의 서포터즈로 각 경기장에서 펼치는 열띤 응원전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특히 선수촌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교관은 불교 국가 선수들은 물론 한국의 불교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화제다.

발길 줄잇는 AG선수촌 불교관

우슈·사격선수등 하루 90여명 찾아

부탄·스리랑카선수들 경기전 예불

"아주경기 계기 한국불교 관심 증폭"



◇부산 영주암 조실 정관스님과 신도들이 2일 북한 여자축구경기가 열린 구덕 경기장에서 '통일조국'을 외치며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다.

부산 구덕경기장=고영배 기자

다른 종교관이 문을 열지 않는 이른 시벽시간에도 불교관은 환히 불을 밝히고 있다.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불교관에는 그래서 이른 아침, 경기전 기도를 위해 찾은 선수들도 눈에 띈다. 부탄과 스리랑카의 선수들이 경기전에 법당에서 예불을 올리는가 하면, 중국의 우슈 선수와 싱카포르의 사격 선수 등 정신 통일이 강조되는 종목의 선수들이 즐겨 찾아 하루 평균 90여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매일 불교관을 찾아 상주 법사로 있는 무심스님, 본공스님 등과 대화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은 이들도 생겼을 정도. 인도네시아 우슈 선수인 드위(16) 선수는 "언제든 와서 참선도 할 수 있고, 스님들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줘 경기에 큰 힘을 얻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외국인을 위한 선강좌를 하루 한번씩 열며 영어 통역을 맡고 있는 무심스님은 "포교한다는 생각보다는 참선을 통해 경기전 부담을 덜어주어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관의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이슬람이나 타종교 국가 선수들도 방문, 전시된 한국 불화를 감상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동명불원 신도들의 다도시연과 불화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했던 불교관은 5일, 삼광사 주최로 부산아시안게임 성공개최와 36억 아시안인의 화합을 기원하는 영산재를 열어 한국 불교의식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한편 각국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불자들의 활동은 부산 시청 시민 서포터즈 담당자들이 놀라움을 표할 정도로 가장 두드러진다. 2일 북한과 일본 여자 축구 경기 북한 서포터즈로 나선 영주암 신도들은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 경기장을 찾는 열성을 보였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제히 "통일 ~조국!"을 외치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응원에 나선 영주암 조실 정관스님은 "너와 나의 대립이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피도 역사도 문화도 같은 한민족인 북한을 응원하는 마음은 자동적"이라며 한반도기를 흔들며 북한을 응원했다.

부산불교연합회 관계자는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부산 불교계에는 새로운 신행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보여준 불자들의 주인의식이 불교 내부의 활력소가 되어 불교 역량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영천·경산에 불교대학

은해사·안흥사 1·2일 개강

영천과 경산에 불교교양대학이 잇달아 개설돼 배움에 목마른 지역불자들에 단비가 되어주고 있다.

2일 은해사(주지 법타스님)는 영천, 진량, 자인, 군위 등지의 불자들을 위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불교교양대학을 개설, 교육에 들어갔다. 은해사 보화루에서 1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이날 첫 강좌는 "종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재무국장 장적스님의 강의가 있었으며, 2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7시 ~ 9시 두차례 열린다.

이에 앞서 1일 경산 안흥사에서도 8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주 화요일 열리는 불교교양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박원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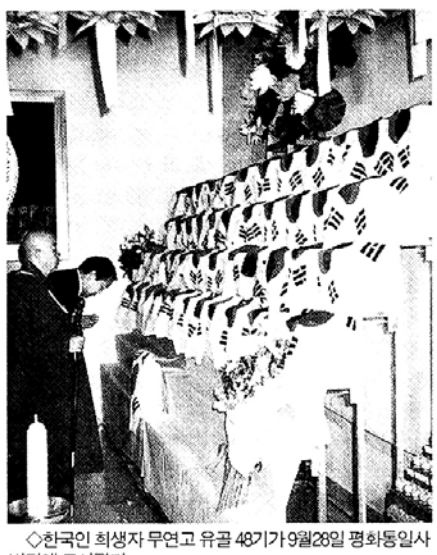
사명대사 열반 추모법회

사명대사 열반 제392주기 추모대법회가 2일 부산시 초읍 어린이대공원 사명대사 동상앞에서 봉행됐다.

부산불교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법회는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 영산재, 육법공양, 차공양의 순서로 진행된 식전행사에 이어 추모법회가 이어졌다. 성오스님은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민족 모두가 대승 보살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천미희기자

태평양전쟁중 희생 무연고 한국인

위패·유골 100기 환국 평화통일사에



◇한국인 희생자 무연고 유골 48기가 9월28일 평화통일사 법당에 모셔졌다.

이날 법회에서 일선스님은 법문을 통해 "본고향으로 돌아왔으니 편히 쉬시길 바란다"며 "인생은 무상하니 집착을 끊고 극락왕생하시라"고 영가들을 위로했다.

이번에 봉안된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위패와 유골은 (사)태평양전쟁 희생자 무연고영령봉환본부(본부장 장황국)와 세계미술문화교류협회(회장 이백암)가 준비하고 평화통일사가 후원하여 이뤄졌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세계평화사주지 대야호룡스님과 협의, 일본내 24개 사찰에 본안된 위패와 화장된뒤 시멘트 골조에 묻혀있는 유골들을 발굴하여 40만기에 달하는 무연고 희생자 유골과 위패를 한국으로 모셔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일본 세계평화사 지장사 등 24개 사찰에서 봉안돼 있는 한국인 희생자 무연고 위패 52기와 유골 48기 등 총 100기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파주 평화통일사(회주 일선)는 9월 28일 30여명의 스님과 불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인 희생자 위패 및 유골 봉안식, 위령법회를 개최했다.



◇캐나다 원주민 치힐리스밴드가 미황사 법당앞에서 자연과 문화, 인간의 연대를 표현할 연희의식을 하고 있다.

加원주민 미황사서 불교체험

다도·저녁예불참가·치힐리스 공연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찰에서 상품회되지 않은 한국의 참모습을 가슴에 담고 돌아갑니다."

인디언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차려입은 캐나다 원주민 8명으로 구성된 치힐리스 밴드가 1일 땅끝마을에 위치한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를 찾았다.

9월 29일 새만금 갯벌 생명살리기 영성나누기 춤사위 행사를 마치고 미황사를 찾은 치힐리스 밴드 원주민들은 모두 캐나다 밴쿠버에서 내륙으로 120여km 떨어진 허드슨강 유역에 살고 있으며 자연을 파괴하는 정부에 맞서 환경살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 초청으로 미황사를 찾은 캐나다 원주민들은 다도와 저녁예불 등 불교문화를 체험한 뒤 '자연과 문화, 인간의 연대에 관한 치할리스의 노래'를 의식과 함께 불렀다.

금강스님은 "미황사에 전해오는 진법군고(승병들이 진을 짜고 사기를 높이는데 쓰였던 풍물놀이)와 치할리스 원주민의 연희를 한자리에서 시연하며 새삼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구절초 꽃축제 열어

영평사, 13일까지

영평사(주지 광원)는 구절초가 만개하는 때에 맞춰 5일부터 13일까지 '구절초 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일명 선모초라 불리는 구절초는 부인병이나 불임병에도 효험이 있어 지금도 민간요법으로 활용되는 약초로 소박하고 아름다운 꽃은 도자기, 가구,기와 등 일상생활의 소품에 문양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판소리, 창 등의 민속공연과 화전 부치기, 새끼 꼬기 대회, 사진 · 도자기 · 서예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041) 857~1854. 김철우 기자

전북 첫 불교전문강원 설립

고창 선운사, 내년 3월말 정식 개강

고창 선운사가 전라북도 최초로 불교전문강원을 설립한다.

선운사(주지 법현)는 10일 강원 현판식을 갖고 사미 예비반을 꾸려 올 가을 동안 운영하는 한편, 선운사 불교전문강원을 내년 3월 말경 정식 개강하기로 했다. 현재 사미 예비반은 10명 선에서 구성되며 학습과목은 석가여래행적송을 포함한 능엄 · 원각 · 금강경 등이다. 선운사는 올 가을을 내년 본격적인 강원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삼아 강원 체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초대 강주로는 법장스님이 임명됐다.

이와 관련 선운사 주지 법현스님은 "박한영 스님등을 배출하여 근대 불교 교학의 중심지였던 역사성을 살리겠다"며 "한문 독해 능력 습득을 통한 불경 원전 교육과 현대적 감각 배양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강유신기자

어린이한문서당 열어

수원포교당, 12일 개강

수원포교당에 어린이 한문서당이 문을 연다.

수원포교당 여래 살림 생협은 3개월 과정의 여래 어린이 학교 '한문서당'을 12일 개강한다. 초등학교 2~6학년을 대상으로 천자문과 함께 '삼귀의', <반야심경> 등의 기초교리와 불자예절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열리며, 수강료는 3개월에 2만5천원이다. (031)255-2693

권형진 기자

80세에도 청소·설거이 도맡아

우리 절 우리 신도

서울 봉은사 조응호 거사

"불자로서 청정도량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부처님 가르침이 내 몸에 익을 수 있도록 봉사할 생각입니다"

봉은사 공양간에 가면 8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청소와 설거이 봉사를 도맡아 하는 밀행(密行)의 실천자 조응호 거사를 만날 수 있다.

조응호 거사는 3일 8시에 어김없이 압구정동 집을 나섰다. 걸어서 45분 거리인 봉은사에 도착하면 법당을 찾아 부처님께 참배하고, 108배를 올린다. 이어 아미타전 미륵전에 참배한 뒤 공양간으로 향한다.

공양간인 보우당에 들어서면 온수와 냉수를 적절히 맞춰 설거이통에 물을 받는것이다. 그런 다음 밀가루와 세제를 반씩 섞어놓는 작업까지 마치면 식기와 수저 젓가락을 정리하여 펼쳐놓아 사람들이 편하게 공양할 수 있도록 한다.

정확히 11시 30분이 되면 공양하러 는 불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빈다.

손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설거이 금새 조거사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힌다. 설거이는 오후 2시가 되서야 끝났다. 조 거사는 수세미를 씻어 가지런히 햇빛에 말린 뒤 공양간 바닥 청소까지 마치고 장갑을 벗었다.

설거지 후 경내 청소를 한 뒤 법당에 올라가 참선정진을 1~2시간 하면 오후 4시. 조 거사가 걸어서 집으로 향하는 시간이다.

'설거이 봉사하는 것이 즐겁다'는 조 거사는 "절 일하는 것은 마음이 저절로 쏠려서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부처님 가피"라고 말했다.



◇조응호거사(맨 오른쪽)가 3일 봉은사 공양간에서 설거이 봉사를 하고있다.

"일하는 것도 부처님가피" 궂은일 찾아 솔선

매년 3천배 철야정진·100일 안거도 거뜬

젊은 시절부터 신심 돈독한 불자였던 보살님이 '절에 함께 나가자'고 권해도 '내 마음이 중요할 뿐'이라며 들은 체 만 체 했다. 그러다 1996년 상처하고 딸네 집에 산다.

'생전에 그렇게 어머님이 아버지에게 원했던 만큼 이제라도 절에 가서 함께 공부하자'는 외동딸 조연숙씨의 권유로 1997년 2월 봉은불교대학 21기로 입학하면서 봉은사와 인연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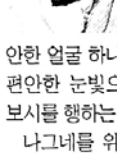
처음에는 교리의 듯을 몰라 고전했지만 수료할 때쯤 되니 "불교는 부처님 법을 따르는 종교다. 삼귀의 사홍서원을 지키고 항상 좋은 일을 하는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는 발원을 하게 됐다.

불교대학 졸업 후 상위교육 과정인 경전학교에도 등록한 조 거사는 봉은사가 매년 실시하는 3천배 철야정진, 8월간 1만 배 정진은 물론 인천 용화사 100일 안거까지 동참하고 있다.

김원우기자

추천의 말

원혜스님 봉은사 주지



무재칠시(無財七施)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들이지 않고 그저 평안한 얼굴 하나만으로, 언어로,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보시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그네를 위하여 우물을 가꾸어 목을 축이게 해주고, 정자를 만들어 쉬어가게 해주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봉은사 모범신도인 조응호 거사는 남이 알지 못하게 신도들이 먹은 식기를 세척해주고, 법당을 청소하며, 휴게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곤 합니다. 그야말로 '밀행의 실천자'라 할 수 있습니다.

80의 나이에도 열심히 정진하고 봉사하는 조응호 거사님은 분명 봉은사의 또 다른 자랑거리입니다.

외국인위한 남산선원

무심스님 부산에 개원

외국인들에게 한국선의 세계를 알리는 남산 선원(주지 무심)이 11월 3일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문을 연다.

남산선원의 선원장은 한국선을 해외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온 숭산스님의 미국인 제자 무심스님.

스님은 18년간 홍콩, 싱가포르, 말레지아 등지에서 선을 지도해 온 경험을 살려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매주 1회씩의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법회와 참선 강좌를 열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한국 불교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겠다는 포부다. 특히 스님은 일대일 참선지도에 중점을 두고 언어나 문화를 초월한 본래 성품 자리를 외국인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천미희기자



◇울릉도에서 열린 회당문화축제에서 국악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제2회 회당문화축제

울릉도 공원서 이틀간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울릉도 주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제2회 회당문화축제를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울릉도 도동항 소공원에서 개최했다.

9월 30일 금강합창단의 찬불가 공연을 전야행사를 시작으로 금강사물놀이패, 전통타악연구소 등의 문화공연이 이어지고, 1일에는 L.M.B 중창단, 국악관현악단 '오느름', 전통타악연구소의 난타공연 등의 문화행사와 풍등날리기, 폭죽 페스티벌 이벤트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김철우 기자

"참회·정진만이 자아완성의 길" 청담스님 체취 '물씬'



◇도선사 경내에 건립된 청담기념관. 15일 개관하는 80평 규모의 기념관에는 100여점의 유품이 전시된다.



◇박정희대통령 당시 수여받은 국민훈장.



◇스님의 체취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벼루와 먹, 붓.

"고해같은 이세상을 극락으로"

56~59년간 일기 기록된 수첩발견

"오탁악세가 화탕지옥이다. 그러나 사홍서원의 굳은 원력은 고해를 정화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극락세계로 만들어 놓고야 말 것이다."

청담유물기념관에 전시될 스님의 56년부터 59년까지의 수첩에는 글이 빼곡히 적혀있다. 이중 겉장에 '나의 평생의 원위사願爲事는 완전한 인간됨을 원함'이라고 적혀있는 단기 4289년(서기 1956년) 수첩에는 비행기를 처음 탄 스님의 글이 눈에 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11월 14일 세계불교도대회 참석차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쓴 듯한 글에는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해지기전 해상에 엉키어 있는 구름바다가 보기 좋다. 아마도 천상사람들은 항상 이런 구경을 하리라. 잠시 동안이라도 신선이 되어보니 사홍서원의 원력이 앞선다. 세상을 극락으로 바꿔놓겠다는…" 중생제도 염원이 강하다.

스님의 글에는 이어 세계대회에서 제기할 건의안이 적혀있다. 건의안에는 △원자폭탄 사용금지 결의 및 유엔에 건의 △네팔을 영세독립국으로 유엔이 보장하고 법왕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 △법의제와 가사 제안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스님은 일본에 도착해 사용한 지출내역과 본 것들을 소소히 기록을 해뒀는데, 호텔은 905호실, 숙박비는 1인실 2900환, 2인실 3600환, 조식 300환, 양식 500환, 저녁 700환등이 적혀 있다.

귀국한 길에 쓴 듯한 글에는 "비행기에서 석식을 준다고 하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승무원에게 '불교는 오후 불식'이라고 하니 모두 저녁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 모두 굶었다. 불타께서 경계하신 말씀이니 봉행 한다"라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

스님의 수첩에는 "참회와 정진만이 자아완성의 길"이라는 글귀도 눈에 띈다.

56년 세계불교도대회 참석…"비행기 처음"

'원폭사용금지·법의제·가사 제안' 기록



◇청담기념관에 전시될 스님의 56년부터 59년까지 사용한 수첩과 떨어진 부분을 직접 기워쓴 손가방. 손가방 안에는 신문지에 감긴 가는 전선줄과 간이 반짓고리가 들어있다.



◇청담스님이 생전에 불교의 구세관을 설명하는 모습.

스님탄생 100돌, 기념관 15일 개관

생시 즐겨 쓴 유품 100여점 봉안

조계종 종정과 총무원장을 역임한 청담스님은 평생을 교단재건과 불법중흥에 바친 수행과 행정을 겸비한 근세 최고의 고승. 1926년 출가한 스님은 48년 성철스님과 조계종의 기틀을 확립한 봉암사 결사를 주도하는 등 50년대 초까지 선방납자로 정진했다. 55년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한 스님은 정화불사를 주도했으며, 종정도 지냈다.

스님은 1971년 11월 15일 열반에 드는 날까지 종단의 교육 역경 포교사업의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국내 7대종교 모임을 만들어 종교간 교류를 처음 시도하고 세계불교 우의에도 새 지평을 열었다.

삼각산 도선사(주지 혜자)는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을 스님의 생전 체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유품 100여점이 봉안될 '청담기념관'을 건립, 15일 개원한다. 현재 기념관내 전시작업은 동국대 박물관장 장충식 교수팀이 진행하고 있다.

청담기념관에는 스님이 생전에 사용한 주장자, 서화, 벼루, 붓, 손가방, 바느질 주머니, 낙관, 동종 등 유품 100여점이 80평의 전시관에 상설 전시된다. 서예와 전각에 조예가 깊었던 스님은 평소 지닌 도선사 신달학원 현판도 직접 조각했다.

특히 50여점에 이르는 서화는 대중 포교용 '佛(불)' 자를 비롯, 큰스님 설법해설도, 휘호 '光明(광명)' 그림을 곁들인 '심우도'와 '구세관' 등 다양하게 갖춰져 보는 자체로 불자들의 공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스님의 행적이 일기형식으로 자세히 기록된 56년부터 59년까지의 수첩도 불교근대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초대 유물관장 혜명스님(혜명정사 주지)은 "세상을 앞서 살아간 선각자들의 모습을 한곳에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곳이 유물관"이라며 "청담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전시관을 마련하고 단청불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유물과 유품이 진열되고 있는 만큼 불자님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은 "이번 큰스님 기념관 건립으로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의 상징인 육환장.



◇스님 친필휘호 '만고광명'



◇스님의 포교용서화 佛자.



◇도선사 신달학원은 해방이후 서울권 최초의 교육기관이었다. 신달학원은 훗날 학교법인 청담학원의 모태가 됐다. 사진은 청담스님이 직접 전각한 현판.

청담문화재단 이사장 동광스님은 "청담문도회 스님이나 불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청담스님의 유물을 기증받아 앞으로 경내에 새로 청담기념관을 건립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담대종사 탄신100주년 기념행사

학술세미나·산사음악회·논문집 간행 등 다양

정화운동에 앞장서며 어떠한 위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늘 참고 정진하며 살아와 인욕보살로 불리는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재평가된다.

청담대종사 탄신 100주년기념행사 봉행위원회(위원장 정대)는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12일부터 20일까지 추모법회, 청담기념관 개관식, 두 차례의 학술세미나, 산사음악회, 논총 및 문집 간행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10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담대종사의 불교사상과 불교교단 정화운동'을 주제로 열리는 1차 학술세미나는 성본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목정배 교수(전 동국대 교수) 등 6명이 주제발제 한다. 이어 12일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에서 열리는 2차 학술세미나에서는 '청담대종사의 선사상 및 수행과 교화행'을 주제로 법산스님(동국대) 이진오 교수(부산대) 등이 주제발표 한다.

15일 오전 11시에는 도선사에서 김수환추기경 등 내외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담대종사 탄신 추모기념법회를 봉행하며, 이날 추모법회에서는 논총 및 문집 봉정식 및 청담스님 유품을 전시해놓은 상설전시관 개관식도 함께 거행한다.

또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될 15편의 논문을 수록한 '청담 대종사와 현대 한국불교의 전개' 제목의 논총을 15일 발간하고, 모두 11권으로 구성되는 청담스님 문집 가운데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신심명강의 및 선입문〉 〈자문록〉 등 6권도 10월초에 완간한다.

이와 함께 도선사는 20일 오후 6시부터 도선사 경내에서 불자음악인과 연예인을 초청해 국악과 가요,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축제형식의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2)993-3161

대전광역시 서법남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산문밖의 숲

"1%만 나눠도 세상은 바뀝니다"

박원순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원순은

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 82년 잠시 대구지검 검사 생활을 하다 그만 둔 후 지금까지 줄곧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95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2000년 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를 맡아 기부운동을 통한 사회 개혁을 실천하고 있다.

발족 만 2년이 되고 있는 지금, 아름다운재단에는 2,432명이 동참자가 뜻을 함께 하고 있다. 그들에 의해 '심산 기금', '대니 서 기금', '의인 기금', '김군자 할머니 기금' 등이 모여지고 있다. 하지만 모금액 5억원을 목표로, 시민운동가를 지원하기 위한 심산 기금은 현재까지 1천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밖의 기금들도 목표액의 10%를 채우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부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낯선 문화다.

저서 <국가보안법연구>, <아직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등 다수.

"82년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
기부운동 통한 사회개혁 앞장"

"요새요? 돈 쓰는 법을 연구하죠. 진짜 자본주의와 가짜 자본주의의 변별 기준이 돈 쓰는 법에 있다는 생각에서예요. 정승같이 써야 진짜 자본주의죠. 돈,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이지요."

종로구 가회동에 있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박원순(46) 변호사를 만났다. 90년대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시민운동을 이끌었던 그는, 그 자리에서 물러난 후 2년 째 아름다운재단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헐렁한 양복 차림에 학생들처럼 스포츠 배낭을 메고 나타나 악수를 건네는 박 변호사. 그의 모습에서 지사형의 인권변호사나 시민운동가의 이미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는 지금 '1%로의 나눔'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청년이다.

돈을 잘 쓴다는 것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담변가인 그도 한동안 숨없는 머리를 굴적거린다. "93년 하버드 대학에 잠시 머물 때였죠. 낙엽이 수북히 쌓인 캠퍼스를 산책하다 벤치 위에 누가 놓고 간 하버드 대학 교지를 펼쳐봤어요.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도로시 파커라는 미국 작가의 글귀였다. 기부금이 담긴 봉투를 복지재단에 전하는 것을 뜻하는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check enclosed)."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겠다는 그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작가의 말이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기대했던 제 생각과 달리 참 평범한 말이더군요."

이때 받은 인상을 마음 속에 곱게 간직한 박 변호사는 아름답게 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가진 것의 1%로 남과 함께 나눠 보자고 만든 것이 아름다운재단이다. 재벌들의 재산상속 문제를 놓고 참여연대가 주장한 것이 재산형성과정의 준법과 투명한 분배였다면, 지금 그는 돈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돈을 잘 쓰자는 것이다.

"득도한 싯타르타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진흙은 사실 더러운 것이 아니죠. 우리의 눈에 더럽게 비친 것일 뿐 진흙은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안식처죠. 돈 문제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돈에는 그 사람의 숭고한 마음이 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돈을 다르게 보고 바른 사용하는 법을 찾아보자는 목적으로 아름다운재단을 시작하게 됐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부의 축적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쓸까 고민해야 할 때가 됐어요. 부나 명예만으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거죠."

지난날 정신적 풍요를 지금…

뜻밖에도 박 변호사는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말한다. 80년 잠시 검사 일을 하다 그만두지 않았다면, 잘 나가는 공안 검사가 됐을 거고, 그랬다면 '인권'은 법률 조항 어디쯤의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에서.

박 변호사는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길을 함께 갈 수 있었기에 후회가 없다"며 "돈과 권력에 가까이 있었다면 마음의 평화는 그만큼 멀리 있을 것"라고 말한다. 즉 "자기가 가진 것의 1%씩만 나누어도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것들이 좋은 인연이 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1% 나눔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그이지만 정작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한다. 크레용도 살 형편이 못 됐던 가난한 유년 시절, 간신히 배고픔을 참으며 다녔던 서울 유학 시절, 칼날 같은 긴장감 속에서 독재정권과 대결하며 살았던 인권변호사 시절, 바쁘게 뛰어다녔던 참여연대 시절, 이런 그의 삶은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한가로움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만 어린 시절에 보았던 개울과 뒷산, 갈대 숲, 전깃불이 없는 시골을 밝혔던 호롱불. 이런 것들만이 험한 세월을 견디는 힘이 돼 주었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결국 이런 곳에서 멀리 있지 않아요. 가난했지만 따듯했던 시골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면서 느낀 것을 지금 되살려 보자는 것이죠."

끝맺음도 아름다울 수 있기를

요새 박원순 변호사는 자신의 처음 모습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에 대해 곰곰해 생각해 본다. 함께 시민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으로 들어가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아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겪다 보니 지금은 무덤덤해진 편이지만요." 그래서 박 변호사는 아름다운 나눔 못지 않게 아름다운 끝맺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많다.

5년 10년 사귀는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 박 변호사도 그들에게 늘 변함 없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 사람들과 어울려 인간 숲을 이루고 아름다운 나눔의 뜨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박 변호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끝맺음이다.

글=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사진= 임민수 기자 ymnsoo@buddhapia.com

봉행 조국통일염원 아미타불 괘불점안 법회

우주법계와 삼라만상은 일체진여를 깨닿코져 대승종에 인연하여
나라의 염원인 남북화해와 조국통일을 위해 아미타불 괘불을 봉안하노라.
일천만 불자들이여~
무릇 때를 아는 자는 보살의 동체대비를 이루리라 하였노니
괘불점안 복전에 무루동참하시어 그 인연공덕으로 큰 복을 지으시고 세세생생토록 평안하시라.

■ 일 시 : 2002. 10. 25. 금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 강북구민회관 대공연장

■ 주 최 : 사단법인 대한불교 대승종 ■ 주 관 :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 후 원 : 대승종 전국 지방종무원. 대승종 포교사단 방범기동순찰대. 대승종 전국 신도회 ■ 협 찬 : 현대불교신문사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 1동 186-19 TEL : 031)448-8811

릴레이 수행일기 〈下·끝〉



김광하

경불련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상임운영위원

대학을 졸업할 즈음, 필자는 한 친구를 알게 되었다. 당시 그는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는 필자에게 불교를 배우고 대신 필자는 그에게서 기독교를 배우기로 하였다. 신앙에 상관없이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필자가 알고 있는 불교를 설명해 주었고, 다음으로 그가 필자에게 '마가복음'을 위주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강의를 해주었다.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필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으니, 그것은 그의 설명 중에 예수님의 역사적 현실과 사건에 대해 깊은 인식과 탐구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역사연구에 의하여, 갈릴리라는 곳은 예루살렘과는 달리 가난한 이, 과부, 소작인들이 주로 살고 있던 곳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연구에 의해, 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신학생 친구의 가르침은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필자의 사색과 수행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보상을 바라지 않는 봉사와, 또 보상에 대한 욕망을 참아내는 인욕을 통

대학시절 친구와 상대종교 배우기

인욕·무주상보시로 사회봉사

후 권력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이들이 살고있는 갈릴리에 가셨는지 그 의미가 분명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며, 문득 필자는 부처님이 사시던 시대와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반문하게 되었다. 부처님은 4성제 등을 통하여 세상의 고통을 말씀하시고 또 죽이지 말고, 빼앗지 말고, 음란하지 말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불자로서 부처님의 출가 전후의 세상과 삶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가르침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물음이 앞서지 않을 때, 수행은 현실과 유리되고 결국 수행을 위한 이론과 방법만 남게되기 때문이다. 필자에게 불교공부 속에서 역해 온다는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현실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경전을 읽으면서, 필자는 경전 속에 나오는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이 실천적인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 불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회참여활동은 바로 욕망에 대한 성숙한 성찰을 기본으로 해야하지 않나 생각된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행복을 비는 마음,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욕망을 참아내는 성숙함, 이런 수행을 통하여 불자만이 해낼 수 있는 사회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회는 이금현 경불련 부회장=경불련 젊은 간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속에서도 항상 불교적 수행을 일깨워 주시는 불자입니다. 지금은 서울 미아리에 있는 자비의 집에서 주도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고침 지난회,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이원세' 선생으로 바로잡습니다.



◇직장 일을 마치고 금강경독송회 서울 성북동 법당을 찾은 젊은 불자들이 〈금강경〉을 읽으며 '마음 바치기 수행'에 열중하고 있다.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금강경독송회 마음바치기

'번뇌·업보' 모두 부처님께 바쳐라

금강경 7번독송·미륵존여래불 염송

국내11·해외5개 지역에 법당 운영

"미륵존여래불, 미륵존여래불, 미륵존여래불…."

9월 26일 저녁 7시 서울 성북동 금강경독송회 서울법당에서는 젊은 불자들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매월 셋째 금요일에 열리는 청년법회 시간이다.

회사 일을 마치고 법당을 찾는 불자 20여명이, 〈금강경〉 독송에 이어 '미륵존여래불'을 염송한다. 미륵존여래불은 석가모니부처에게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은 이로, 이 미륵존여래불에게 모든 번뇌를 바치는 것이 금강경독송회의 독특한 수행법이다. 눈으로 마음으로 '미륵존여래불'을 염하여 자신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바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매일 〈금강경〉을 7번 독송하고 시시각각 치미는 번뇌와 망상을 미륵존여래불에게 바치는 것. 이것이 금강경독송회의 핵심 수행법이다. 이 마음 바치는 법이야말로, 누구나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자기 삶을 뜻한 대로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금강경독송회는 서울, 포항, 부산, 울산, 대구, 파주, 마산, 원당, 대전, 충주, 경주 등 국내 11개 지역과 미국 뉴욕, 로스엔젤레스, 포틀랜드, 애틀란타, 캐나다 토론토 등 해외 5개 지역에 법당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법회는 서울 법당 법사인 류종민 교수(중앙대예술대학장)의 지도로 〈금강경〉 1독과 미륵존여래불 마음바치기, 그리고 금강경 강좌로 진행된다. 오늘은 〈금강경〉 제11분 '무위복승분'을 공부할 차례. 류교수는 강의에 앞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밝아져서,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고 부처님 시봉 열심히 하시길 기원합니다"는 발원문으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킨다.

금강경독송회는 동국대 총장을 역임한 고 백성욱(1897~1981) 박사에 의해 시작됐다. 백 박사는 〈금강경〉읽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이 수행법을 현재 금강경독송회의 지도법사인 김재웅 법사에게 전수했다고 한다.

마음바치기 수행은,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마음 깊숙이 숨어 있다가 올라오는 거센 업보와 번뇌를 끊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아상(我相)을 연습하는 꼴이 된다며, 번뇌와 업보를 매일 공양 올리듯이 부처님 전에 바쳐야 한다'고 백 박사가 설파한데서 시작됐다.

금강경독송회의 회원 대부분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 마음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는다.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의 고통, 슬픔, 불안 등 모든 문제들이 바로 내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된다. 근심걱정들은 나의 업장의 결과이며, 또한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 스스로 정진하고 깨달아 실천함으로써 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것이다.

불치병으로 더 이상 목표도 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다가 〈금강경〉독송으로 병을 극복하고 새 생명을 얻은 이에서부터, 동물이든 식물이든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만물이 밝은 심성 갖게 된다는 믿음으로, 매일 베란다에 찾아오는 까치에게까지 금강경을 들려주는 이에 이르기까지 1만여명의 회원들이 〈금강경〉독송과 마음바치기 수행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새벽·잠들기전 독경하면 쌓인 업장 자연히 소멸"

금강경독송회 류종민법사



"〈금강경〉 자체가 바치는 경입니다. 제3분 대승정종분에서 바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금강경독송회 서울법당 법사인 류종민교수(중앙대예술대학장)는 자신있게 말한다. 20년 동안 〈금강경〉 독송과 마음바치기 수행을 해 온 류 교수는 매일 새벽 〈금강경〉 7독과 마음바치기 수행을 스스로 실천해 오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지 않고 일터에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금강경〉을 읽지 않고서는 일터에 나갈 수 없고, 내 몸뚱이를 다스릴 수도 없다는 원칙을 세워 놓으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금강경〉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류 교수는 "〈금강경〉을 읽고, 미륵존여래불을 외치는 수행법은 현대의 생활에 아주 좋은 수행방법입니다. 이른 새벽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치고, 일상생활에서도 순간 순간 바치는 수행을 하다보면 자연히 우리의 업장 소멸이 가능해 집니다"라고 말한다.

류 교수는 처음부터 7독을 행하기가 힘이 들면 하루 1독부터 시작해, 백일 단위로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또 시간이 없을 때에는 처음부터 제5분 또는 제8분까지 읽고, 제32분으로 마무리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도 알려준다.

수행 캘린더

■'실상관법' 수련=우곡선원 부산 해운대선원은 12일부터 26일까지 '제9기 우곡 참선교실'을 연다. 매주 화·토요일 저녁 8~10시 '실상관법'에 대해 배우고 직접 경험해 보는 기회다. (051)740-6288

■'정토신행방법론' 워크숍=한국정토학회는 12일 대구 수성구 염불선원에서 '정토신행 방법론'에 대한 워크숍을 연다. '염불의 종류'(중앙승가대 태원스님), '청명염불(대구대 박화문 교수)', '관념염불(동국대 법산스님)', '염불선(동국대 보광스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열린다. (02)581-3137

■금강경 사경=서울 금산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법당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108참배, 금강경 사경 및 큰스님 초청 7일 정진 대법회를 연다. 사경한 금강경은 법당 앞 불탑에 봉안된다. (02)823-9135

■수선회 '참선 교육'=수선회는 15일부터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서울 수송동 수선회 회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참선교육을 실시한다. 오전 10시, 오후 7시 입재반으로 나누어 '참선의 자세', '참선의 종류', '선종발달사', '화두의 중요성', '화두참구법' 등 참선의 실제에 대해 교육한다. (02)732-5960

■삼천배 철야정진=서울 능인선원은 추계 '삼천배 철야 용맹정진' 수련을 19일, 20일에 걸쳐 실시한다. 19일 오후 8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20일 오전 3시까지 진행되는 철야정진법회는 누구나 참여할수 있다. 동참비 1만원. (02)577-5800

■'NGO명상학교'=참여불교재가연대는 24일 오후 7~9시 서울 원불교 종로교당에서 '참다운 행복을 찾아서' 주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상 수련법 강좌를 연다. (02)744-3424

■'산사체험 교실'=영천 은해사는 26일 오후 5시부터 산사체험 교실을 개최한다. 새벽기도와 예불, 좌선, 포행 및 암자 순례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은해사는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도 갖는다. (054)335-3318

■'선 수련회'=서울 길상사는 매달 네 번째 주 토요일 '주말 선수련회'를 연다. 토요일 오후 3시 입재식을 갖고 일요일 오후 3시에 회향한다. 단체 참가의 경우는 1달 전에 접수해야 한다. (02)741-4696

제30회 신라불교문화 영산대재 및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신라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신라문화 영산대제가 부산 아시안 게임 개회 기간 중인 10월 9일 경주에서 열립니다.
대승보살계 및 영산재는 불교문화 발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흥왕과, 신라 10대 성현의 한 분으로 추앙받으며 불국사 초대 주지를 역임했고 화엄사상을 널리 선양했던 표훈 대성사, 불국사를 창건한 신라 김대성 재상, 그리고 불국사 복원을 적극 지원했던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선원과 강원을 개설 하고 불국사를 대가람으로 발전시키며 불교문화 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한 월산성림 대종사 등 불국사와 신라불교문화를 이끌었던 5인의 위인 및 성사에 대한 경모의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 하오니 무루동참하시어 무량 복덕을 지으십시요.

◈ 일 시 : 불기 254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

◈ 장 소 : 불국사 경내 광장

◈ 행사내용 : 오전 10시 30분 ~ 12시 보살계 수계산림 및 설법 (3증사)
오후 1시 ~ 3시 30분 영산재 (호국영령 및 선망부모 천도재) 인화스님외 7명
오후 3시 30분 ~ 5시 예술공연 (김용국, 나훈하, 현숙, 장미화, 12인조밴드 등)

3증사 ◈ 전계대화상 혜정 ◈ 갈마아사리 성타 ◈ 교수아사리 정락

접수처 및 동참금 ◈ 보살계 : 20,000원 영가천도 10,000원
◈ 접수처 : 원주실 ☎ 054)746-9568 종무소 ☎ 054)746-9912~4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 종상

『제10회 보우제(普雨祭) 봉행』

1. 취 지 - 한국불교중흥조 허응당(虛應堂) 보우대사의 열반 437주기를 맞이하여 스님의 뜻 계승
- 정대불사 및 경판 소금씻이를 통해 불자들의 신심 고취
- 봉은불자가 한마음으로 스님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에 계승, 발전시키는 행사
- 이웃(수재민과 소년소녀 가장 돕기)과 함께하는 보우제

2. 주요행사 - 기 간 : 2546(2002). 10. 8 - 14(1주간) - 장 소 : 봉은사 경내

행 사 명	행 사 내 용	일 정	장 소
보우제 입재식(다례제)	보우대사 추모제 및 입재식(**육법공양 및 다례**)	10월 8일	대웅전
보우사상 발표회	**보우대사 문학관 중심-황패강 단국대 명예교수**	10월 8일	대웅전
보우대사 행적전시회 및 영상법문	보우대사 행적을 전시, 보우대사의 행장을 시작으로 근세 큰스님들의 법문, 영화 상영	10월8일~10월14일	보우당
강북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및 독거노인 초청 봉은사 순례	**… 이웃과 함께 …** 강북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및 강남구내 독거노인을 초청하여 봉은사 순례, 점심공양 및 코엑스 아쿠아리움 관람	10월 10일	보우당 식당
인경체험 및 판매전	판전 소장 경판을 영인하여 직접 인경을 해보고 경을 판매(한정)	10월8일~10월14일	선불당 앞
무료 차 시음회	전통 차(녹차, 보이차, 철관음, 오룡차) 시음전	10월8일 / 14일	선불당 앞
직거래 장터개설	**… 수재민과 소년소녀 가장 돕기 …** 응향각 용품과 생협용품, 직거래 작은 장터	10월6일~10월14일	진여문에서 법왕루사이
템플라이프(TEMPLE LIFE)	외국인 일일 사찰문화체험(15명)	10월 12일	진여문에서
경판 소금 씻이	경판을 소금물로 씻는 행사	10월 14일	판전 앞마당
정대불사	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계도를 돌며 말리는 행사	10월 14일	대웅전 앞마당

기도하는 도량 · 공부하는 도량 · 가족과 함께하는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산 봉 은 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Tel : 종무소 02)511-6070~4 포교실 02)516-5652 Fax : 02)544-2141

바라밀현장

해인사 수련동문회

수련 마니아 "해인사 바이러스 감염"

둘째 토요일 철야법회·3보1배 정진

참선수행과 함께 금강경공부도 병행



◇해인사 수련동문회 회원들은 9월15일 성철스님 사리탑에서 장경각까지 1시간동안 3보1배를 하며 아상(我相)이 소멸될 것을 발원했다.

아침 저녁으로 참선과 108배를 하며 수행에 푹 빠져 지내는 금련화(30·부산) 보살은 며칠 전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지난 여름 다녀온 해인사 수련회의 동문회에서 철야정진 법회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인사 수련동문회에서는 삶의 재충전 기회로 삼아볼 요량으로 수련대회에 참가했다가 이제는 '수련마니아'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동문회원들은 이를 두고 '해인사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말한다.

해인사 수련회를 거친 사람들의 모임인 해인사 수련동문회는 1995년 12월 창립됐다. 이제 갓 불교에 귀의한 사람부터 20~30여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400여 회원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른 신행단체에서는 1년에 기껏해야 2~3차례 수련대회를 가지는 것이 고작이지만 해인사 수련동문회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철야정진을 한다.

지난 9 월 14일 오후 5시 해인사 보경당. 동문회 총무를 맡고 있는 해인심(43·구미) 보살이 다른 회원보다 먼저 나와 철야정진법회 준비에 부산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자 회색 법복으로 갈아입은 회원들이 해인사 보경당으로 하나 둘 모여들었다. 이들은 20대에서 60대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오직 철야정진을 위해 달려온 사람들이다.

오후 8시 30분, 월간<해인> 편집장 원철스님의 금강경 강의가 시작됐다.

본격적인 철야정진은 오후 11시경 시작되었다. 금강경 독경, 참선, 108배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피곤한 기색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법회의 하이라이트는 15일 아침 8시 성철스님 사리탑에서 시작된 3보 1배 정진이다. "신입회원 무릎 좀 까지면 어떠냐, 해보면 좋아서 눈물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격려의 말에 힘입어 3보1배 정진을 감행했고, 모두 한 마음으로 사리탑에서 장경각에 이르는 3보1배 정진을 마쳤다.

퇴설당으로 자리를 옮긴 회원들은 마지막으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친견, 법문을 경청했다. 법회에서 스님은 큰 목소리로 회원들에게 말했다. "다들 부처 보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본성 자성을 바로 보면 문수보살도 볼 수 있고 부처도 볼 수 있습니다"

본성을 바로 보라는 큰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회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엄마를 따라 얼떨결에 수련법회에 참석한 12살 이영진(진주)군을 비롯해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무척 힘들었지만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합천=박원구 기자

"수행통한 개인 성숙 봉사 활동으로 회향"

수련동문회 **전완중** 회장



"불교의 궁극적인 존재목적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듯이 우리 모임도 개인 수행의 성숙을 통해 봉사활동 등 사회에 회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96년 해인사 수련대회에 참석했던 해인사수련동문회 전완중(불명 보장·51) 회장. 그는 지난 1월 동문회 회장이 된 이후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수행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이번 법회에서도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 4차례나 해인사를 방문한 끝에, 종정스님 친견 법회를 성사시켜 회원들이 큰 스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서울에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전회장은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다. 7년째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의 후원자로 활동하며, 남몰래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해인사 수련대회에 참가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자연히 동문회도 더 커지게 되겠죠, 그때를 대비해 우리 모임을 정례화 하고 조직화 하는데 보다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포살법회 되살리자

10월-참회의 달

- 참회는 신행의 좌표
- 포살법회 되살리자
- 참회를 통한 자기변화
- 참회의 방편
- 일상에서의 참회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서울 정토회관에서 열리는 포살법회.

법회에 참석한 60여명의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실무자들과 상근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전신 거울 앞에 선 기분이다.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실천 덕목 30 여가지로 구성된 계본이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이다. 오계를 비롯 환경운동, 통일운동의 구체적 실천 내용들을 담은 계본은 포살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의 한달간 신행 활동을 조목 조목 점검한다. '일을 할때 고는 '자두마을'에서는 매주 친구들과 모여 오계를 암송하고 '지난주 그 내용을 떠올리며 살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갖고 있다. 틱낫한 스님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명상이자 평화운동"이라며 포살법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포살법회의 중요성과 실효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포살법회를 여는 사찰을 찾기란 쉽지 않다. 초기 불교 시대부터 착실히 이행되어온 참회 의식인 자자(自恣)



◇정토회는 매월 둘째 토요일 서울 정토회관에서 포살법회를 열어, 자기 반성과 대중화합의 기회를 갖는다.

초기불교부터 보름·그믐에 행한 의식

타인의 허물 감싸안는 대중화합의 장

졸지는 않았는지',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는 않았는지',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했는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했는지' 등의 구체적 항목들은 지난 한달 간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고 만다.

포살 법회를 주관하고 있는 정토회 기획실장 장도연씨는 "일상 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는 지침을 제시해 놓은 계본에 스스로를 자주 비추어보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욱 수행자답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포살법회의 의미를 전했다.

이같은 포살법회는 틱낫한 스님이 이끌고 있는 명상공동체 '자두마을'에도 살아 있다. 포살법회를 깨어있기 위한 수행법으로 활용하와 포살(布薩)의 전통은 이제 안거기간 중이나 몇몇 사찰에서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계를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수계법회는 일반화된 반면, 반성과 참회를 위한 포살법회는 드물어짐에 따라 지계 정신이 흐려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놓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 김관태 연구과장은 "사찰별로 포살법회가 일반화되면 불자들의 건전한 신행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가 불자를 위한 포살계본 등 통일된 포살법회 형식을 잘 복원해 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천미희 기자

心 마음비추기

'배보다 마음고픈 사람' 더 많아

재칼이라는 짐승이 굶주린 배를 안고 숲 속에서 나와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강가에서 늙어 죽은 큰 코끼리 한 마리를 발견했다. 재칼은 잘 되었다 싶어 코끼리 배, 등, 발, 귀, 꼬리 등을 물어뜯어 보았다. 하지만 살가죽이 워낙 거세고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었다. 재칼은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먹을 만한 부위를 찾아보았다. 마침내 항문을 찾아내고는 머리를 처박고 파먹어 들어갔다. 어느덧 재칼은 코끼리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며칠이고 그 속에 있으면서 배가 고프면 내장을 뜯어먹고 쉬고 싶으면 쉬었다.

재칼은 이 세상에서 코끼리 뱃속보다 편안하고 풍족한 곳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재칼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이, 뜨거운 햇빛에 코끼리 가죽이 말라 들어갔고 항문도 오그라들었다.

재칼은 사방이 캄캄해졌다는 것을 알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이미 항문이 막혀 도저히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코끼리 뱃속에 갇힌 재칼은 숨이 막히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큰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얼마간의 기간이 흘렀다. 다시 밖에 비가 내려 코끼리 가죽이 느슨해지고 항문 쪽에서 햇빛이 들어왔다. 재칼은 이제 살았다 싶어 코끼리 항문을 박차고 뛰어나오려 했으나 비좁은 항문을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았다. 털이 빠지고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다시금 겪고 나서야 비로소 코끼리 몸 속에서 나올 수 있었다.

재칼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그제서야 재칼은 깊이 후회를 하였고 그날 이후로 코끼리의 모습만 보아도 진저리를 치고는 항상 먹이에 대해서 조심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

이는 <본생담>에 나오는 욕망에 따른 고통을 일깨워 주기 위한 부처님의 말씀이다. 일화에서는 사람이 욕망을 취하는데 두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을 일러주고 있다.

하나는 욕망의 대상에 대한 조심이고 또 하나는 욕망을 누리고 있을 동안의 조심이다. 욕망을 쫓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욕망의 대상은 물질이 되었건 사랑이 되었건 권력이 되었건, 그것들은 아주 고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인다. 그러다 보니 미혹한 사람들은 뒷생각을 하지 않은 채 대상을 향해 달려들게 되고 그 맛에 빠지면 마침내는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을 쫓아가더라도 그 대상이 완전한 것인지를 살피고 또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도 항상 후일을 생각하여 조심하면서 닥쳐올 불행을 미리 막는다.

요즘 시대는 재칼과 같이 음식이 없어 배가 고픈 사람들보다는 마음이 고픈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 고픈 것을 채우기 위해 항상 밖을 향해 찾아다닌다. 부처님께선 중생들이 밖을 향해 쫓아가는 방법으로는 끝내 마음 고픈 것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쫓고 있는 대상이 얼마만큼 믿을 만한 것인지, 또 누리고 있는 현 상태의 기쁨이 얼마만큼 안전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寂然

봉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 평화 성취

축

삼보에 귀의 하옵고,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나라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우선정치 사람존중사회"를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

한나라당불자 국회의원 : 하순봉, 김진재, 강신성일, 김기배, 김영일, 김용갑, 김용균, 김찬우, 김학송, 도종이, 박헌기, 손희정, 엄호성, 윤두환, 이상배, 이원형, 이인기, 이해봉, 임진출, 전용원, 정문화, 최돈웅, 최병국, 황승민

<한나라당 불자회장 하순봉외 불교신도회원> 일동

한나라당 홈페이지 : www.hannara.or.kr ◇ 한나라 도움전화 : ARS 060-700-2021 한통화에 1만원의 정성으로 세상이 편해집니다.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⑯ 분별공덕품 17

네가지 믿음(四信)

"부처님 수명 영원하다" 확신 복덕무량

믿음 없으면 부처님도 불국토도 없어

본문인 정종분을 마치고 유통분에 해당하는 17장에는 공덕의 설시(說示)를 통하여 후세에 '네 가지의 믿음'이라 불리는 <법화경>의 수행 덕목이 설해져 있다고 천태대사는 <법화문구>에서 말하고 있다.

1) 일념신해(一念信解): "만일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설법을 듣고 그저 한 생각이라도 그 가르침을 믿고 해석한다면, 그 사람이 받는 복덕은 한량없다."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잠깐만이라도 '확실히 그렇다'고 확신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 얻는 복덕은 한량없다는 것이다. 짧은 한 생각이지만 마음속으로 확신할 수 있다면 그 공덕은 6바라밀 가운데 반야바라밀을 제외한 5바라밀의 수행을 80만억 나유타 겁 동안 계속한 것보다 백배, 천배, 백천만억배를 넘어서 헤아릴 수 없다고 한다. 즉 믿음이란 그 어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부처님의 영원한 수명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약해언취(略解言趣): "만일 부처님의 수명이 무한하다는 것을 듣고 그 말이 품고 있는 큰 뜻을 이해하면, 그 사람이 얻는 복덕은 헤아릴 수 없으며 능히 여래와 같이 위없는 지혜(무상혜, 無上慧)를 얻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리라."

부처님의 수명이 무한하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믿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그 뜻을 거의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의 복덕은 한량없어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얻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다. 즉 깨달음 얻겠다는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이다.

3) 광위타설(廣爲他說): "널리 이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며 자신도 굳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남에게도 간직케 하며, 자신도 베껴 쓰고 남에게도 쓰도록 하며, 또 꽃 · 향 · 영락 · 당번 · 비단 해가리개 · 향유와 우유를 정제하여 만든 기름으로 밝히는 소등(蘇燈)으로 <법화경>에 공양하며, 그 사람이 받는 공덕은 한량없어 결국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주어 간직(수지)케 하며 서사(書寫)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갖가지 공양물로 <법화경>에 공양하면, 그 사람이 받는 복덕은 한량없어 부처님의 일체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원래 복덕이란 남에게 베푸는 것이므로 <법화경>을 널리 남을 위해 전해주는 실천행이야말로 참다운 공덕을 쌓는 일이 되는 것이다.

4) 심신관성(深信觀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는 말을 듣고 깊이 마음 속에 믿고 이해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항상 영축산에 있으면서 보살대중이나 많은 성문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사바세계의 땅이 청보석으로 되어 단단하고 평평하며, 여덟 개의 길이 서로 교차되는 곳에 염부단금(閻浮檀金)으로 경계를 하고 보배나무가 늘어서 있으며, 많은 집들이 다 보배로 지어졌고 보살 대중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는 마음 깊이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항상 부처님이 영축산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현실의 사바세계를 마치 지상의 패러다이스처럼 볼 수 있다고 한다. 앞장의 '여래수량품'에서도 "자기의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영축산에 그 모습을 나타낸다"고 설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것이 마음 속 깊이 '여래수량품'의 법문을 듣고 그것을 확신함에 의해 가능하다고 설한다.

이상 네 가지 믿음(四信)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보면 모두가 '믿음'으로 일관되어 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입멸을 눈앞에 둔 석가모니불이 사실은 아득한 옛날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여 현재에 이르고 더욱이 미래에도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으며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이것을 "우선 믿어라"고 말한다. 믿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다시 '믿음'을 깊게 하여 철저해지면 '믿음'의 결과로 부처님을 그리고 이 세상의 낙원을 볼 수 있다고 설한다.

무릇 모든 종교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이 <법화경>은 '믿음'에 의해서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세계이다. '믿음'이 없으면 2승작불(二乘作佛)도 구원의 본불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신약성서>가 '증언의 글(증언서, 證言書)'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 <법화경>은 '신앙의 글(신앙서, 信仰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⑰

책과 불립문자

사전은 '책'을 '어떤 생각이나 사실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한 종이를 꿰맨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것'이라 정의한다. 휴대하기 쉽고 보존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책은 지식과 정보를 전파 및 보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나아가 인터넷 혁명시대인 오늘날에는 전자책이란 새로운 형태의 책까지 등장,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주제의 책을 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AD 105년 중국 후한 시대 채륜이 발명한 제지술은 8세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졌으며 1445년경 구텐베르크가 활자인쇄술을 발명한 이후 이 기술은 급속히 유럽 전역에 퍼졌다. 또한 근대 자본주의 확립기인 1871년, 윤전기의 발명 이후 지식이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지식인층이 급증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지적혁명이 일어났다.

책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선가(禪家)의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은 불교경전과 주옥같은 수행지침서를 외면하라는 뜻으로 오해되고 있다. '불립문자'라는 말은 <무문관> 제6칙에 그 유래가 잘 담겨 있다. 세존께서 옛날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大衆)에게 보였으나 오직 가섭존자만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세존께서 "나에게 정법안장 열반묘심(正法眼藏 涅槃妙心), 실상무상 미묘법문(實相無相 微妙法門),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敎外別傳)이 있으니 이를 가섭에게 전하노라."라고 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불립문자'는 세존께서 깨달은 경계를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말이나 글을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그 증거로 세존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제자들을 위해 49년 간 설법하신 것(훗날 방대한 대장경으로 결집)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요즈음 달라이 라마나 틱낫한 스님의 책들이 널리 읽혀지고 있다. 여기에는 다만 독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나 지속적인 실천은 어려운), 저자들의 수행 체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내용이 글에 담겨 있다.



그림 · 문병성

이런 글을 볼 때 선 수행자가 '불립문자'라고 해서 오로지 다리만 틀고 앉아 있어서만은 정말 곤란하다. 사실 자기의 수행이 닦아지는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글을 접하다 보면 자기의 경계를 다시 확인해 볼 기회도 갖게 되며 말이나 글을 빌어 자기의 체험의 경계를 알기 쉽게 나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경계 언어로 표현 못한다"를 "수행 지침서 외면하라"는 뜻으로 오해

끝으로 필자의 스승이셨던 종달 이희익 노사의 '불립문자'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원효대사나 보조국사 같은 분들은 한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래서 어느 경전이건 자유로이 독파할 수 있었다. 거기다가 견성(見性)을 하였으니 그 학문이 더욱 명료해져(지식을 지혜로 탈바꿈시켜) 그만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겠는가! 설령 깨쳤다 해도 학식이 부족하면 깨침을 자유로이 활용하지 못한다. 활용하지 못하면 이는 '죽은 선[死禪]'이다. '산 선[活禪]'을 해야지 죽은 선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강대 물리학과
yjpark@ccs.sogang.ac.kr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㉙

禪과 21세기

멀쩡한 눈 저버리지 말라

자기의 본래 면목 확인하는 것이 '선 공부'

도(道) 배우는 이들이여! 그대들은 이 늙은 중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된 도라고 여기고는, 선지식은 불가사의하고 나는 범부의 마음이니 감히 저 노인을 헤아려볼 수가 없다고 여긴다. 어리석은 자들아, 그대들은 일생 동안 단지 이러한 견해만 지으며, 스스로의 멀쩡한 두 눈을 저버리고 있구나!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망아지처럼 차갑게 입을 다물고서, 나는 감히 선지식을 훼손하지 못하니 구업(口業) 짓는 것이 두렵다고 여긴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큰 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와 조사를 훼손할 수 있으며, 천하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대장경의 가르침을 배척하며, 어린 아이 같은 무리들을 비난하고, 순조롭고 어려운 가운데에 참사람을 찾는다. 그러므로 나는 20년 동안 업의 성품을 찾았으나 겨자씨만큼도 얻을 수 없었다. 새색시 같은 선사라면, 절에서 쫓겨나 밥도 얻어먹지 못할까 두려워 안정되지도 즐겁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옛부터 선배들은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 쫓겨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법이 귀한 것인 줄 알았다. 만약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긍정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자가 한 번 울부짖으면 들개의 무리는 머리통이 부서지는 것이다.

공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 선 공부란 바로 자신의 본래 면목, 스스로의 참 존재를 확인하는 체험이다. 그러므로 선 공부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본래 면목을 직접 확인하는 체험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고, 남에게 확인 받고 인정 받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본래 면목을 확인하면 나와 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이치로 보아서도 이 점은 분명하다.

나 자신에게서 직접 확인된다는 것은 바로 법이 나 자신에게서 실현되고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란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있는 여기에서 모든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곧 세계의 중심이다. 내가 세계라는 그림을 보고 있는 주관(主觀)이라는 말이 아니다. 참된 나는 보고 보여지는 관계 속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그저 지금 눈앞에 살아 있을 뿐이다.

보통 살아 있다고 하면 몸이 움직이고 생각이 일어나고 의식이 활동하고 느낌이 살아 있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몸이나 생각이나 의식이나 느낌을 따라 가서는 진실로 살아 있는 것을 놓치게 된다. 진실로 살아 있는 것은 몸이나 의식이나 생각이나 느낌의 움직임과 함께 드러나지만,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여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언제든 이런 인연 저런 인연 이런 경계 저런 경계가 드러나면 살아 있음이 확인되지만, 인연이나 경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있다거나 없다거나 인연을 따른다거나 인연을 떠난다거나 하는 판단을 통해서는 진실로 살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단지 몸이 움직이고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있고 의식이 움직일 때, 오직 살아 있음만이 진실하고 몸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의식은 더 이상 진실하지 않게 되어야 비로소 참된 살아 있음에 조금 접근한 것이다. 오직 살아 있음만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진실하지만, 살아 있음을 살아 있음으로 인식하거나 느끼거나 말하거나 찾거나 한다면, 그 순간 살아 있음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감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그것이 바로 살아 있음인데, 다시 살아 있음을 찾고 있으니 어찌하리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종정 진제
주지 지성
부주지 선봉

총무 진담 기획 법륜 교무 선문
기획 법륜 사회 덕현 포교 진오
호법 고경

승가대학 강주 대원 금당선원 선원장 지환 外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
전화 053)982-0101~2 팩스 053)985-4405

한국에 남방의 위빠사나 수행법이 소개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초기불교와 남방 상좌불교에 대한 관심, 특히 위빠사나 수행법을 중심으로 한 근본불교 수행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회는 초기 경전 가운데 위빠사나 수행의 가장 중요한 소의경전인 『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에 나타난 수행법을 팔리 원전을 통해 정리하고, 실제로 이 경전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는 두 가지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근본불교와 수행에 관심 있으신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랍니다.

근본불교 학술대회

- **주 제** : 『대념처경』의 수행이론과 실제
- **장 소** : 마포 불교방송 대법당 (불교진흥원 3층)
- **일 시** : 불기 2546(2002)년10월 19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주 최** : 근본불교 수행도량 흥원사 (회주 : 동주스님)

▶ **순 서** 삼귀의례와 오계

- 인 사 말 : 근본불교 수행도량 흥원사 회주 원명스님
- 축 사 : 소비타 마하테라(스리랑카)
- 기조 법문 : 우 빤디따 사야도 - 『대념처경』과 위빠사나 수행.

▶ **주제발표**

1부 : 『대념처경』과 주석서에 대한 이해 ····· 사 회 : 김재성

1. 임승택(동국대 강사) : "『대념처경』의 이해"
   - 논 평 : 조준호 (동국대 강사)
   - 점심 공양 12시 30분 - 1시 30분
2. 미산 스님(백양사 참사람 수행원 원장) : "『대념처경』 주석서에 대한 이해"
   - 논 평 : 안양규 (동국대, 경주, 전임강사)

2부 : 두 수행전통과 『대념처경』에 대한 이해 ····· 사 회 : 미산 스님

3. 일중스님(인도 델리대학 박사과정) : "고엔카 수행법과 『대념처경』"
   - 논 평 : 재연스님 (실상사, 화엄학림 학감)
4. 김재성(고려대장경연구소) : "마하시 수행법과 『대념처경』"
   - 논 평 : 안승준 (동국대 강사)
   - 종합토론 : 진행 인경스님(선상담연구원 원장)

우 빤디따 사야도(큰스님) 초청법회

우 빤디따 사야도(1921 -)는 미얀마 마하시 스님(1904-1982)의 수제자로 마하시 스님의 입적 후, 마하시 센터의 원장을 역임하신 후, 1990년 빤디따라마라는 위빠사나 수행처를 건립, 후학 양성과 위빠사나 지도에 힘쓰고 계십니다. 1988년 처음 한국에 위빠사나를 전하신 이래, 지난 2000년에는 봉인사에서, 2002년 5월에는 천안 위빠사나 수행처 호두마을에서 4주간 집중수행을 지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일정 관계상 근본불교 학술대회의 기조법문과 세 번의 특별법회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행에 대한 법문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주 제** : 일상생활과 수행
- **일 시** : 10월 20일 : 오후 2시 - 4시, 10월 21일, 22일 : 저녁 7시 - 9시
- **장 소** : 마포 불교방송 대법당 (불교진흥원 3층)
- **주 최** : 근본불교 수행도량 흥원사,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81-6
- **전 화** : 02) 822-1990, **전송** : 02) 822-1996

약탈 문화재 반환 해법은?

유네스코·문화재청 관련국 전문가 25명과 국제회의



◇'문화재 반환 촉진 및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 전문가 회의'가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9월 30일~10월 3일 서울 남산 타워호텔에서 열렸다.

제국주의 시대에 열강에게 약탈된 문화재들을 돌려받을 해결책은 없는가? 10년째 답보 상태에 빠진 한국과 프랑스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 당사국간의 문화·외교적 갈등을 넘어 국제적 사안으로 떠오른 불법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유네스코 본부와 한국위원회, 문화재청이 9월 30일~10월 3일 개최한 '문화재 반환 촉진 및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 전문가 회의'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덴마크, 나이지리아의 문화재 반환 관련 전문가와 국제경찰 인터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의 주된 관심사는 약탈 문화재 반환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례.

특히 약탈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성공 사례가 관심을 끈다. 덴마크 국립박물관 국제소장품관장인 페터 펜츠는 9월 30일 '과거 점령 및 전시 유출 문화재 반환'주제 토론에서 20세기 초 덴마크 식민지였던 그린란드에서 약탈한 문화재 3만5천여 점을 1984년부터 17년에 걸쳐 그린란드에 반환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약탈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는, 특히 소유권과 관련해 볼 때 그리 간단하지 않다. 린텔 프로트 국제유산법 자문위원은 "유물의 물리적 양도 없이 소유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원산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몇몇 원산국은 소유권 자체를 잃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또 보유국은 소유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취득했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법과 국내법이 다른 경우도 문제가 된다. 스테판 터너 독일 사르랜드 대학 교수(법학과)는 영국의 예를 들며 "원 소유주가 문화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경우에만 반환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립중앙과학원 국제법률협력센터 연구실장인 마리 코르뉴는 "반환 원칙에는 동의하나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해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반환원칙 동의하나 나라별 입장 큰 차
해외 반출 불교문화재 목록정리 시급

3만5천점이 넘는 유물 반환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박물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능했다. 각각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들은 그린란드가 자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유물을 되찾는 것과 덴마크가 자국 박물관내에 그린란드의 값진 소장품을 보유하고자 하는 희망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피터 펜츠 관장은 "문화재 반환은 문화재의 역사를 존중하기 위한 상호 의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지켜본 문화개혁시민연대 김성한 문화유산위원회 간사는 "외국의 경우 약탈 문화재에 대한 목록이라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제시대 일본으로 반출된 불교문화재의 경우 사찰의 기록이 안 남아 있거나 폐사지에 있던 유물의 경우는 아예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불교는 수준 낮다" 비아냥

박치완 교수 서양인들의 왜곡된 불교관 소개

"서양의 불교 오해 바로잡기 우리 책임"



우리가 동양 문화와 정신의 정수라고 생각하는 불교에 대해, 서양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까?

한국외국어대 박치완 전임교수(철학과·사진)가 최근 나온 <오늘의 동양사상>(예문동양사상연구원, 반년간) 7호에 기고한 '아직도 보편을 말하는가—서양인들에 비친 동양 그리고 불교'를 보면, 서양인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서양인들에게 불교는 종교도 철학도 아니다. 알베르 까뮈가 인정했던 문필가인 장 그라니에는 "불교는 반론의 가치마저 없는 아주 '수준 낮은' 종교일 뿐이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참된 고등의 종교"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불교도의 학설은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궤변" 정도로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헤겔 같은 대철학자도 마찬가지다. 헤겔은 종교를 3단계로 나누는데, 불교, 바라문교, 도교, 조로아스터교 등 동양의 자연종교를 우상숭배와 함께 최저 단계에 놓고 있다.

서양에서 동양 불교의 대가로 통하는 스즈키 박사의 <선(禪)으로의 초대> 프랑스판에 실린 구스타프 융의 서문은 거의 경악의 수준이다. 시종 '이 책은 경계하고 읽지 않으면 위험한 책'이라는 논조를 취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서양인으로서 (감히 말하건대) 불교의 선은 마치 (서양의) 어떤 신비주의자가 '계시'에 의해 자신이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떠드는 것과 같다"며 불교를 비아냥거리고 있다.

비교종교학자 프리트조프 쉬온의 <마음의 눈>은 불교는 물론 동양 철학 전반에 대한 오해의 전범이다. "불교의 선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본 사람이라면 관(觀)이 명백히 부조리한 방편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관은 둘에 둘을 더해 다섯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부조리하다."

박 교수는 "우리의 일방적인 서양 옹호 내지 흠모와 달리 그들은 동양을 향해 예나 지금이나 그저 무지의 '필날'만을 폭력적으로 휘둘러 대고 있다"며 "곡해된 동양을 있는 그대로의 동양으로, 곡해된 불교를 참된 불교로 복원해야 할 책임은 서양인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성덕대왕 신종 소리 비밀
당좌 위치에 숨어 있다

1, 2차 진동음 어우러져
저음·장중한 여운 남겨

성덕대왕신종(국보 29호). 그 신비의 소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강원대 김석현 교수(메카트로닉스공학과)는 3일 국립경주박물관의 성덕대왕신종 진동 및 음파 조사를 위한 타종행사 뒤 열린 특별 강연에서 "지난 해 10월 9일 타종한 성덕대왕신종의 음향을 측정·분석한 결과 당좌(撞座, 종 치는 자리)가 좋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2차 진동음의 교차과정에서 우수한 소리를 낸다"고 밝혔다.

즉 2.9초의 맥놀이 주기를 갖는 1차 진동음(64.07Hz, 64.42Hz)과 9초의 맥놀이 주기를 갖는 2차 진동음(168.52Hz, 168.63Hz)의 맥놀이를 모두 발생시킬 수 있는 지점에 당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2차 진동음의 경우, 당좌는 두 개의 주파수를 대등하게 발생시키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2차 진동음의 두 개 주파수가 어우러지면서 성덕대왕신종 특유의 종소리를 발생시킨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1차 진동음과 2차 진동음의 맑은 고음이 어울리면서 웅장하면서도 청명한 특유의 종소리를 내게 된다.

권형진 기자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⑵

벽화서 탱화로

불전(佛殿)에 들어가 보면, 중앙의 수미단 위에 불상이 놓여 있고 그 뒤에 후불벽화나 후불탱화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이 중심이 되는 예배대상이다. 고려시대의 사찰에는 지금과 같은 후불탱화가 없었고 후불벽화를 중앙에 세웠다. 후불벽화보다 덜 중요한 불화의 경우는 탱화로도 그려졌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바뀌지 않았다. 적어도 16세기 이전까지는 후불벽화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런데 16세기 후반에 와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후불벽화 대신 후불탱화가 등장한 것이다. 1587년에 제작된 석가팔보살도(일본 오사카 시텐로지(四天王寺) 소장)가 그 변화의 첫머리에 해당한다. 이 불화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극락적후불벽화가 공개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두 벽화는 제작시기가 불과 일이십 년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그 양식은 매우 대조적이다. 봉정사후불벽화가 고려시대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반면, 무위사후불벽화는 고려와 다른 조선적인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15세기 후반은 고려적인 벽화에서 조선적인 벽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봉정사후불벽화에서 고려시대의 모습이란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구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변의 상들은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원근법에 의하여 배치되었으나, 석가불과 양쪽의 보살은 이들 가운데 우뚝 솟아있다. 가까운 것은 크게 보이고 먼 것은 작게 보이는 것은 인간이 지닌 시각의 한계이다. 주변의 상은 인간의 한계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불과 보살은 그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고려시대 후불벽화는 한 점도 전하지 않는다. 현재 남아 있는 고려불화는 탱화이거나 사경화다. 그렇다면 고려시대 후불벽화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현재 남아 있는 탱화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 이러한 의문들을 한꺼번에 해소시켜 주는 것이 봉정사후불벽화이다. 봉정사후불벽화는 무엇보다도 고려시대 후불벽화를 떠올리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16세기 후반 큰변화… 벽화 대신 탱화 등장
조선초 봉정사 후불벽화 고려불화 계승

오래된 후불탱화이다. 이 불화를 통해 임진왜란 이전에 후불탱화가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후불탱화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된 시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17세기 이후이다. 양란을 전후한 시기에 벽화의 시대에서 탱화의 시대로 옮겨 간 것이다.

1997년 1월 16일 봉정사 대웅전의 후불탱화 뒤에 가려져 있던 후불벽화가 세상에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벽화는 15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조선초기 후불벽화의 중요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15세기의 후불벽화로는 봉정사후불벽화가 처음이 아니다. 1973년에 1476년에 제작된 무위사



◇조선초기 후불벽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봉정사 후불벽화.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대승종

종정 도암 성도

원로원장 법효 서봉
종회의장 법정 만춘
총무원장 법도 일오
종회부의장 법철 헤심
포교원장 법운 기현
법계원장 법성 대이
사서실장 법명

▷ 총무원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 1동 186-19
☎ 031)448-8811 FAX 031)448-8006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 일
상무이사 선 근

이사 혜운 도형 도의 범추 성열 정관 법진
동진 경순 자민 성우 상원 정덕
감사 대허 법운

·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

▷재단사무국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우110-240)
☎ 02)734-9654~6 FAX 02)734-3410

'아난' 은 과연 열등한 인물이었나?

깨달음의 신화



"선불교 무엇이 문제인가" 비판적 질문

두 인물 상징화…조사선엔 엘리티즘 엿보여

"선불교의 역사는 '충실한 닮기'와 '새로운 원형'의 창조라는 두 가지 욕망이 뒤엉켜 진동하는 가운데 빚어낸 것이다. 선가에서는 부처의 원형됨을 말이나 글이 아니라 마음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는 이후 선불교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

불교의 원형은 해탈이요, 깨달음이다. 좀더 즉물적으로 상징화되면 석가모니 부처가 된다. 적어도 선불교의 등장 이전까지만 해도 부처의 위상은 확고했다. 아무도 그의 원형됨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 자리를 넘보지도 않았다.

그러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와 선불교를 지향하면서 부처를 대신할 상징으로 고안해 낸 것이 조사(祖師)이다. 이로써 부처의 원형됨을 보존하려는 세력과 조사를 새롭게 원형의 자리에 앉히려는 세력들 간에 치열한 세력다툼이 벌어졌다.

<깨달음의 신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불교에 대한 환상을 깨부수는 책이다. 하지만 그 깨부숨은, 당시 사회적 상황과 경전, 조사어록 등을 근거로 한 불교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스러움이 느껴지거나 저항감이 생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이끌어내는 파격의 힘에 매료당하게 된다.

'가섭살리기, 아난죽이기' '문의 이미지' '중의 형이상학' '의지의 미망' '믿음과 바람' '회통과 일치, 그 참을 수 없는 변방에 대하여' '방편의 이미지' '노동과 선' '익숙해지기에는 너무 낯선 어떤 것에 대하여' 등 흥미로운 주제와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의 화두는 무엇이어야 하며, 지금 선불교는 오늘의 문제에 어떠한 해답을 주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새로운 가설과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저자의 글쓰기는 우리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 책의 맨 첫 부분인 '가섭살리기와 아난 죽이기'편은 무척 흥미롭다. 제목에서부터 모종의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저자는 확신에 찬 어조로 천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선불교에서 부처의 수제자인 가섭에 대한 신화를 맹렬히 비판하고 나선다. 여기에 반해 아난에 대해서는 강한 지지를 보낸다. 석가모니 부처를 평생 곁에서 모시며 뛰어난 기억력으로 모든 경전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섭의 그림자에 가려 철저히 매장당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선불교의 문자멸오증은 가섭 살리기라는 상징적인 작업과 더불어 사상사적으로 교종에 대한 선종의 정통성 확보, 그리고 인도 불교에 대한 중국불교의 독립선언이라는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또 선불교에서 아난과 가섭이라는 두 인물을 상징화 하는 작업에서 우리는 선불교의 또 다른 한 측면, 즉 선불교에는 일종의 불교적 엘리티즘이 잠복하고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 책은 선불교에 대한 비판적 검토다. 선불교의 경이로움이야 물론 용인하지만, 그 경이로움에 매혹되어서는 안되며, 선의 본질적 지향점을 찾아가자는 것이 핵심이다.

저자 박재현씨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불교철학을 전공, 석박사를 모두 마쳤다. 현재 서울대와 경희대에 출강중이며, 선불교를 주제로 논문을 집필중이다. <無로 향해 기어가는 달팽이>(시공사, 1998)를 집필했으며, <선불교의 정통성에 대한 의지> 등 몇 편의 논문이 있다. 2002년 교수신문사 주최 제1회 학술에세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푸른 역사, 1만2천원>

이은자 기자 eisee@buddhapia.com

새책소개

풍경소리에 귀를 씻고



이 책은 지난해 봄 화가 이호신씨가 가졌던 다섯번째 개인전 '산수와 가람의 진경'에 맞추어 펴냈던 것을 신국판으로 판형을 바꾸고, 스케치와 몇몇 그림을 빼서 부피도 줄여 개정 보급판으로 다시 펴낸 것이다. 답사여행기 성격을 지닌 이 책에는 여행 때에 미처 보지 못했던 사찰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난다.<해들누리 刊, 1만3천원>

유년의 우물



홍글자 시집 <유년의 우물>은 자연과 인간, 신앙, 사회 문제 등을 소재로 소박하고 진솔하게 그려냈다. 현재 시마을 문학회 대표인 홍씨는 "15년이란 시간을 시와 같이 했으면서도 아직 햇살만을 받아 빛나는 나뭇잎 같은 시를 쓰지 못했다"고 겸손해 하며, 눈부신 시를 쓰기 위해 더욱더 노력 할 것이라 말한다.<마을 刊, 8천원>

행복을 여는 부처님의…



제주도 약천사 회주인 혜인스님이 불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당연히 알고 닦고 익혀야 할 덕목들에 대해 설한 법문집이다. <효림 刊, 3천5백원>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느티나무가 있는 풍경

"느티나무 그늘에 한 번 만이라도 앉겨나 누워 보십시오. 굳이 고향 느티나무 그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모든 느티나무는 형제거든요. 아니 이웃사촌의 너른 가슴과 깊은 아량을 지녀서 누구든 밀어내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서늘한 그늘뿐이지만 그 밑에 가면 잃어버린 것들과 꿈꾸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정동주씨는 <느티나무가 있는 풍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농촌 사회에서 느티나무는 마을 사람들과 뗄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었다. 또한 동네 어귀에 서서 하늘의 신이 항상 인간과 마을을 보살펴 주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 준 것도 느티나무다. 느티나무는 '느티 당산' 즉 '신수(神樹)'라 불린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나무다.

이 책은 마을 있는 곳이면 어디서건 볼 수 있었던 한 그루 느티나무를 통해 느티나무에 얽힌 사연, 느티나무가 마을에서 갖는 상징성, 느티나무 아래에서 행해졌던 마을 공동의식 등 갖가지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우리의 잊혀진 문화와 삶의 근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그 의미를 찾으려는 이름 출판사의 '한국의 뿌리 시리즈' 중 두 번째 권으로 정시인의 섬세한 감수성으로 느티나무 그늘 밑의 사라져가는 한국인의 풍경을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글로 형상화했다. 사진작가 윤병삼씨가 찍은 각 지방의 느티나무 100여 컷이 곁들여져 한층 생생한 감동을 전한다.<이름 刊, 1만5천원>

불교의 현대화, 현대의 불교화 제시



현대인의 불교

<현대인의 불교>는 정병조 박사(동국대 교수,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불교인으로 느꼈던 점들을 진솔한 어투로 현대인들에게 표현한 고백이다.

이 책은 정 박사가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언론 매체에 실었던 글 가운데 가려 뽑은 것으로, 불교가 현대화되고 현대가 불교화 되어야 겠다는 한가지 주제로 다시 다듬어진 것이다.

정 박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부처님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난 격변의 시대지만 삶의 본래 모습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대인들에게 삶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출간 의의를 밝혔다. <한국불교연구원출판부 刊, 9천원>

"나는 누구인가를 물은 작품"

인터뷰 소설 '염소' 펴낸 김성동 씨



"작가는 모국어의 파수꾼이어야 해요. 요즘 소설의 거의 대부분이 문장과 말투, 사유, 철학까지 우리 것이 아닌 서양의 것을 이야기하지요.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소설가 김성동씨는 만나자마자 서양의 복문 구조를 닮아가고 있는 우리 소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의 산방에서 생활한 지 1년 정도가 된 시점에서 소설 <염소>(청년사 刊)를 펴낸 김씨는, 이 소설 <염소>에서 자신의 이런 생각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 <염소>는 신작이 아니다. 1980년 5·18직후 <죽고 싶지 않았던 빼빼>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던 소설을 다시 손질해 내 놓은 것이다.

살아있는 것에 대한 사랑 그려

김씨는 "서정적인 것이 저항적인 것이라는 조금은 유치한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었는데, 몇 년전 다시 보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싶어서 지난 1년간 세 번이나 읽어가며 손을 봤다"고 밝혔다.

어느 봄날 이 세상에 태어나 꼭 여덟 달을 살다가 죽은 흑염소 '빼빼'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의 화두는 생명이다. 작가는 흑염소의 눈을 통해 존재의 이유와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김씨는 이 소설에 순우리말 60개에 대한 주를 달았다.

"소설 쓰는 일을 한다는 것이 업(業)이 많다는 것인가 봅니다. 보장된 공간 속에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처열하게 작두 위에 올라서야만 소설이 된다는 말이지요"라고 말하는 김성동씨.

김씨는 내년 초 집을 버리고 산 밑에서 생활하는 중년 사내의 이야기를 다룬 중편 소설<산>과 시리즈로 기획된 <신돈> <묘청> <궁예>의 이야기를 연이어 내 놓을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이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금강경이름다운우리말경전1	우룡스님	효 림
3	바로 이번 생에	우빤디따	불광출판사
4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	김 영 사
5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 화 동	은행나무
6	깨침과 깨달음	박 성 배	예문서원
7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김 용 옥	통 나 무
8	평화로움	틱 낫 한	열 림 원
9	미오지간	성 운 스님	불광출판사
10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달라이라마	김 영 사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우선동이
글 원성스님 원동회 그림 원성스님 /225쪽/값8,500원
잊혀진 동심을 화폭에 담는 원성스님, 그 맑은 감동을 글로 빚어낸 또 하나의 책!
향기 있어 아름다운 세상
차한잔의 풍경
혼탁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차향이 넘치는 맑은 햇차와 같은 진한 감동의 글과 그림!
글 담원 김향배와 다인들 그림 담원 김향배/305쪽 /값13000원
솔과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276-1 계전B/D 5층 전화 02)725-8655 / 팩스 02)725-4656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삼마님께 감사드리며 고객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주문처 서울(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뒷모습

뒷모습서 포착한 삶의 진실

미셸 투르니에 · 글
에두아르 부바 · 사진



◇어린 아이의 어깨에 내려앉은 긴장. 가감없는 심경의 표출.

비주얼의 시대여서인가. 요즘 서점가에는 유난히 사진이나 그림 위주의 책들이 많이 눈에 띈다.

그 책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뒷모습>은 작고한 프랑스의 사진작가 에두아르 부바(1923~1999)의 사진에 프랑스의 소설가 미셸 투르니에(78)가 글을 붙인 사진 에세이다.

사진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 투르니에는 부바의 사진에서 뒷모습에 얽힌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54장의 사진에 곁들인 지극히 시적인 투르니에의 산문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뒷모습에 담긴 풍부한 표정에 감탄하게 된다. 그리고 뒷모습이 수만가지 얼굴 표정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한다. "너그럽고 솔직하고 용기있는 한 사람이 내게 왔다가 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것이 겉모습에 불과했었음을 얼마나 여러번 깨달았던가. 돌아선 그의 등이 그의 인색함, 이중성, 비열함을 역력히 말해주고 있었으니!" 그래서 투르니에는 뒤쪽의 진실을 찾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채소밭을 걷는 사람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다. 화려한 난간과 조각상, 꽃장식이 둘러진 분수로 치장된 채소밭. 한때 아름다운 부인과 멋진 신사들이 거닐었을 화단에는 이제 양파와 배추와 감자가 촘촘히 심겨 있다. 그러나 사실 이 사진의 진정한 뒷모습은 "이제 채소밭으로 변해버린 지체 높으신 분의 정원"이라고 투르니에는 적는다.

이밖에도 칠판에 쓰여진 곱셈 문제 앞에서 긴장하는 아이의 어깨, 파리 패션쇼 무대 뒤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모델의 뒷모습, 얌전한 자태로 앞으로 보는 처녀에게 말을 건네는 청년의 설레임으로 가득한 등, 아이를 꼭 껴안고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젊은 어머니의 뒷모습, 따스한 햇볕이 내려앉는 창턱에 앉아 장미나무를 바라보는 고양이의 뒷모습, 신을 향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의 등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애틋하고, 때로는 코믹한 사진과 글이 우리로 하여금 사색에 빠지게 한다.

칠판 앞에서 긴장하는 아이의 어깨
표정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

이 책의 번역을 맡은 고려대 불문과 김화영 교수는 "프랑스의 중고서점에서 지난 93년 발간된 이 책을 발견하고 바로 번역에 돌입했다"며 "우리의 눈높이를 올려주는 미적 균형"에 매료됐다고 전한다.

뒤편의 진실을 포착해 살아 움직이는 삶의 앞모습을 기대하게 만드는 균형. 냉소적이지 않은 그 균형 감각이 잘 전해지는 책이다. <현대문학 刊, 2만원>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철학의 역사

2,500년 서양철학 강의노트

철학사 하면 으레 한손으로 들기도 버거울 정도로 두껍고, 깨알 같은 글씨에 빽빽한 편집의 재미없는 책쯤으로 여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철학의 역사>는 그러한 우려를 싹 가시게 한다. 2,500년 서양 철학의 역사를 그림책 보듯이 즐겁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역사, 정치학, 경제학 분야의 학위를 받은 철학자인 브라이언 매기가 기존의 독일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입체적 서술방식으로 서양 철학의 역사를 400여 장의 원색 그림과 사진으로 펴낸 것이다.

독일 중심 서술방식에서 탈피
사진 · 그림 400여장 … 이해 도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하여 현대의 러셀, 비트겐슈타인, 사르트르, 포퍼를 지나 미래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주요 철학자와 사조를 시대순으로 나누어 정리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정치철학, 과학철학, 미학, 종교철학, 도덕철학 등 인간 문화사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철학의 모습 또한 놓치지 않고 있다. 철학자의 사관과 용어, 주요 저서, 관련 인물,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문화나 역사적 사건 등을 정리하여 인문학적 호기심도 충족시켜주는 등 철학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담 없이 읽는 교양서의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확고하고 명료한 철학관이 돋보이는 이 책의 스타일은 마치 화려한 화면으로 구성된 텔레비전의 교양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하다.

'참 모습을 보기 위한 노력, 동굴의 비유' '쇼펜하우어가 세상에 남긴 위대한 유산' '우리 시대를 변화시킨 아인슈타인의 혁명, 상대성 이론' 등 재미있는 주제로 이루어진 테마별 글상자를 통해 단순히 철학을 정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대한 철학자의 문제에 독자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책의 매력이다. <시공사 刊, 1만8천원>

이은자 기자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전문가 서평

틀에서 장난감 인형을 찍어내듯 같은 사람을 동시에 수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참으로 가공할 시대를 살고 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학과 최첨단 의료기기는 함부로 죽게 놓아두지도 않는다.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게 되었다. 식물인간이 되어서도 나이를 먹고 이래저래 사회는 자연히 고령화 추세로 치닫고 있다.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살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죽음에 대한 고통과 회의는 배가되기 마련이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만났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좋을지 해답을 손에 쥐어 줄 것 같은 제목이었다. 책을 펴들었다. 일흔의 나이가 된 저자 알폰스 데켄은 독일 태생의 가톨릭 신부로 미국 포덤대학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를 취득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의 조지(上智)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본방송 NHK의 '인간대학'이라는 강좌에 출연하여 '죽음,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강의했는데, 그 때 사용된 텍스트가 바로 이 책의 모태가 된 것이다. 본문은 17장으로 나뉘어 있고 '죽음을 응시할 때', '남겨진 가족의 슬픔', '삶을 끝맺는 방식',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다' 등의 소제목이 붙어있다. 그러나 방송원고여서 그런지 주제가 깊이 있게 천착해 들어가지 못하고 토막글이 된 듯싶어 아쉽고 미진한 감이 없지 않았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죽음선언서 · 연령층별 준비교육 필요
"'이제 그만…' 했을 때 죽음 왔으면…"

아무래도 이 책의 핵심은 제 7장 '존엄한 죽음과 안락사'가 아닐까 한다. 환자의 정신이 온전할 때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언서를 작성해 둔다는 것이다. ①치료가 불가능하게 될 때, 죽는 시간을 미루기 위한 연명조치는 일체 거부한다. ②최대한의 고통완화를 위해 마약을 쓰다가 부작용으로 일찍 죽는다 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③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을 땐 생명 연장 조치를 중단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안락사 문제가 대두되고 살인죄로 의사가 기소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 암으로 투병하던 재클린 케네디 여사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일체의 의료행위를 거부한 기사를 본 것도 그리 오래 전의 일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50개 주 중 49개 주에서 건강할 때 존엄한 죽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두는 리빙윌을 이미 법제화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이다'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 14장에서 보여준 '호스피스'의 활동 중 '음악요법의 효용'은 자못 인상적이었다. 환자의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어 통증이나 스트레스를 이완시켜주고 즐겁게 보낸 시간을 회상하게 해주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간단한 악기를 익히도록 전한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무슨 무모한 짓인가 하겠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삶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유아 · 청소년을 위한 죽음 준비교육, 대학생 · 중년 · 노년을 위한 죽음 준비교육 등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짚고 있다. '바람직한 자원봉사자의 모습'이라든지 '사후생명에 대한 기대'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가을을 맞아 남은 삶을 되돌아보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보는 계기가 되도록 일독을 권한다.

가로수에 나무가 붉게 물들 이맘 때 쯤이면 릴케의 시구가 화두처럼 마음을 붙잡는다.

'주여! 저마다 자신의 죽음을 죽을 수 있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바라는 죽음을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온전한 정신으로 자신의 존엄을 생각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임종의 어느 때가 도래하면, 나는 떠나려고 하는 시간과 그 끊어지는 시간이 적절히 맞추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어떠한 경위에서건 '이제 그만'하고 죽음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죽음이 모두에게 찾아와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것이 어긋나는데서 비극이 생긴다.

맹란자 / 수필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독일 태생의 가톨릭 신부이자 일본 생사학의 대부인 알폰스 데켄이 40여 년 동안 연구한 삶과 죽음에 대한 안내서다. 이 책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들을 정리하여,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책 전체를 통해 저자는 존엄한 죽음, 인간다운 죽음을 강조하며, 호스피스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것을 권한다.(궁리 刊, 9천원)

▶더 읽기◀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동서양의 성현, 석학의 생사관을 요약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문학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기술했다.(예림기획 刊, 1만6천원)

〈나이 드는 기술〉=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루아의 산문. '나이 드는 기술'이란 뒷세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비치게 하는 기술이라고 한다.(나무생각 刊, 7천5백원)

〈그리고 죽음〉=중년 부부의 죽음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다. 성장과 소멸, 삶과 죽음의 의미를 고찰한다.(열린책들 刊, 8천5백원)

현대불교신문사

"스님 · 불자님"
부다피아 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 · 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여시아문"할인
- 불교전문쇼핑몰"마하몰"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02-725-1132
대표)02-737-8881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드



악마이야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자 악마가 나타나 부처님을 유혹했다는 불전의 이야기는 흥미롭다. 부처님께서는 악마의 유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용감한 군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너와 결전하리라. 나는 너의 군대를 잘 알고 있다. 너의 제1군은 애욕이다. 제2군은 의욕상실이고 제3군은 주림과 목마름이다. 제4군은 갈망이며 제5군은 비겁이다. 제6군은 공포이며 제7군은 의혹이다. 제8군은 분노이며 제9군은 슬픔이다. 그 위에 명예욕까지 갖추고 있다. 자아 어떠냐, 나는 너의 군대와 싸우겠노라. 나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알고 있다"

이상에서 악마의 군대는 열 가지로 파악된다. 그런데 그 군대의 성격은 매우 이채롭다. 모두가 우리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이기 때문이다. 애욕은 본능에 속하며 원초적인 속성이다. 종족의 영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느끼게 되는, 그래서 약간은 맹목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처럼 맹목적인 행동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질서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지배와 파괴의 본능이 잠재되어 우리들을 조종하려고 한다. 분노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혹은 자신과 연결된 안팎의 확산이 좌절되었을 때, 자신의 의지대로 사물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느끼는 심리적 상태다. 그래서 욕망과 갈애, 분노, 저주, 슬픔 등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의욕 상실은 절망을 의미한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받아 자신의 의지나 의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지하철 역사나 길거리에서 잠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알콜중독자들 등이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린치를 받고 절망에 허덕인다.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다. 죽음보다도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반면에 그러한 문제는 그들 자신이 해결하지 않는 한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기보다 부단한 자기개발을 강조하게 된다.

또한 비겁하다는 것과 공포는 무엇인가. 자신감의 결여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실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비겁과 공포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생존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이것을 유애(有愛)라 표현하기도 한다. 아무리 고상한 이론과 철학을 설명하더라도 그것이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철학의 공허함을 말하기도 한다. 설사 고상한 이론과 철학을 알고 있으며,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것이 유애이다. 이것은 학식과 부귀의 유무를 떠난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라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서술되고 있는 악마의 군대는 우리들이 일상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상적인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악마의 정체를 알 수 있게 한다. 악마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악마라 표현해서 친근감은 가지 않지만 그것은 나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너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존재와 욕망에 끄달리지 않는 마음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뮤타 니카야>에서 5온이 악마라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일체의 사물은 5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을 비롯한 동물군은 특히 5온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몸, 느낌, 생각, 의지, 지적 분별 등으로 표현되는 5온은 각각 우리들을 집착하게 만든다. 전술한 열 가지를 통해 5감을 만족시키려 하지만 그 욕망은 끝이 없으므로 결국 우리들은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점에서 악마라 표현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악마의 군대에 의해 동요하거나 집착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출가 수행자들은 이들의 포로가 되거나 그것에 연민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잡아함경>을 보면 "동요하면 악마에게 결박당하고, 동요하지 않으면 해탈 한다"고 말한다. 특히 5온이 동요하면 악마의 포로가 된다는 점을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일러주고 계신다.

부처님, 오온(五蘊)을 악마로 선언

해탈은 10가지 악마 심리상태 벗기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5온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악마는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부파불교시대가 되면 악마를 번뇌란 말로 바꾸어 놓게 된다. 번뇌는 klesa 혹은 kilesa란 말을 번역한 용어인데 '집착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엇에 집착하는 것인가. 5온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번뇌 역시 인간이 있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마나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의 자유를 만끽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악마의 군대로 표현된 열 가지 요소들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흔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표현되는 3독의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 악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불살생' 세 글자가 바로 선법

득도엔 수미산 넘을 '대분심' 필요

세수 80의 노구임에도 어떤 법회에서 초청해도 마다하지 않고, 누구든 찾아오면 격을 두지 않고 만나시는 황대선원 조실 성수(조계종 원로의원) 스님. 경남 함양군 안의면 황대마을 뒷산에 보금자리를 튼 황대선원에는 해제철임에도 불구하고 30여 재가자들이 정진하고 있었다. 20세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정진의 힘을 얻어 효봉, 구산, 인곡, 청담, 성철 스님 등 당대의 쟁쟁한 선지식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성수스님의 회상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지금 절은 죽은 땅이야. 중은 고질병이 들었어. 새 땅에 새 인재를 길러야해."

나라와 인류를 구원할 '새끼 사자'를 키우는 데 여념이 없는 스님은 경남 산청의 한 폐교를 단장, 전문 참선도량으로 문을 여는데 여념이 없었다.

스님을 만나 한국 선불교의 문제점, 과제 등을 여쭈었다.

◆21세기에 선(禪)이 인류문명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참선하라는 사람도 모르고 권하는가 하면, 참선하는 이도 그 의미는 고사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아는 이가 흔치 않습니다. 범부의 탐진치 삼독만 무너지면, 그 시간부터 선입니다. 중생심으로 천년, 만년 앉아봐야 앉은뱅이 연습이 될지 몰라도 선하고는 거리가 십만 팔천리라. 선을 확실히 모르고 선을 하느니, 닦느니 하는 말은 구두선(口頭禪)이라 잘못하면 구업을 지었지, 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팔만대장경의 내용은 '생사해탈법', '생사자재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살생(不殺生)'이라는 말은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위해 '죽지 말라'고 간곡히 설한 뜻입니다. 그러니 '불살생' 이 석자가 바로 선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불도는 왜 닦아야 하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닦고 무엇 때문에 불도를 닦는지를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전에 해결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불도를 닦아야 합니다. 우물쭈물 미루다 보면 수만 겁이 지나도 불도와의 거리가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발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발심을 하고 나면 '쇠뿔을 단김에 빼라'는 속담처럼 대분심(大憤心)이 필요합니다. 불도는 익혀서 연습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냐' 혹은 '저것이냐'를 일도양단하는 것입니다. 일초도 늦추지 말고 용기와 분심을 내어 수미산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불도의 맛을 조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원효 스님에 대해 특별한 존경을 보이신다고 들었습니다. 원효 스님의 삶이 시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17살 되던해 고향 울주에서, 영웅호걸들은 도인들을 만나 도를 배웠다는 말을 듣고 원효스님 같은 도인을 만나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운수행각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산문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동래 범어사에 도착했습니다. '원효대사 같은 도인이 있으면 나와 보시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 동산스님이 나오시더군요. 그래서 내가 '스님들이 산좋고 물좋은 곳에 고대광실 같은 집을 지어놓고 놀고 먹는데 전국민이 출가해서 절에서 놀고 먹는다면 누가 그 식량을 댈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속시원하게 답해주지 않는다면, 이 절을 불태워버리겠습니다'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동산스님께서 '참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네'하시면서 내 등을 두드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 통도사 조계암에 들어가 수도를 하다가 은사이신 성암스님을 만나 출가하게 됐고, 은사스님의 권유로 원효대사가 공부했던 함백산 토굴에 움막을 지어 10년동안 풀만 뜯어 먹으면서 수행했습니다. 원효대사 이후, 300년이전 진묵대사

삼독심



가까이

성 수 스

성수스님?

성수 스님은 8년 전 대나무가 유난히 많은 황석산 아래 토굴 한 채를 지었다. '큰스님이 계신 곳'으로 소문이 나면서 승속을 막론, 스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는 구도자들이 늘어났다. 스님 문하에서 참선하기를 청하는 불자들이 점점 늘어나 법당과 시민선원 등이 잇달아 들어섰다. 이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그릇에

가르침은
서운 회초
산청에 5
한 스님은
근성있는
각이다.

1923년
성수스님은
서 성암 스
년 부산 범

'새끼 사자' 기르는것 필

맞추어 참선을 닦을 수 있는 '도량'을 열겠다는 스님의 원력과도 일치하는 불사였다.

출가이후 매일 새벽 2시반에 일어나 예불 및 참선하는 일과를 한번도 거르지 않은 조실 스님. 80 고령에도 법을 청하는 불자들을 위해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는 스님의 자상하고도 말없는

계사로 구
조계종 총
범어사 해
년 세계불
최) 한국 대
원장 등을
종 원로회
양 황석산
하고 있다

하루 첫말 한마디
첫 걸음은 무게있
매일 5분만이라도

뒤로는 나라와 중생을 살리는 도인들이 흔치 않
요."

◆해인사에서 효봉스님 문하에서 공부
때 '천하의 만물은 무비선(無非禪)이오 만
은 무비도(無非道)'라는 개오(開悟) 일성(
聲)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깨닫기 전
'산과 물'과 깨닫고 난 후의 그것은 다른
이 있습니까?

경명주사로 직접 제작한 불서화의 대가
태광 선사의 행운의 달마 길상도



▷백팔달마 팔문 재수부 ▷12띠 수복 달마
▷달마 백족도 ▷금분 붉자 달마(색상지) ▷붉자 반야 심경

* 각종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모전, 한국예술상. 대상 및 수상다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 현, UN IAEWP 한국대표부 문화예술 전문위원.
* 현,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각종 문화국장.
* 현,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득심사 후원회장

불사 주문 신청 : 국민은행 075-01-0349-506 득심사
전 화 : 02)839-7829

판매금액의 일부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기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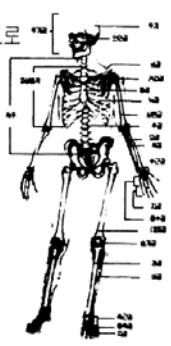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화엄기도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고통과 괴로움은 자신이
지은 죄
병의 원인은 인연
따라 오는 법
고침도 인연 따라
낫는 법입니다.



■적용사항 : 원인 모를 병고 마음 병(정신)
■문 의 : 031-336-3734
011-9711-3734

경기도 용인시 중앙동 325-8
해 원 사

고차원치유에너지 활용법 전수! 이제 전세계 비만인의 고민은 사라진다!!
비만완전탈출!! 지도자모집

세계최초 부산에서 전격 지도자 양성. 질병으로 변형된 DNA를 정상적인 DNA로 복원시키는 체계화된 학문교육, 약이나 氣등의 도움이 없다.

대 상
◆가족의 난치병 간호에 고통을 겪고 계신분
◆해외이민 희망자
◆先見之明의 지혜를 가지신 남 · 녀
◆인기폭팔 비만 및 피부미용 샵 운영 예정자

교육과정
◆비만 및 난치병 조정법 6일간의 속효 조정법으로 최고의 고등본능 방법술 전수
◆십이종 지능과 십이종 의식 구조학의 고난도 핵융합방법 전수
◆부작용이나 요요현상이 없다

본학문을 전수받고 난후 당신은 아래와 같은 능력자가 된다!

1. 배운대로 하면된다 (살찌게 하는 DNA를 교정, 마르게 하는 DNA를 교정)
2. 피부가 더욱 아름다워진다
3. 상대를 하루 1~2시간 6일을 조정해주면 된다
4. 6일 이후 부터 비만 당사자는 자율적으로 자기본래의 표준골격을 되찾기 위하여 불필요한 체지방을 몸밖으로 자동배출 하게 된다. 부분비만은 물론 제아무리 거구의 비만인이라하더라도 옛날에 입었던 옷을 꺼내입게 된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놀랍다! 과연신기하다! 라고들 하나 믿기 어려운 기적같은 현실임)
5. 감기도 암도 같은 맥락에서 원상회복된다
6. 난치의 비정상 세포를 몸밖으로 배출시키고 복원시키는 비전의 학문을 전수받으시기 바람

※ 치료불능의 괴질이 바생하더라도 본학문을 전수받은 당신은 능히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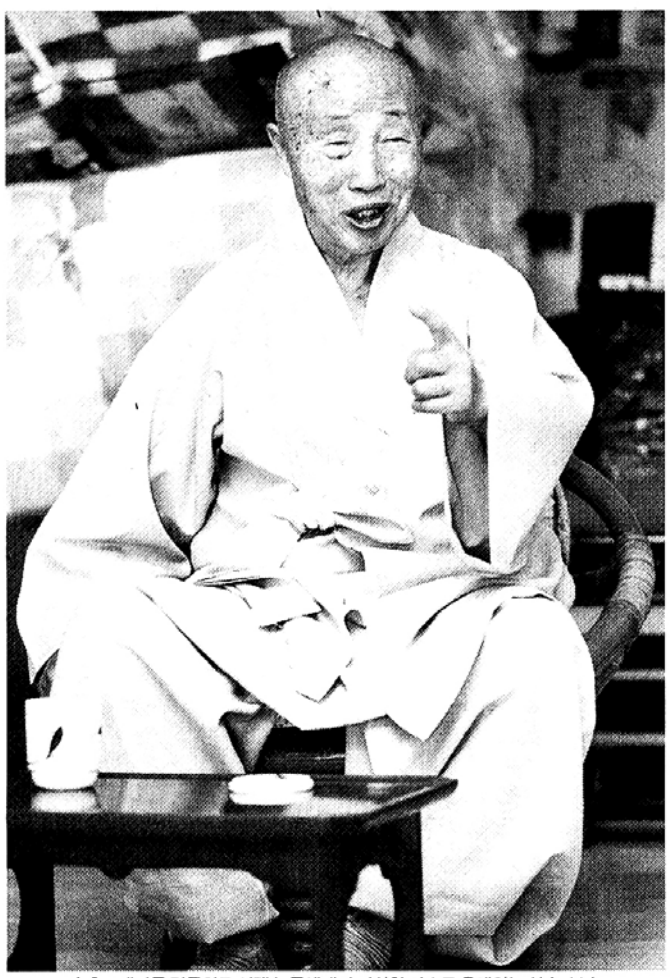
서울지역 문의처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608-1
051) 805-3568~9 019-831-8351

高次元治癒에너지 人體適用硏究學會

너지면 그때부터 禪

큰스님

(황대선원 조실)



◇출 · 재가를 막론하고 선객 누구에게나 자상한 미소로 응대하는 성수 스님.

에게 더욱 매
고 있다. 최근
폐교를 임대
도량을 열어
자'를 키울 생

에서 태어난
부산 내원사에
사로 득도, 48
동산 스님을

원력

지했다. 67년
부장, 조계사
운사 주지, 78
대회(일본주
조계종 총무
다. 현재 조계
이며, 경남 합
조실로 주석

도록

고

집중

"마음의 문이 쳑 열리고 보면 천하 만물이 선(禪)
아닌 것이 없고, 세상의 만 가지 일들이 다 도(道) 아
닌 게 없습니다. 눈을 뜨고 보면 나무와 돌도 도(道)
를 알려주고, 밥솥도 도를 알려주며, 발길에 차이는
이 모두 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선법(禪法)을 자득
自得)하니, 산산(山山) 수수(水水)로다.' 산수 이대로
가 선이지, 선에 무슨 다른 도리가 있는 줄 알면, 경
계에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선(禪)은 산상(山上)
의 석두(石頭)와 같고, 선은 산상의 고목(古木)과 같
습니다.'"

◆스님께서는 '성품을 본 뒤'의 오후(悟後) 수행이 더 어렵다고 하시고, 선지식 만나는 것이 구도자에게 절대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집을 지으려면 목수를 찾아야 하고 글을 배우려면 학자를 찾아야 하듯이 식음을 전폐하듯 하고 도를 닦으려면 명안종사(明眼宗師)를 친견해야 합니다. 생사 자재한 법을 구하기 전에는, 애간장이 녹을 듯 정진하여 무애춤을 춘(初見性) 뒤에 눈 밝은 선지식에게 물어서 실오라기만큼도 헛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서둘러서도 안되고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야 합니다. 묻지 않고 가다가 한 발만 헛놓으면 무간지옥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산은 갈수록 높고 물도 갈수록 깊습니다. 도를 안 뒤가 더 어렵습니다."

◆깨달음 후 수행의 단계를 여쭙는 것은 외람된 질문인지요?

"기자가 아직 견성을 못했으니, 견성한 이후에 찾아오면 일러주리다. 다만, 자연과 비유해서 말하자면 식물의 씨가 삼일, 오일, 칠일 안으로 대개 싹이 트듯이 참선하는 사람도 대개 그 동안에 눈을 뜨지만, 실은 견성 다음 즉 오후가 더욱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싹이 튼 씨는 물보다도 연한 그 촉이 굳은 땅에 발을 내려 잎이 나오면 선지식이라 하고, 그 속에서 줄기가 나오면 조사(祖師)라 하고, 꽃이 피면 보살이라 하며, 열매가 익으면 성불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를 증득하는 과정도 1지(一地), 2지, 3지, 내지 10지, 등각(等覺), 묘각(妙覺), 대각(大覺)의 순서를 하나도 빼놓아서는 안됩니다."

◆요즘 한국 선불교의 문제점으로, 선지식을 찾기 어려움으로 해서 법거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은 화두(話頭)를 얻어 시작하는 것인데, 제방에서 화두를 주는 이도 많고 또 화두를 타 온 이도 무수히 많지만, 부처와 가섭 사이에 오고 간 것이 미소(微笑)인지, 비소(非笑, 비난하는 웃음)인지, 흑백을 가려 볼만한 안목이 있는 이는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염화시중(拈花示衆) 때의 가섭의 웃음이 미소인지 비소인지 흑백을 가릴 줄 알아야만 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송이를 밤이라 하면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 속에 든 알밤의 진귀하고 미묘한 맛을 알기는 힘든 것입니다. '마음이 부처다'라고 으스대는 까닭에 밤송이에도 속으니, 참으로 잘 살피지 않으면 안됩니다. 밤송이를 보고 견성했다고 하지만 더욱 더 깊이 살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위해 스님께서 구도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요즘 흔히 보면, 진정한 발심없이 자비문중에 들어온 사람이 아무 뜻없이 받은 화두가, 자다 먹는 떡과 같이 아무 맛을 모르고 좌복(座福)이나 지키며 세월만 보내니, 행여 어느 부처가 도를 일러주겠어요. 참으로 알고 보면, 교리나 화두라는 것은 달을 가르킨 손가락에 불과한 것인데,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손가락에 가려진 달을 보지 못하니, 한평생 고민하고 퇴굴심에 병만 들어 일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도자에게 진심으로 부탁하노니, 자기의 금강반야(金剛般若), 즉 칼날 같은 지혜로써 탐진치를 여지없이 베어버리면 금강보리좌에 올라앉을 것입니다. 불조 모두가 은산철벽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 수미산이라 했습니다. 조사가 걸어 간 이 길은 갈수록 높아가고 깊어만 갑니다. 그러나 등이 휘고 간이 타는 구도의 장정에서 수행자는 거침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불조(佛祖)를 넝큼 잡아 삼킬 수 있는 거침없는 사자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들이 일상 속에서 닦을 수 있는 생활선 방편을 일러주십시오.

"첫째, 매일 자고 일어나서 첫 말 한마디만큼은 득이 되고 복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둘째, 매일 첫 걸음은 무게있는 걸음을 걸으세요. 셋째, 하루 24시간 가운데 단 5분동안이라도 부처님 몸 모양으로 당당하고 원만하고 뚜렷하게 앉아 마음을 집중하세요. 이 세 가지만이라도 철저하게 실천해 보세요. 수행은 행위도 중요하지만, 먼저 왜 해야 하는가 스스로 물어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의 다리 긁지 말고, 자기 걱정들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임민수 기자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미산스님

미산스님은 평범해 보인다. 성격도 그렇고 모습도 정말 평범하다. 하지만 그 평범한 속에 특출한 멋이 배어있다. 마치 질리지 않는 뚝배기나 된장찌개처럼 천연스러운 맛이 느껴지는 것이다.

대학 1년 선배였던 스님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로 나와 첫 인연을 맺었다. 당시 동국대 불교학생회는 석림회 2학년 스님 두 분씩 소임을 맡아 매주 법회를 지도해주셨다. 굉장히 활동적이며 적극적 성격의 선종스님과 조용하고 차분한 미산스님 두 분은 2학년이 되면서 스님들의 추천과 자원으로 지도법사 소임을 맡았다. 두 스님들은 매주 정기법회 외에도 바쁜 공부 시간을 할애해서 수시로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에 들르며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다. 초파일준비 때는 연등 만드는 일에도 적극 나서 하루종일 연잎을 비비고 간식도 함께 하며 일상가운데 학생들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셨다.

활달한 선종스님의 그늘에 가려 거의 눈에 띄지 않던 미산스님이 분명하게 각인된 것은 여름



수련회에서였다. 수련회 프로그램에서 참선지도를 맡은 미산스님은 참선에 대해 분명하고 자신있는 태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었고, 자세 하나 하나 빠짐없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세세하게 챙겨주니 수련생 모두는 깊은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출가 수행자의 진면목은 판도방(判道房)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미산스님은 그 자리를 통해 일상적인 '지도법사스님'에서 진정한 스승으로서 '스님'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다. 좌선하고 앉은 모습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의 신심이 우러나고, 잠시라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었다. 그동안 열심히 불교를 믿고 배워왔지만 수행의 깊이와 가치를 그렇게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열 여섯 나이에 선방에 첫 철을 살았던 미산스님의 수행력이 바탕이 되어 주었다. 참선을 마치고 잠시 몸풀이 요가를 할 때 두 다리가 쭉 펴지며 책에서만 보았던 어려운 자세들이 스님의 몸을 통해 보여질 때 수련생들은 또 한번 놀라움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당신이 공부하면서 건강을 위해 조금씩 한 것이라며 학생들도 꾸준히 하게되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금방 당신처럼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에 학생회원들은 한동안 요가열기에 휩싸이기도 했다.

단정한 두루막차림에 늘 쪼래기를 어깨에 걸고 차분차분 걸으며 급한 일이 하나도 없어보이던 모습은 마치 사리불과 목건련존자를 부처님의 제자로 인도한 마승비구처럼 선뜻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기억에 남는 모습이다. 담담한 미소에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끌어 가곤 하던 스님은 수련회이후로 학생들의 상담자 역할도 맡게 되셨다. 어떤 이야기든 다 들어주시고 상대방을 끝까지 배려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곤 했다.

간혹 학생들이, 동아리방에 붙어있던 법당에서 여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일이 있기도 했는데, 스님은 그럴때도 큰소리로 꾸짖거나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다. 잠시 굳은 얼굴을 보이다가도 금새 풀고는 차분히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조목조목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곤 하셨다. 승려의 권위나 위엄보다는 학생들이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도저히 거부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자세와 논리로 매사를 풀어가곤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여법함' 그 자체로 인정되던 미산스님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날이

평범 속에 특출한 멋 스며

권위보다 매사 대화와 논리로

있었다. 특별법회를 끝낸 뒤 다과와 더불어 노래를 부르며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에 미산스님은 지도법사로 자리를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 사회자가 법사스님들께 마이크를 돌린 것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스님의 노래를 전혀 기대도 않고 다만 짤막한 인사말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산스님은 당시 유행하던 이선희의 'J에게'를 부르시는 것이었다. 변함없는 단정한 자세로 거침없이 부르는 열창과 시원하게 터져 나오는 목소리는 한순간에 분위기를 열광시키고 말았다.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하던 대중들의 앵콜을 사양하며 약간 상기된 얼굴로 자리에 돌아가 앉으셨다. 나중에 들으니 학생들 지도를 맡고있는 입장에서 한번은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 딱 한 곡만 연습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 최신 유행곡을 선택하신 것이었다.

시간이 되어 새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실 때 스님은 깍듯한 태도로 후임스님을 소개하면서 법사의 인연이 소중했지만 이전 공부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매정하리만큼 똑 부러지게 법사의 인연을 매듭지으셨다. 있는 정을 다 띨 것처럼 지도법사를 그만두시고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늘 다정다감하셨고 공부에 전념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남으셨다. ▩서산 부석사 주지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研究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경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동양철학과 건강관리 강좌

만리사주의 좋은점

사주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위주로 사주와 운세를 종횡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쇠강약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항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척척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정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총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 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양연구원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지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일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 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서호노인복지회관 직원공개모집

대한불교조계종 수원포교당에서는 수원시 서호노인복지관 수탁과 더불어 참신하고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합니다.
효의 도시 수원에서 노인복지 증진과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하고 노력할 인재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02년 10월 1일 ~ 9일
2. 모집인원 : 00명 (경력 및 신입)
3. 모집분야
① 경력 : 총괄부장, 총무 · 시설 · 사업 · 복지팀장
② 신입 및 경력 : 회계, 서무, 영양사, 조리사, 관리(기계)기사, 운전기사(대형), 수영강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생활보조원, 관리인(미화원)
4. 자격사항
① 부장 : 관련기관 경력자
② 팀장 : 관련분야 경력자, 자격증 소유자
③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 2급 이상
④ 기타 : 관련분야 경력자, 자격증 소유자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6. 지원방법 : 우편(10월 11일 도착 분까지) 및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주소 : http://cafe.daum.net/theolders
※ 우편접수 주소 :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92-1 수원포교당
7. 발 표 : 10월 12일 서류합격자 및 2차 면접심사 일정 개별통보
8. 문 의 처 : 대한불교조계종 수원포교당 (전화 : 031)245-9670 ~ 2 / 031)255 - 2692)

인재를 찾습니다

(재)선학원은 문서포교를 담당할 불심 돈독한 인재를 구합니다.

▶ 모집인원 : 1명
▶ 자 격 : 대졸이상으로, 사보 제작 경력이 있는 분
▶ 나 이 : 30~40세
▶ 준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인 기명기사 포트폴리오 주민등록등본(2차 면접시)
▶ 접수방법 : 내사, 팩스, 우편, E-mail(arahanjh@hanmail.net)
▶ 접수마감 : 10월 12일
▶ 가입보험 : 4대 보험 (고용, 산재, 의료, 국민연금)
▶ 직무내용 : 정기 사보 제작 등
▶ 문 의 : 재단법인 선학원 사무국

재단법인 선 학 원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110-240)
TEL (02)734-9654~6 / FAX (02)734-3410



◇김복진씨의 유일한 완성품으로 확인된 정혜사 석고관세음보살좌상.

정혜사 석고관세음보살좌상

'김복진씨 작품' 확인

맥숭총림 정혜사 관음전에 모셔진 '석고관세음보살 좌상(1939 년작, 사진)' 의 작가가 한국 근대 최초의 조소 예술가 정관 김복진(1901~1940)씨의 작품으로 확인돼 미술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 결성된 사단법인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 스님/불교방송 이사장, 심원사 주지)이 불교미전 준비를 위한 근 · 현대 미술품 자료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근 · 현대 미술품발굴팀장 윤범모 교수(경원대)는 "만공 스님의 지시로 김복진 선생이 불상을 직접 조성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수덕사 맥숭총림 방장인 원담 스님의 증언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정혜사 관음보살좌상(전체높이 105㎝)은 당시 신재료였던 하얀색 석고로 조성된 작품으로, 유려한 몸매와 원만한 상호(相好)에 앞으로 내민 왼손에는 정병(淨甁)이 얹혀진 연꽃줄기를 잡고 있는 이색적인 연출이 특징이다. 특히 결가부좌 양쪽 무릎으로 흐르는 곡선미가 눈길을 끌며, 넉넉한 이웃집 아줌마 같은 친근미가 풍겨나는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김복진씨의 작품으로는 1994년 윤범모 교수가 발굴한 충남 계룡산 소림원 미륵불상(1935년작)이 있지만, 이것은 김제 금산사 미륵전 본존상을 스케치 한 모형작품이어서 50여점 되는 그의 작품중 유일한 완성품은 이번에 확인된 '정혜사 석고관음보살 좌상' 뿐이다.

생전에 호신불로 관음상을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독실한 불자였던 김복진씨는 1925년 동경미술학교 조각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각가였다. 또 일제치하에서 미술평론가, 문예운동가, 언론인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20세기 전반부 한국 미술인 가운데 유일하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기도 했다.

한편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을 비롯해 안장헌(사진작가), 이준교(출판인), 윤범모(경원대 교수), 성태용(건국대 교수), 김형균(불지사 대표), 이기선(동국대 강사), 황남채(판화가) 등 불교계의 문화, 언론, 출판, 예술 등 관련 전문인들이 모여 7월 31일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근현대불교미술 전람회 등 앞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근대 최초 조소 예술가의 유일 완성품

무릎 곡선미 유려·아줌마 같은 친근미



캐릭터·음반·애니메이션 등 불교문화콘텐츠 개발·보급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도후스님

"불교문화를 알아야 한국문화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가 지닌 전통문화 가치를 종교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한발짝 더 나아가서 독창성있는 한국문화산업 육성과 세계화 기여에 한 몫을 할 것입니다."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도후 스님은 창립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스님은 또 "불교문화를 육성하고 산업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불교문화운동을 펼치자는 게 주목적"이라며 "불교적인 캐릭터,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등 불교문화 컨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한국불교계가 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미술을 위주로 하는 고미술 분야에서는 활발한 발굴과 연구를 해 온 반면, 근현대미술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내주에 근 · 현대 불교미술전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불교전통문화의 해외보급을 비롯해 불교문화인력 양성, 회원들의 신심고취를 위한 수행활동 등을 기본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도후 스님은 "내년에는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영입해 한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진력 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환상적인 빛의 마술

천하제일 중국 燈 축제

한중수교 10주년을 기념하는 '천하제일 중국 등(燈) 축제'가 11월 3일까지 서울 김포공항내 잔디공원에서 열린다. 환상적인 빛의 마술을 선사할 이번 행사에는 서유기와 같은 중국 고전의 주인공 등을 형상화한 테마 등을 포함해 대형 등 40개와 소형등 3백여개가 다채롭게 선보인다. 특히 중국 서안 법문사에 봉안된 불상등을 소재로 제작한 '사면불상등(四面佛像燈)' <사진> 은 4면의 불상이 360도 회전하고 불상의 손에서 금즙기가 뿜어지며 이 물방울에 닿는 사람에게는 복이 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축제에는 세계최고의 묘기를 자랑하는 사천성 기예단과 중국전통가면술 공연도 펼쳐진다. (02)3661-3337



◇중국 서안 법문사 불상등을 소재로 제작한 '사면불상등' 사진=고영배 기자

대 상 박미진 씨의 '열반'

최우수상 허락 씨의 '금강반야바라밀경'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입상작 발표



◇대상작인 박미진 씨의 '열반'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스님)은 제19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대상 수상자로 '열반(涅槃)'을 출품한 박미진(26 · 동국대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4년)씨를 선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또 최우수상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출품한 허락(56 · 서예가)씨, 우수상은 '신중탱화'의 이경아, '삼화상탱'의 하경진, '수월관세음보살'의 손진수, '상원사 문수동자'를 조각한 장호민, 전통공예 '향로'의 윤기현, 현대평면 '보리살타를 꿈꾸며(II)'의 원윤선씨 등 6명이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도 장려상 11명, 특선 16명, 입선 15명 등 총 50명이 수상했다.

이번에 응모된 작품은 회화, 조각, 공예, 서예, 현대평면, 현대입체 등 6개 분야에 걸쳐 총 210여점이며, 이는 지난해 250여점에 비해 다소 적은 양이다.

심사위원장 범하 스님은 "응모작품수가 줄어들어 아쉬움을 남겼지만 창의성 있는 작품이 많이 출품됐으며,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또"어둡게 처리한 탱화틀 배경으로 승무를 추고 있는 인물을 밝게 표현함으로써 명암대비를 통해 화면에 생동감을 부여했다"며 "평범한 소재에도 불구 명상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차분한 색조와 표현대상에 대한 성실한 묘사, 설득력 높은 공간처리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음이 돋보인다"며 대상 선정이 유도 댓붙였다. 대상과 최우수상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1천만원과 500만원이 주어진다.

조계종 총무원은 12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며, 수상작들은 12~20일 예술의 전당 제3전시실에서 전시된다.

김주일기자



작품완성과정 수행으로 생각

탱화線 하나하나에 온갖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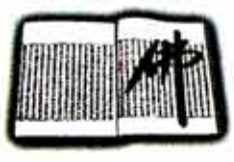
대상수상자 박미진씨

막상 이렇게 큰상을 받고보니 기쁨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할걸하는 아쉬움이 크다는 박미진씨는 불화전공자가 아니어서 후불탱화에 등장하는 불보살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감상자의 눈을 단번에 고정시키기 위해 나비춤을 추는 흰옷의 인물을 등장시켰으며, 시선을 점점 확대시켜 결국은 후불탱화 속의 부처님에 도달시키고자 한 것이 이번 작품의 감상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품을 완성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불탱화의 선 하나를 그릴 때도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는 박씨는 "불교문화는 다른 것에 비해 전통이 많이 훼손되지 않아 작품의 소재로 선택하기에 폭이 넓다"며 "작품 속에서 우리 전통색을 고수하면서도 대중들에게 편안함을 잃지 않는 채색이 묻어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아카드로 봉인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질(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茶의 영양을 식탁에

차연근밥 등 조리법 100여가지

고기류 요리때 찻물 넣으면 부드러워져
우려 낸 찻잎 무치거나 부침개로 만들 수도

선현들이 '신이 내린 최상의 식물'로 극찬한 차(茶)의 영양을 식탁에 올려보자.

30년 동안 우리 차 요리를 연구해온 이연자(58 우리차문화원장) 씨가 개발해 선보인 차 요리는 '차연근밥', '보이차 영양솥밥' 등 100가지가 넘는다. 그 중에서 가정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녹차 요리법을 살펴본다.

녹차를 이용하는 요리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0년간 차요리 연구
이연자 씨에 듣는다

첫째, 가루차를 칼국수나 수제비 반죽에 넣거나 볶음밥, 마요네즈 소스 등에 뿌리면 차의 영양성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

둘째, 우려낸 찻물을 고기 양념에 넣으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밥 지을 때 넣으면 밥이 차지고 구수해진다.

셋째, 한 번 우려 마신 찻잎으로 부침개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우려 마신 찻잎에도 쌉쌀하면서 달콤한 맛이 남아 있어 미각을 돋궈준다.

여수형 기자 snoopy@buddhapia.com

참고자료:
〈동다요리소고-우리 차 요리〉
(이연자 지음, 쿠켄 刊)



찻잎 달걀말이

달걀 3개, 우려 마신 찻잎 10g, 청주 1큰술, 설탕 1/2큰술, 소금 1/2작은술, 붉은 피망 1/4개

1. 달걀에 청주와 설탕, 소금을 넣고 고운체에 내린다.
2. 찻잎은 물기를 꼭 짜둔다. 우려 마신 찻잎을 이용해야 쓴맛이 적다.
3. 사방 0.3mm로 썬 붉은 피망과 양념한 달걀, 찻잎을 넣고 고루 섞는다.
4. 사각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부어 익히며 두껍게 만다.



녹차 수제비

밀가루 2컵, 가루녹차 2작은술, 호박 · 감자 · 양파 1개씩, 다시마 10g, 멸치 20g

1. 밀가루에 가루차와 소금, 물을 넣어 반죽한다.
2. 애호박 1/2과 감자는 반달 모양으로 썬다. 나머지 호박은 채썬 후 볶는다.
3. 냄비에 물 5컵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센불에서 끓인다.
4. 국물에 감자를 넣고 팔팔 끓으면 반죽을 알게 잡아당겨 뚝뚝 떼어 넣는다.
5. 한소끔 끓으면 ②의 호박과 양파를 넣고 한 번 더 끓인다.



삼색차떡

멥쌀 8컵, 찹쌀 2컵, 설탕 2컵, 소금 2큰술, 가루차 · 딸기주스 분말 3큰술, 치자 1개, 물 1/2컵, 대추, 잣

1. 멥쌀과 찹쌀은 5시간 정도 불렸다가 물기를 빼고 소금을 넣어 빻는다.
2. 치자는 물 1/2컵을 붓고 1시간쯤 우린다.
3. ①에 설탕을 넣고 버무린 후 가루차와 딸기주스 분말, 치자물로 색을 낸다.
4. 고명으로 대추와 잣을 얹어 시루에서 40분 정도 찐다.



차찐빵

핫케이크 가루 2컵, 가루차 2작은술, 달걀 1개, 물 1/2컵, 대추 3개, 종이컵

1. 핫케이크 가루에 가루차를 섞어 체에 내린다.
2. 물에 달걀을 넣고 거품기로 섞은 후 ①을 넣어 반죽한다.
3. 종이컵을 반으로 잘라 반죽을 7부쯤 넣는다.
4. 김이 오른 찜통에 보자기를 깔고 반죽을 올려 20분 동안 찐다.
5. 씨를 뺀 대추를 돌돌 말아 자른 후 빵 가운데 고명으로 올린다.

가을… 곳곳서 생활체육대회

13일 서울시장기쟁탈 마라톤 경기
16일 뚝섬체육공원서 게이트볼대회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1년 중 야외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자전거 · 게이트볼 · 마라톤 등 생활체육대회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린다.

서울시와 국민생활체육 서울시 육상연합회는 13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제 10회 서울시장기 마라톤대회를 연다. 5, 10km와 하프마라톤 코스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2000여 명이 넘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3일 월드컵공원에서는 유방암치료 및 예방활동 기금마련을 위한 '2002 핑크리본 사랑마라톤대회'가 열린다. 개최 종목은 남녀 개인전(5km, 10km), 부부 달리기(10km), 엄마와 함께 달리기(5km) 등이고 참가비는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된다.(02)416-8474

서울게이트볼연합회는 16일 뚝섬체육공원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연다. 일반부와 장수부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02)706-7227

19~20일 의정부지역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자전거연합회 주최로 자전거 대회가, 26일 서초구민회관에서는 전통무예대회가 열린다.(02)895-6433

이밖에도 서울시와 서울생활체조연합회는 13일 세종대 대양홀에서 체조대회를 열다 에어로빅, 댄스, 민속체조 부문으로 나눠 경기를 펼칠 계획이다.(02)2278-9987 참가신청은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www.seoulsportal.or.kr)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잠실종합운동장은 이달부터 한국무용과 에어로빅, 배드민턴, 요가 등을 배울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02)2240-8763~4

수험생 부모 위한 특강
조계사 · 능인종합복지관

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30여 일 앞두고 수험생 부모들을 위한 입시 특강이 사찰에서 열리고 있다.

조계사는 '학업성취 100일 기도 입시 특강'을 마련했다. 20일 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조계사 대웅전에서 특강이 진행된다.

13일에는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이 '부모의 입시스트레스와 자녀입시스트레스'를, 20일에는 김남성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자녀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다.(02)732-2115

능인종합복지관은 10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힘들게 공부하는 우리아이! 꼭 필요한 영양식단'이란 강좌를 마련했다.

수강료는 2만원이며, 재료비는 별도다. (02)571-2968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표고버섯 채소밥

재료:쌀, 표고버섯, 우엉, 당근, 감자, 청 · 홍 피망, 은행, 들기름, 양념장(간장 5큰술, 다진 청 · 홍고추 1개씩, 통깨 2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참기름 2큰술)



1. 표고버섯은 물에 불려 밑동을 제거한 후 가로 세로 1cm 크기로 썰어 진간장, 들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 볶는다. 이때 표고버섯 불린 물은 따로 둔다.
2. 우엉은 얇게 저며 깍둑 썬 후 들기름을 두른 팬에 볶는다. 당근, 감자, 청 · 홍 피망은 표고버섯과 같은 크기로 썬다. 은행은 마른 팬에 볶아 속껍질을 깐다.
3. 미리 불려둔 쌀에 표고버섯과 우엉, 표고버섯 불린 물을 부어 밥을 짓는다. 채소가 많이 들어가므로 밥물은 평소보다 약간 적게 잡는다.
4. 밥이 끓으면 청 · 홍 피망을 제외한 채소와 은행을 넣어 뜸을 들인다. 밥을 푸기 직전에 청 · 홍 피망을 넣고 잘 섞어 그릇에 담는다. 분량의 재료로 양념장을 만들어 함께 낸다.

자료제공: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중생구제할 미래부처

미륵반가사유상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미륵반가사유상 모작인 이 작품은 요란한 장식이 없고 형태가 간결하며 몸의 비례 설정이 정확해 안정감이 느껴진다. 회향목, 높이 30cm, 값 30만원.

클릭 !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건강단신

위장질환 · 식이요법 강좌
10일 꽃마을 한방병원

꽃마을한방병원(원장 강명자)은 10일 오후 2시 병원 3층 세미나실에서 가정의학과 이한상 과장이 진행하는 '위장질환과 식이요법' 무료 건강강좌를 연다. (02)3475-7018

저소득층 노인들 대상
녹내장 등 안질환 무료시술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의사가 없는 농어촌과 도시영세지역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안과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실명이 되는 눈 질환 노인에게는 개안수술을 무료로 지원한다.(02)503-7519~752

재활의료기구 무료대여
충남 서산보건소

충남 서산시보건소는 장애인과 환자들에게 휠체어 10대, 목발 5개, 보행기 2대, 네발 지팡이 5개, 욕창방지기 2개, 보행보조기 1개 등의 재활의료기구를 3개월 단위로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041)661-6500

현대불교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기사제보 · 구독 · 광고 문의 및 신청

부산지사
051-632-0064 / 011-737-5481
대구지사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063-255-2274 / 011-9644-4579
인천지사
032-937-5679 / 019-688-8151
충북지사
043-258-3282 / 011-459-3282
밀양지국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054-634-3429 / 011-9373-3778

▣ 초상화, 영전
큰스님 초상화, 영전을 조성해 드립니다.

▣ 패교 법당
수련원, 기도처, 연수원으로 적합

▣ 법당, 요사채 공양간
사위장, 대중방, 스님방
종무실, 화장실 완벽한 패교법당
집기일체

화가스님 연꽃 초상화
H · P 011-9661-3996

풍수지리(도법)

여보게
왜 어깨위에 짐을 지고 다니시는가
내가 그짐을 좀 덜어주렴?

이장에서 화장
묘터 선산 건물 집터(음, 양)

모든 감정 및 상담까지 천문지리도법으로 "산소"와 산을 형상으로 보면서 설명과 방법 및 방편법을 선택해 줌 산소 조경 및 이장 화장 분묘 등등 직접 작업함

지역별 산소터(명당자리) 다량확보

백두 풍수 연구원
www.vipsaju.net
02)3445-2959
원장 법 진

당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씨트리 키토산은 당뇨병에 경이적인 식품입니다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원만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씨트리 키토산을 복용하시면 식생활을 제한없이 건강한 사람과 똑같은 생활로 체질을 완전 회복시킵니다.



씨트리 키토산 5g×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의사(한의사) 박동관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켐텍갤럭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온가족 함께 어울리며 부처님 가르침 배워요"

비구니회관 법룡사 '일요가족법회' 표정



◇고시환씨 가족에게 비구니회관은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쉼터이자 배움터이다. 사진=임민수 기자

"누나, 나가서 놀자" "쉿! 법당서 떠들면 안돼"

나란히 반야심경 독경 가족모습 정 '가득'

"누나, 나 삼배했는데 밖에 나가면 안돼?"

"조금만 더 앉아 있자. 그리고 법당에서는 떠드는 거 아니랬지"

삼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고 조르는 동생 륜형(7)이를 누나 연경(10)이가 조용히 타이른다. 20여 분 동안 엉덩이를 들썩거리면 륜형이는 결국 누나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 한참을 뛰어놀고 나서야 다시 법당으로 돌아왔다.

지난 9월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법당에는 부부끼리 혹은 자녀의 손을 잡은 부모 50여 명이 모여들었다. 그 중에서도 고시환(39) 씨 가족은 유난히 눈에 띈다. 고 씨와 부인 김은정(37) 씨, 딸 연경이와 아들 륜형이가 나란히 앉아 절을 하고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모습이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전에 다른 절에 다녔었는데 집 가까운 곳에 비구니회관이 생기고 나서는 이곳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 부담 없이 올 수 있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찰과 법회 분위기를 접할 수 있어 좋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먹는 공양도 정말 맛있어요"

고시환 씨 가족은 주말에만 법룡사를 찾는 것은 아니다. 비구니 회관이 마련한 문화강좌를 온 가족이 다 듣기로 했기 때문이다. 부인 김 씨는 매주 화요일에 진행하는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을, 연경이는 서울 개운사 관선무 원장인 광원 스님이 진행하는 '관선무' 강의를 듣는다.

김 씨는 "평소 사찰음식을 배우고 싶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한다. 어떻게 딸 아이가 관선무를 배우냐는 물음에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관선무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다고 해서 큰 아이한테 배워볼 것을 권했다"며 "아들도 조금 더 자라면 배우게 해볼 생각"이라고 한다.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가 불자들을 위한 마련한 문화교양강좌는 지난 9월 23일 니르바나 실내악단 강형진 단장의 '니르바나 음악교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찰음식 강좌는 33명이, 관선무는 30여 명이 신청한 상태이지만 아직 시작 단계이고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련장 문을 열어 놓아 언제든 찾아가 수행도 할 수 있고,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일요법회가 진행된다. 법회가 끝나면 경기민요 전수자 김수연 씨가 '가족이 함께 배우는 민요교실'을 30여 분간 진행한다. 이밖에도 어린이를 위한 '스님께 배우는 어린이 한자교실'과 '영어 이야기 교실', '경전이야기 교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 스님은 "비구니회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며 "앞으로 사찰과 지역주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02)733-5467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행복한 참견

◆무료 의료상담=송파노인복지관은 11일 오전 10~12시 복지관 2층 치과 진료실에서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11, 15, 17, 22, 24, 29, 31일 오전 10~12시 복지관 2층 치과 진료실에서 무료 수지침 진료가 열린다.(02)2203 - 9400

◆노인잔치=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2년을 기념, 10, 11일 양일간 오전 10~오후 4시까지 서울 쌍문동 복지관에서 '도봉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영화상영회, 일일찻집, 사진전시회, 문화초청공연, 노래자랑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다.(02)993-9700

◆호스피스 교육=정토마을(원장 능행)이 21~23일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 아산병원 동관 6층 강당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다. 김수지 이화여대 간호학과 교수, 김효순 아산병원 복지팀장, 송명숙 아산병원 호스피스 등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강좌가 마련됐다. 참가비는 4만원.(02)3010-7900.

◆자양문화축제=서울 광진구 자양사회복지관은 18, 19 양일간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제2회 자양문화축제'를 진행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가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아동인형극, 마술공연, 수화공연 등이 마련된다.(02)458-1664

손때 묻은 책을 선물해 보세요

독서에 관한 세 바보가 있다. 첫째, 남의 책 빌려 읽는 사람. 둘째, 남에게 책 빌려 주는 사람. 셋째, 빌린 책 다시 돌려주는 사람. 이른 바 독서의 삼치(三痴)라 하여, 책을 귀하게 여기던 지난 시절의 이야기이다.

요즘은 이런 바보들이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 대여 책방도 있고, 비싼 책은 복사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종이 귀한 줄도, 책 귀한 줄도 모르는 경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

여기, 바보도 되지 않고 경박한 사람도 되지 않는 한 방법이 있다. 이미 읽은 책을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하는 거다. 비좁은 책꽂이에 숨통도 터주고, 종이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야 하는 일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어놓은 밑줄을 보며 '이 사람은 왜 이 대목에서 밑줄을 그엇을까?' 혹은 '맞아, 어쩜 내 생각과 이렇게 똑같을까?' 하면서 공감할 때, 어찌 기쁘지 않을 것인가.

손때 묻은 책을 선물해 보자. 인간관계는 훨씬 따뜻해질 것이다.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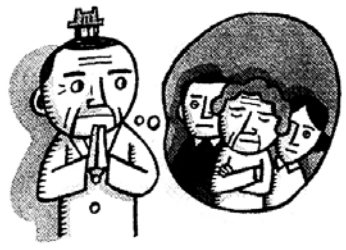
생을 마감하기 전의 선택

자신의 나이를 예순여덟 살이라고 밝힌 한 남자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분이 들려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0대 초반에 건설업에 손을 대 성공한 편에 속했던 그 분은 아내는 물론 2남 2녀의 자녀들한테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르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4남매 모두 결혼을 시켰는데 큰 아들은 당뇨가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홀어머니에 외딸인 자녀와 결혼해 처가에서 살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미국에 이민 갔고 작은 딸은 남편과 이혼하고 딸 하나를 데리고 혼자 살고 있다 했습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한 우리 이웃의 가족들 모습이지요.

이런 평범한 그의 가정이 파탄으로 치달은 것은 IMF 직후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은 아파트는 물론 자신이 보증을 선 아파트까지 연쇄부도를 내 살고 있던 집마저 채권자들한테 빼앗기고 지금은 연립주택 지하방에 세를 살고 있다 했습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당뇨를 앓고 있는 큰아들과,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 작은 딸의 돈까지 모두 날렸기 때문에 두 자녀의 생활까지 속수무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을 지을 때 제가 도움을 드렸더니 스님이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절에 가 있으면서 허드렛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부처님 도량에서 생을 정리하고 싶은데 아내 때문에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죽어도 절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니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늙고 병든 아내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 속을 썩이다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의논을 드려보려구요."

그 분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한 후 다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생을 살아봤는데 허망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건진 것이 있다면 부처님 법을 안 것이지요.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부처님 가까이 가서 불법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소원인데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큰아들은 어찌 됐던 가족이 있으니 그런대로 살아갈 것이고 작은 딸 역시 제가 혼자 살기로 마음먹고 남편과 헤어졌으니 제 힘으로 살아가겠지요. 요는 집사람인데 집사람을 두고 혼자 절로 들어가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서 지금처럼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길일까요?"

'공부' 하는 것보다 더 급한일 있을까…

큰아들과 작은 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아버지 회사에 맡겨 놓고 이자로 생활을 해 왔다고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과 혼자된 딸을 측은하게 여긴 아버지는 대외적으로 명분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대준 것입니다.

그 후 그들 가족이 겪었을 고충과 갈등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지요. 평소 건강하지 못한 남편에 대해 불만이 많던 큰며느리는 불손하기가 이를 데 없이 되었고, 생활기반을 잃은 작은 딸 역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한 그 분은 저를 찾아 온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생에 대해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죽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자살이라고 하니 가장 무거운 죄를 짓고 생을 마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법(佛法)을 모른다면 또 모르겠으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살고 있는데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이 절에 와 있으라고 권합니다.

자살이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의 경우는 자살이 아니라 생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은 이미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 분이 자살을 하시든 절에 가 계시든 그 분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은 제 말을 듣고 나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절에 가 있으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생을 정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化緣 (02)704-3577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책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五術之中帝王」이요,「神示」라고도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그 일이 잘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될 것인지, 이사하면 언제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男二女 관계인지 二男—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뗄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시식 굿 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찾을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을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갈것인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볼 것인지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량 복사본 판매행위 해결에 도움을 주신
전국 활인 천역자 제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 효사 배상 -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그날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 선거 구재 취직 승진 매매 임신 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 활인전문천역자용 (부록 · 실명비디오 포함) 바인더차트 每一式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500,000(휴대용)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300,000(좌정용)
● 효사 육임강의록 ₩300,000
● 효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 28개) ₩900,0000

● 강의신청「육임학당효사숙」02-998-8683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으뜸가는 공부

여러분께서 인생에 대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해서가 아니라 말을 안 하고도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팔만대장경에 어떻게 이 세상 이치를 다 적으리까! 이 세상을 볼 때에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 "너희는 마음이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차원에 따라서 악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너희 마음대로 살다가 다 놓고, 네 몸까지도 놓고 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까? 몽땅 다 놓고 가되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과가 되고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히 조심하고 선덕을 잘 쌓고,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으뜸가는 공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거미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전부 여러분의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꼭 말을 해줘야만 알겠습니까? 허공은 허공대로 티 하나 걸리지 않고 자유스럽게 흘러 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같이 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물은 물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생명들이 살다나가는 집으로서 만생(萬生)을 이끌고 나가는 물은 더럽다 깨끗하다는 말이 없이, 어떠한 차원도 그냥 흘러갑니다. 꼭 말을 해줘야 압니까? 그것도 바로 우리들이 배워야 할 스승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라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나무들도 바람 부는 대로 날려 어지고 유하고 부드럽게 말이 나갑니다.

부모 자식이다 할지라도 한철 부모 자식일 뿐이지 그 한철이 지나면 그대로 뿔뿔이 제가끔 몸도 다 놓고 갑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죠. 거기서 또 재생이 돼서 다시 나올 때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과(果)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돼있죠. 그러면 다른 부모의 다른 자식이 되죠. 이건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넓게 생각을 한다면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찰나에 한 인생이 가고, 한찰나에 인생이 생하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요 한 철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과 모여서 놀러갔다고 합시다. 모여서 놀러갈 땐 한 식구입니다. 그런데 놀 자리를 잡아서 즐겁게 놀다가 저녁이 되면 다 헤어집니다. 뿔뿔이 자기 갈 데로 다 가고 그 자리조차도 내놓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의 섭류도 다 그렇습니다. 저 혹성이나 혜리성(핼리혜성)이나 또는 어떠한 별성이든, 혹성이든 간에 수명이 길고 짧을 뿐이지….

지금 아래로 쭉 보세요. 새들이나 토끼 같은 짐승들은 수명이 인간보다 짧지만, 또 수명이 아주 긴 것이 있고, 천차만별로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수명을 아주 단축시키는 것도 있고, 인간은 열 달이 돼야만 낳지만, 육 개월만에 낳는 것도 있고, 석 달만에 낳는 것도 있고, 그거는 여러 층으로 아주 많지 않습니까? 몇 주일만에 낳는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차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자면 기술자대로 모이고 또는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들대로 모이고, 배를 타는 사람은 배를 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듯이 말입니다.

모두가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다 놓아버리는 주인공을 어떻게 믿지 않고 무시하겠습니까? 수 억겁 전으로부터 생(生)이 생겨서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인간까지 이끌어 왔는데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허공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이름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형상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만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니 별성이니 달, 어느 혹성을 막론해놓고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근본이 직결돼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내 살림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는 공생·공용·공체·공식화하고 서로 주고 서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사는 전부 가설이 돼있는 근본이 바로 내 마음에 가설이 돼있기 때문에 항상 '나 먼저 알아야 하고 나 먼저 발견해야 된다. 나를 끌고 다니는 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누구를 믿느냐고 하면 자기 주먹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초 하나를 켜놔도, 초를 켰는데 구부러져 가지고 한쪽이 기울어지게 타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촛물이 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 고 부분을 가위로 딱 잘라서 똑바로 해놓고 또 기울어지면 똑바로 세워놓으니까 한쪽이 일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마음도 마음으로써 다스리면서 나가는 것이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삐를 자기가 쥐고, 항상 남의 밭으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이랴! 워! 워!"하면서 똑바로 가게끔 고삐를 쥐어라 이 소리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냥 갈 수 없는 바로 자기 공부입니다.

항상 방편으로 말씀드리지만, 내 집에 전화를 놔야 남한테서 전화를 받고 또는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고서는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과법칙이라든가 또는 유전법칙이라든가 이 모든 생태의 문제들을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나부터 아는 동시에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에 유유히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정신계와 물질계를 작용하면서 베풀어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냥 말로만 알고 머리로만 굴리고 이론으로만 쫙 알아가지고 말을 아무리 잘 해도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한 발짝을 떼어놔도 실천을 할 수 있는 심력을 길러서 하나하나 터득하면서 체험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꿇어앉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이뭣고'하기 이전에 '내가 만법(萬法)을 들이고 내는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능가할 수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로 돌아가는 그놈이 뭔가 하기 이전에 "아, 그놈이 하는 거니까 모든 걸 거기다가 되돌려 놔라." 이 소립니다. 의심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들이고 내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못났든 잘났든 내가 가는 길에 의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사대성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똥 누러 갈 때도 눠야 될까, 안 눠야 될까 하고 가느냐? 똥 마려우면 아무 생각 없이, 이럴까 저럴까도 생각 없이 그냥 화장실로 가서 시원하게 싸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배고프면 먹는 거 아니겠느냐? 졸리면 자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여하게 사는 것이 바로 여래의 집이니라."라고 말입니다. 여여하게 산다고 해서 '여래'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부처님들을 한데 합해서 바로,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고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니까 한데 합쳐서 여래의 집이요, 여래라고 한 겁니다. 배를 똑바로 저어서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잔소리입니다. 면경을 잘 닦아서 먼지 않지 않게 해야겠다는 것도 그것도 잔소리입니다. 망상이니 정법(正法)이니 사법(邪法)이니 하는 것도 다 망상입니다.

그대로 내 마음이 나를 다스리면서 내 몸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환희심으로 이끌어서 둥글려서 마음을 잘 쓴다면 그 의식들이 다 한마음으로 따라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동적으로 좋은 입력이 됐으니 자동적으로 좋은 일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니까 그게 입력돼서 그렇게 한 대로 나오는 거죠. '과거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지금이 어떻고' 이렇게 말들만 하시지 말고, 과거의 씨가 현실의 싹으로 나서 지금 씨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어디 가서 씨를 찾습니까? 현실에 내가 안고 있는 것이 그대로 과거의 씨도 되고 미래의 씨도 되는 것입니다. 그거 찾기가 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할, 공부라고는 할 거 없지만 수행을 해 나올 때 얘기입니다. '구렁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을 받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구렁이라면 모습이 구렁이인들 어떠리!' 즉 말하자면 내 어머니가 못나고 못 배웠다고 해서 남의 잘나고 잘 배운 어머니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어머니를 바꿀 수 없죠? 잘났든 못났든 말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자기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부처님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부처님을 따라가다가는 허방을 짚습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바로 자기 마음을 계발하면서 거기까지 한자리를 할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음들은 근본에 의해서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겁니다. 모든 생명의 근본은 하나다, 하나로 돌아가는 게 바로 불바퀴라고 한다. 전력은 누구나가 다 끌어 쓸 수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직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딜 믿습니까? 나로부터인데.

여러분이 어떠한 기술을 가졌든지, 상업을 하든지, 과학자든지, 의사든지 노동을 하든지 뱃사공을 하든지 하여간에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근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높으니라. 비유를 하자면, 농사짓는 데 가면 농사꾼이 으뜸이요, 물에 가면 뱃사공이 으뜸이요, 과학자한테 가면 과학자가 으뜸이요, 노동하는 데 가면 노동자가 으뜸이라고 말입니다. 이래서 "천상천하(天上天下)에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고 한 겁니다. 자기 혼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높으니까, 개미도 개미 소굴에서는 높은 겁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세상 천지의 모든 것이 제가끔 끼리끼리 놓여져 있습니다. 한데 섞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 맛 다르고 조거 맛이 다 다르지마는 다 사람한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좋다 하면 이리로 쏠리고, 저거 좋다 하면 저리로 쏠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기 때문에 듣는 대로 입력이 되니까요. 누가 이 병은 못 고친다고 하면 아주 입력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깐 그대로 가죠. '아니다'라는 생각이 중심이 서야,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할 탓이지.' 이렇게 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약하니까. 집에 주인이 없으니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주인이 있다면 딱 버티고 어떤 게 들어와도, 무슨 말을 해도 잘 리드해서 끌고 나가지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말 들으면 이 말 듣는 대로 "인제 나 죽었구나!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태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전부 듣고 따르고 있으니까요. 지금 몸 속에 있는 그 수십 억의 의식들이 내 마음이 하자는 대로 따르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벌써 두뇌로 욜라가서 하달이 되거든요. 그럼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을 해야 나오지마는 사람들이 사는 자동적인 숙명통, 즉 마음의 컴퓨터에 그냥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마음을 건실하고 건전하게 항상 갖고, 인연에 따라서 집착을 하지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모여서 즐겁게 놀다가 즐겁게 헤어지는 거니까 부드럽게, 즉 말하자면 마음이 밉고 원망하고 식구들과도 그렇고 남들과도 그렇고…. 모두 그렇게 나가면 서로 인과가 되고, 즉 말하자면 원수도 되고 그것이 유전이 되니까 낭패가 되는 거죠. 죽고 또 죽어도 다시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깐 모든 걸 제자리에다 되놓고 돌아가는 동시에 바로 나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물리도 터질 수가 있는 거고, 자비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누구 원망도 안 하고 악을 쓰고 야단을 친다 하더라도 속으로 미운 생각, 원망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말로만 악을 쓰게끔 되죠. 그러면 벌써 인과가 되지 않고, 유전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내가 한마디하는 것은, 우리가 잘되고자 해서 지금 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잘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놓고, 수 억겁으로부터 나를 이끌어 가지고 온 장본인, 주인을 진실히 믿고 죽어도 거기, 살아도 거기, 모든 게 거기서만이 돌아가는 겁니다. 태양계의 지구가 지금 꼭지 없이 매달려서 돌아가듯 말입니다. 우린 마음의 자력에 의해서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우주 전체를 한데 합쳐도 합친 사이가 없어요. 그런데 뭐이 못마땅해서 그거를 놓지 못하고, 합치지 못하고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왜 믿지 못합니까?

믿는다면, 진정코 믿는다면 지금 당장 죽는대도 싱긋이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자식이 죽는다, 부모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해도 아랑곳 없어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자유인이 될 수 있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열쇠를 가질 수 있고, 즉 말하자면 여래장(如來藏)이 되겠죠. 그런데 뭐이 답답하겠습니까?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질문자1: 예. 저희들이 평소에 의문나던 점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유전인자에 대한 비밀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있던 한 유전인자의 구조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견이 왜 특별하냐 하면 유전인자의 구조가 밝혀짐에 따라 몇 가지 유전병의 치료방법을 알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말로는 앞으로 10여 년 후면 수천 가지의 유전병과 불치병 중의 상당한 부분의 치료법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유전병 또는 불치병은 억겁을 거쳐서 오는 동안의 인과가 뭉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마음법이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 즉 과학적인 치료법으로도 인과를 녹이는 이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이와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유전자의 비밀이 밝혀진다면 과학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나드는 일이 되며, 나아가서는 인과의 법칙도 새로운 해석을 해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스님: 그 무슨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물질을 발견해낸 것이지 어디서, 왜, 어떠한 연관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왔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서 불치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그건 그 이름을 떠나서 딴 걸로 옮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으로서, 즉 심성이 안 들어가고는 도저히 녹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입력이 된 데다가 입력을 다시 해야 입력이 없어지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부터 알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부터 알아야 모든 게 가고 옴이 없이 왕래를 하죠. 얼른 쉽게 말하자면 나부터 알아야 모두가 일치돼서 같이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 30면으로 계속

말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심력을 길러야

세상 모든 것이 우리들 스승

바람은 말없이 살라하고 허공은 티 하나 걸림없이 자유롭게 살라고 가르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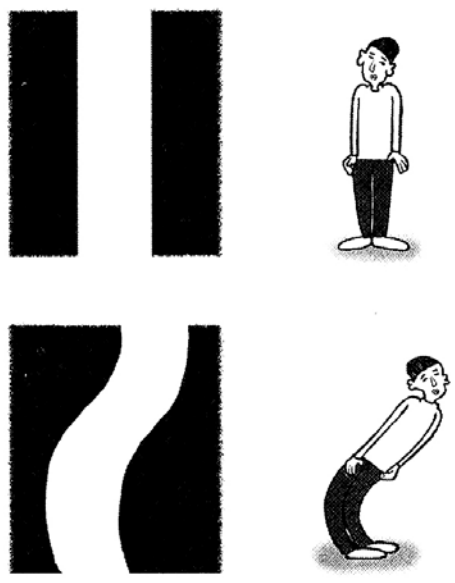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자라고 잘못하는 사람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보면 분기 사라지고 인의로워져

☞ 29면에서 계속

현세에 내가 안고 있는 것 그대로 미래의 씨앗이 돼

만약에 태양으로 들어갔다 합시다. 내가 태양이 돼가지고 그 태양계를 본다면 전부 그게 그거니까 그 속에서 다 알게 되지만, 가고 옴이 없이 어디서 나온 줄도 모르고, 어디서 된 줄도 모르고, 어디서 온 걸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밝혀내고 병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해서 밝혀낸 게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벌레가 자꾸 식물에 끼니까 독한 약을 뿌려서 처음엔 다 죽었는데 그것이 벌써, '아, 저런 거를 뿌리는구나.' 이러고 알고선 안 죽어요. 그리고 딴 걸로 대치가 돼. 그러니까 녹을 수가 없죠. 천차만별로 인과성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영계성 때문에 사람의 정신이 모두 혼미해지는 그런 연관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조금 발견했다 해서, 즉 말하자면 지금도 발견한 사람들이 간암이니 백혈병이니 쭉 이름을 내놓은 거지, 그게 본래부터 전자에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백혈병이다 골수암이다 해도 그것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건 이름이니까, 내 마음으로써 내 육체 안에 들어 있는 그 모든 의식들을 다 흡수해서 작용할 수만 있다면 암이다 뭐다 하는 건 이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작용하는 거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똥마려우면 똥눌 뿐, 그와 같은 거죠.

▲질문자1: 스님께서 여태까지 답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반복해서 듣는 의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가 조금씩 진전이 되는 듯 하다가도 어느 단계에 이르면 벽에 부딪쳐 더 나아가기 힘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 공부를 단계 없는 세 단계로 나누어 '세 번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상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나와 대상을 둘 아니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대상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말이나 또는 머리로 이해해서는 그저 그렇고 그럴 뿐이지, 투철한 실천은 못 된다고 봅니다. 나와 대상이 둘이 아닌 것을 느끼는 경지는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님: 무조건 믿는 거,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믿는 거, 내가 조금 믿다가 부딪치면 "이거 뭐 이렇게 찾아도 안 되는데."이러고 벌렁 나가자빠지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마음이 안 믿는다 믿는다를 떠나서 그냥 자기가 지금 끌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잘되기만 하면 좋다고 하다가 안 되면 주인공 찾아도 뭐 만날 마찬가지라고 한단 말입니다. 안 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데 말입니다.

공부할 때에 자기한테 자기가 테스트해본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자기를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나 알기 위해서 용도에 따라서 적합하게 옵니다. 오는 것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럴 때는 '아하! 요것도 알아보려고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그냥 제깍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요런 게 또 왔으니 이거를 어떻게 방지를 해야 하나, 주인공을 아무리 찾아도 이거는 안된다고 하고는 그냥 '정말이지 허구장천 못났든 잘났든 널 믿어라, 죽는 것도 거기고 사는 것도 거기다.' 이래도 그렇게 안 들어가나 보죠. 그러니까 한 발짝도 실천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진짜로 화살을 쏘려면 정(定)의 화살을 쏴야 될 텐데 여기 쐈다 저기 쐈다 이러니깐 이게 맞춰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지금 금방 죽는대도 '흥, 네가 끌고 다니는 네 몸뚱이 죽인다 해서 내가 외는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 그냥 죽일 테면 죽이고 살릴 테면 살리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그냥 놔버린다면 되는 건데! 그렇게들 그냥 붙들고 모두 작첩(作疊)을 하고 붙들고 늘어지니 글쎄 그놈의 게, 그게 인과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도 그렇게 붙들고 애지중지하고 그러는 게 모두가 인과가 되는 거라구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려면 아예 놓고 줄을 잡고 그냥 툭툭… 딴 데로 가면 툭, 왜곡되게 가면 툭, 이렇게 마음의 줄로다가 잡아야지 마음이 잡히지, 이건 실질적으로, 실체를 말로다가 잡으려고 그러니 그 몸이 잡아집니까?

마음의 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설이 돼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방에도 전구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의 스위치만 누르니까 방에 불이 들어오죠, 들어오네요. 허허허. 그러니까 한 식구가, 내 집 식구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다 밝게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밝게 켤 줄을 모르는 거죠, 얼른 쉽게 말해서.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되는 것만 법(法)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법이니까 양면을 다 놓아서 같이 굴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믿음이 진실하다면 양면을, 이런 게 와도 거기 놓고 저런 게 와도 거기 놓고 중심의 중용을 잘하면 그게 굴림이죠. 그게 수레공법(空法)이에요.

오늘 그것을 참 질문 잘 하셨습니다. 사람이 머리로만 한다면 진실한 마음의 하달이 전신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권처(權處)에서 바로 두뇌로 올라가는 게 누진입니다. 누진으로서 몸의 사대(四大)로 하달을 해서 바깥으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심성과학! 종합 심성과학입니다, 모두가. 얼른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캠핑을 나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부 못 하면 후일에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갈리고, 나만 말리면 좋은데 또…, 내가 그 도리를 알게 되면 위로는 믁은 빚을 갚으며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나 내가 못한다면 위로는 묵은 빚도 갚을 수 없고 햇빛도 줄 수 없습니다. 묵은 뿌리의 썩은 것도 자를 수 없고 아래 자녀들의 뿌리도 성성하게 도와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내 뿌리가 썩었는데 님의 뿌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묵은 빚도 갚을 겸 햇빛도 줄 겸 나도 세세생생에 권도(權道)를 가지고 여래장(如來藏)이 돼서 수레공법이나 평등공법을 자유자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자1: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이 다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난 법문 더 할 거 없어요. 이 세상 천지에 다 법문이 돼서 있는데… 한 서너너덧 분 질문이나 받겠습니다.

▲질문자2: 저는 질문 드리려 나온 게 아니구요, 베풀어주신 덕분에 일본에서 지난달 귀국을 잘했습니다. 감사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스님: 예, 감사합니다.

▲질문자3: 얼마 전에 불경 공부를 하다가 금강경에 나오든가 법화경에 나오든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하는 그 마음도리를 공부하고, 또 스님의 법문 중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하는 그런 말씀을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 조금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하는 것은,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오는 거 그대로 놓아가면서 수 없는 생각도 놓아가고, 삶도 놓아가고 죽음도 놓아 가는 것이, 바로 머무는 바 없이 여여하게 가는 길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이 퍼올라서 그 순간에는 '아, 요게 요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른 느낌을 가진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스님: 그건 초심자일 때 느낄 수 있는 얘깁니다. 하여튼 그렇게 느끼신 것만 해도 어딥니까? 하여튼 우리가 발자취를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놓고 하는 것이 머무는 바 없이 머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활이 다 그렇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는 거든지, 듣는 거든지, 말하는 거든지, 가고 오는 거든지 모두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화(化)해서 바뀌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머무는 바 없이 하는 거죠.

아빠라고 자식이 부르면 그냥 금방 머무는 바 없이 아빠가 돼서 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행을 하죠. 그러다가도 아내가 부르면 그냥 순간 머무는 바 없이 남편이 돼가지고 남편 행을 하고, 남편으로서 말을 하고, 남편으로서 뜻을 가지고 돌아가니 삼합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머물고 돌아가는 거죠, 본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고 하신 겁니다.

▲질문자3: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관(觀)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공부를 좀 하셨다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 말에 끄달린 것은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놓는다는 생각을 하면 이미 놓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스님: 그거는 어느 경지라고 할 거는 없지만 어떻게 놓고 가다가 보면 저절로 놓는다는 생각도 없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놓는다는 생각도 없이 놔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유치원생더러 초등학교 공부를 하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원은 다 다르지마는 하고 가는 거는 똑바르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한다는 문제는, 정신이 잘못돼서 나간다거나 영계성이 들렸다든가 유전성이 들렸다든가, 또는 세균성이 들렸다든가, 아무리 골수염이다 할지라도 백혈이다 할지라도 어떠한 거든지 바로 내 뼛속의 생명들과 바로 둘이 아닐 때,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손가락더러 "네 손가락 잘라라." 이러면 자르겠습니까? 못 자르죠! 제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못 자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의식들을 같이 한마음으로 동결해서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전부 뼛속도 작용을 해줍니다.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고라든가 병고라든가, 어떠한 문제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걸 병으로 알지 말고 애고로 알지 말고 인과응보로 알지 말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재료! '공부하라고 나에게 이런 재료가 생기는구나!' 하고 돌려놓고 지켜보고 체험하고 자꾸자꾸 놓고 돌아가다 보면 놓을 것도 없고 놓는 걸 받을 놈도 없다는 것이 스스로 알아질 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때 진짜 공부하는 겁니다.

▲질문자3: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2년 10월 4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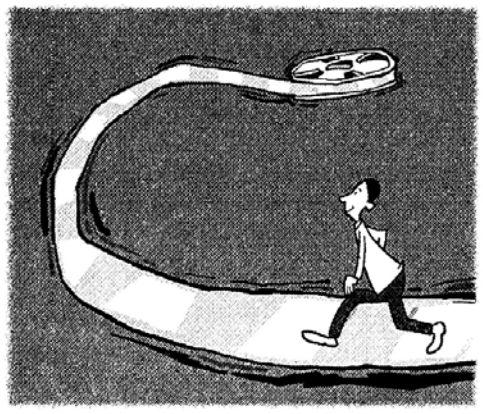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찰나찰나 인생이 나고 가는데 어찌 한철만 중하게 여기나요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가을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성모님 묘소와 더불어 조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 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선운사, 내소사, 개암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 도량에 왕림 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호남고속도로 전주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 성모암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IC. 서김제IC에서 5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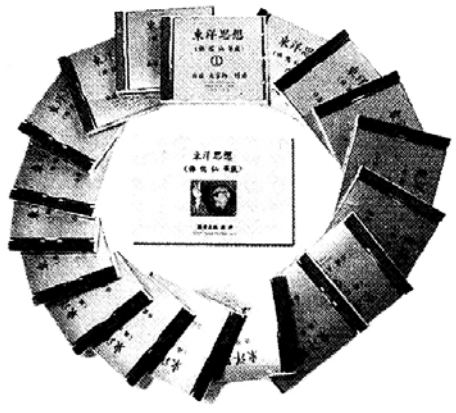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종무소 ☎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Homepage : www.sungmoam.net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모암 대중일동

탄허대종사

동양사상특강CD안내

탄허 대종사의 깊고 넓고 높은 강의를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탄허대종사께서 1977년~ 1982년에 강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18장의 CD에 담아 보급 합니다.



◈ **가 격** : 18장 1세트 126,000원(교재 1권 포함)
◈ **제작 · 보급**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64-4
건대빌딩 본관 202호 **교림출판사**
◈ **Tel 02)733-3334 / H · P 018)733-3334**
02)733-3359
http: www.tanheo.com

밝은미소 · 건강한 마음 ·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 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 시설안내 ◀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 층수 : A동, B동 - 지하 2층, 지상 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평생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구 분	입주헌납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입주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 공양주, 맹지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

도메인, 인터넷키워드, 한글인터넷주소, 무선숫자도메인, 음성도메인 등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사용되는 주소자원들이다. 이같은 인터넷 주소자원들은 그동안 선점을 통한 영리추구행위(사이버스쿼팅)로 많은 분쟁을 일으켜왔다.

상표권 침해 · 주소매점금지 등 주요 내용
선점된 불교도메인 되찾을 수 있을 듯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만든다

정통부, 입법예고 · 공청회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범국가적 관리체계를 명문화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9월 25일 입법 예고했다. 또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 7일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입법 공청회를 가졌다.

총 6장 29조 및 부칙 4조로 구성된 이 법은 3년 단위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계획 수립,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확대 강화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법정기관화,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이용촉진, 인터넷주소를 통한 상표권 침해 및 주소매점(사이버스쿼팅) 금지, 인터넷주소관련 분쟁 조정기구 설치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타종교단체나 개인이 대원(daewon), 해인사(haeinsa), 금산(kumsan), 마곡(magok) 등 60여건의 불교 고유명사 도메인을 이미 선점해 불교비방 등 사이버 훼불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 14조 금지행위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 서비스표, 국내에서 등기된 동일 상호,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인터넷주소 등록이 금지돼 타종교인의 불교관련 도메인 선점이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 18조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동록말소 청구 등의 규정에 의해 불교고유명사 도메인들에 대해서는 권리침해를 받고 있는 사찰이나 종단에서 도메인 등록 말소 또는 사용금지를 청구할수 있게 된다. 인터넷 주소의 등록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6개월 이상 인터넷주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를 청구할수 있어 앞으로 타종교인들에게 선점된 불교관련 도메인들을 되찾아 올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이번 법안의 마련으로 그동안 선점당했던 불교관련 인터넷 주소들을 되찾아 오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권을 일정부분 회복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내년 국가정보화에 1조7천억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올보다 4.4% 증액

내년도 국가정보화사업에 올해보다 평균 4.4% 이상 증가한 1조 6,817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9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보화사업 예산을 포함한 '2003년 예산안'을 확정, 10월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정보화 부분 예산에서는 전자정부의 구현과 행정 효율성제고(5,610억원), 정보인프라 확충 및 산업부분 정보화사업(4,0782억원)을 비롯해 정보격차 완화(1,206억원)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투자(368억원)가 확대된다.

한편 1조4,26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문화관광사업분야에서는 전통사찰 관광안내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4억6,200백만원)과 게임 · 영화 ·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컨텐츠 창작 기반, 마케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607억원) 등을 중점 지원한다.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 붓다넷



◇파나바로스님의 www.buddhanet.net.

호주불교 홍보 · 교리 · 명상
관련정보 네티즌에 제공

불교 교육 네트워크 '붓다넷'(www.buddhanet.net)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호주불교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붓다넷이 최근 더부살이를 마치고 독립도메인을 갖는 등 변화의 길을 가고 있다.

파나바로스님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전세계인에게 호주불교를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붓다넷은 불교강좌, 명상센터, 웹진 붓다진, 불법강좌 등의 다채로운 정보를 네티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불교강좌 코너에서는 기초불교 가이드, 온라인 불교공부 가이드, 학교를 위한 불교공부, 불경, 불교의 가르침, 불교세계, 불교 역사와 문화 등의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놓고 있다. eBook 도서관에서는 일반 불교, 명상방법, 소승의 가르침, 대승의 가르침 등에 관련된 전자북들을 볼 수 있다. eBook과 더불어 오디오 서비스도 한다. 찬불가 모음, 명상 음악, 오디오 도서관, 다르마 이야기 등 음악, 법문 등을 망라하고 있다. 공문서 도서관에는 불교관련 그래픽, 텍스트 파일이 가득하다. 세계 불교디렉토리에서는 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와 중동 등의 불교 관련 단체 연락처와 명상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붓다넷이 자랑하는 콘텐츠는 바로 불교웹진 붓다진. 붓다진은 오늘의 명언을 비롯해 크로스워드 퍼즐, 불교 희극, 사진 기록 영화, 최면 등 정신요법 및 명상, 불교 안의 여성, 붓다넷 어린이, 잡지 기사, 컴퓨터 아트 갤러리, 불교예술 및 건축, 칼라차크라 시간의 바퀴 등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한다.

강지연 기자 jycang@buddhapia.com

IT단신

사이버명예훼손 · 성폭력 상담센터 개방 구제활동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광운대총장)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성폭력이 급증함에 따라 1일부터 '사이버인권침해방지 지원센터'를 '사이버 명예훼손 · 성폭력상담센터'(www.cyberhumanrights.or.kr)로 개칭하고 관련피해에 대한 구제활동을 벌인다고 9월 30일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사이버명예훼손 및 성폭력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상담 및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했으며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e-메일로 문서 받는다 데이콤, 1일부터 서비스

이젠 팩스가 없어도 팩스로 보낸 텍스트 및 그림 디자인 등의 다양한 문서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데이콤(대표 박운서 www.dacom.net)은 '0505 개인팩스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팩스를 보유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팩스를 통해 보낸 문서를 0505 개인팩스서비스에 등록된 자신의 e-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http://0505.dacom.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이용 요금은 1분당 40원으로 발신자가 부담한다.

게시판 엿보기

⊙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착한 법이 있거니와 만약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모든 금수와 더불어 다를 바가 없다.

choiolsol, 프리챌 부처님 마을 자유게시판

⊙ 이제는 누가 넌 종교가 뭐니? 하구 물으면 절에 다닌다구 확실히 말할 수 있을꺼 같아여..

a1ram, 프리챌 화계사의 청춘 대중방

⊙ 자신이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극락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처럼 악한 사람도 살리는 세상의 선한 빛과 은혜를 보기에 극락세계를 보고, 극락세계에 살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박선애, 싸이월드 목우회 일반

⊙ 말로서 문자로서 밝히려 하지 말라 그저 화두를 들어 정진할뿐 말이나 문자로 어찌할수없는 것이다

작은성철, 성철넷 게시판

우리절 digital · cyber 불사

강화 전등사

지난 월드컵 기간동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한국전통불교문화체험(템플스테이)에서 외국인 250명 숙박, 총 5000명 방문으로 템플스테이 으뜸사찰로 평가받았던 강화 전등사. 외국인들과의 충분한 면담, 학교 및 지역축제와 연계활동, 외국대사관 및 지역언론 홍보, 우수한 통역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알찬 기획으로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홈페이지 개설 등 사찰 이를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도 국내인들의 템플스테이 신청은 홈페이지에서만 받고 있으며 이들 신청자들은 별도의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 DB화되고 있다.

전등사는 최근 일본어와 불어판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매개로한 사찰 및 템플스테이 홍보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불어 홈페이지의 경우 자원봉사자인 한양대대학원 불어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승오씨가 관련내용을 번역중에 있고 일어도 전등사 기획국장인 궁인창씨를 비롯해 일부 종무원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T망 연결, 한 · 중 · 영어 홈페이지 운영
온 · 오프라인 통해 외규장각 도서 반환운동

사부대중의 정보화 인식도 큰 역할을 했다.

전등사는 현재 한국통신 매가패스가 사찰에 연결되어있고 종무소의 컴퓨터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등 정보 인프라를 갖춘 상태. 이를 토대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버전의 홈페이지(www.jeondeungsa.org)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전등사 및 정족산 사고 소개, 전등사 예날이야기, 사이버 법당, 갤러리 등의 코너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전등사는 물론 템플스테이와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다. 월드컵 기간동안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외국인은 숙박예약 기관인 월드인과 함께 전등사 홈페이지를 통해 템플스테

또한 사찰 종무와 관련해 조계종이 추천하는 가람지기 종무프로그램을 사용, 신도관리와 재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지역문화축제인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를 매년 주관하고 있는 전등사는 삼랑성 축제 홈페이지(http://www.art00.com/korean/samrang.htm)를 별도로 개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해군에 약탈되어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펼치는 등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며 천년 고찰의 정신을 현대에 맞게 계승 발전하고 있다.



신도 등 인적사항 DB작업 사찰정보화에 앞장설 것

주지 계성스님

강화도 남단 정족산에 위치한 천연 고찰 전등사가 정보사회에 빨리 적응 할수 있었던 것은 주지 계성스님의 역할이 컸다. 컴퓨터하면 고개부터 흔드는 계성스님은 "재정적으로는 어렵지만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고 지역적으로 사찰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찰 정보화 부분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다. 스님이 이같은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인터넷을 통한 포교효과가 크기 때문. 그래서 스님은 앞으로 전등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 기초 데이터를 DB화해 인재네트워크를 구성, 사찰 정보화에 앞서나갈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당신의 전생을 보여드립니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전생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최면전생 특강 내용

(1) 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薦度)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靈駕)나 빙의령(憑依靈)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2) 전생퇴행 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하는 기법
(3) 원격 제령 최면
제 3자가 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 하는 기법. 최면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수 있음.
(4) 최면 파동요법
사람이나 영가는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영파(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파동기법으로 그사이클에 초점을 맞추어 영가(靈駕)를 불러내어 제령 천도하는 기법. 영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떠나 가는 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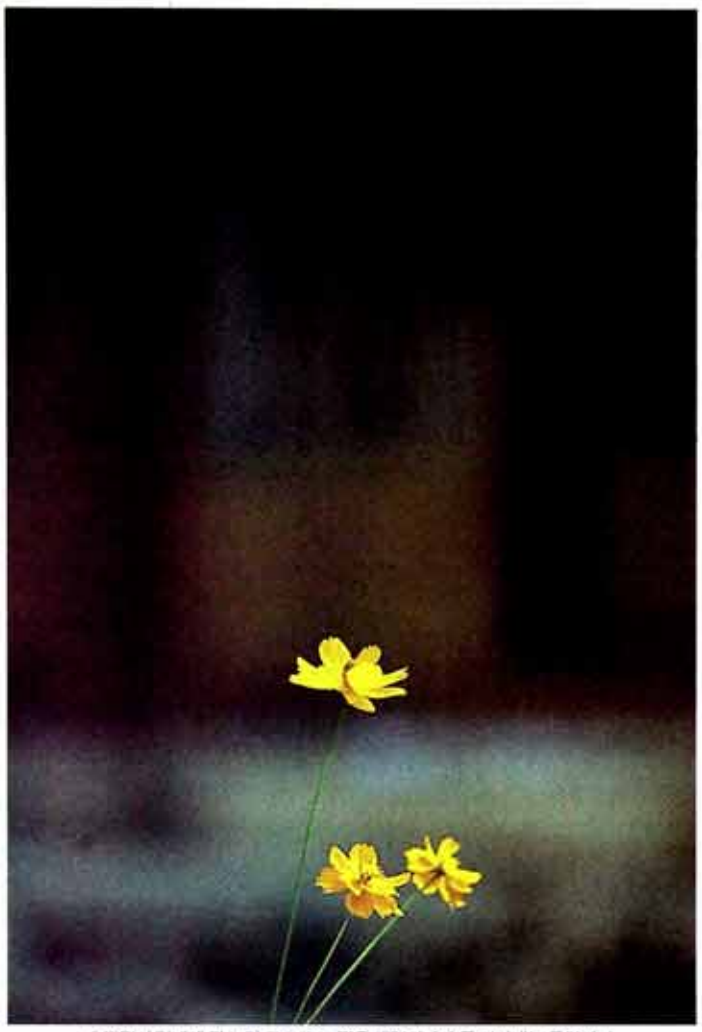
강의 안내

◎ 개강 : 수시접수 ◎ 시간 : 매주 토요일 3시간, 3개월 과정 ◎ 특강 : 지역별 그룹특강 가능 (일주일 과정)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법운 선생님 약력
2001년 SBS '호기심 천국' -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출연
2002년 KBS 'VJ특공대' - '최면의 세계' 출연
동래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졸업
세계 아미포 기공협회 회장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현 '삼경그룹' 고문으로 재직

동방명상전생연구소
◆ 문 의 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진관사 경내에 핀 노란 코스모스. 절은 생명의 순수를 지켜내는 공간이다.



◇서울의 진산인 삼각산 서쪽 기슭에 자리잡은 진관사.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드나드는 수많은 발길에 시달리는 절이지만 산사의 고즈넉함을 잃지 않고 있다.

◇고려 현종이 진관스님에 대한 보은으로 세운 1,000여 년의 역사는 석축으로나 남아 있고, 현재의 전각은 1964년부터 최진관 스님이 다시 일으켜세운 것이다.



절에 가면

삼각산 진관사

俗에서 聖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구니 수행처…소박 · 정갈

가끔씩, 궁핍했던 지난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힘겹게 보릿고개를 넘어온 분들한테는 호강에 겨운 푸념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코 젠체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외국의 한 등반가가 쓴 글에서 1950년대의 네팔에 관한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돈 처발로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일도 거의 없었던 그 시절에는, 그야말로 '순수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카트만두 거리에 '거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가난은 문명의 산물"이라는 어느 경제학자의 말도 생각이 납니다. 동감입니다.

절 찾아 가는 길에 웬 사설이냐고 꾸짖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관사 가는 길목이 절로 이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더군요.

서울 도심에서 북한산성을 향해 달리다 보면 구파발 못 미쳐서 진관사 길이 나타납니다. 야트막한 건물, 드문드문 70년대식 간판, 길 가의 플라타너스. 개발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의 세트를 보는 듯한 느낌. 하지만 그 느낌은 대도시의 변두리 어디에고 보이는 스산함과는 다릅니다. 그곳엔 온기가 있습니다. 더 넓게, 더 멀리 뻗어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개발의 도미노가, 불현듯 주춤거리며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듯도 합니다. 이른 바 '그린벨트'의 초상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는 골 사나운 모습일 것입니다. 땅 값도 집 값도 오르질 않으니, 이만저만 속상한 일이 아닐 테지요. 그 심정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 길을 지나면서 나는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회색 도시가 조금은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북한산의 비봉과 향로봉으로 오르는 초입, 70년대 도시 분위기가 산으로 몸을 바꾸는 그곳에 진관사가 있습니다. 인공에서 자연으로, 속(俗)에서 성(聖)으로, 가(假)에서 진(眞)으로 가는 징검돌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청빈의 옷을 입은 가난, 남루하지 않은 결핍. 절이 산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관사 마당에는 이미 가을 햇살이 곱게 내려앉아 풀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고 있습니다. 댓돌 위에 가지런히 벗어놓은 하얀 고무신을 보며 마음의 매무새를 다시해 봅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라서 그런지 모든 것이 아담하고 정갈합니다. 도량 곳곳에 꽃들이 곱습니다. 도라지꽃, 수국, 백일홍, 채송화, 노란 코스모스가 누구하나 시새워하지 않고 제각기 빛납니다. 드문드문 쑥부쟁이도 이곳이 서울의 진산인 삼각산 자락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고려 현종 비화 간직

그런데, 진관사의 창건 배경에는 지금의 정갈함과 거리가 먼 세속적인 얘기가 전해옵니다.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고려의 다섯 번째 왕인 경종이 세상을 떠나자 젊은 왕비는 태후가 되어 시름겨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는 슬픔이 깊어 병이 되니, 파계승 김치양과 정을 통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빗나간 걸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아이를 왕위에 앉히려는 기도를 합니다. 마침 일곱 번째 왕인 목종에게 후사가 없었으나 태조의 직손인 대량원군이 그 자리를 잇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후는 대량원군을 진관(津寬) 스님이 홀로 수도하는 신혈사라는 조그마한 절에 유폐시키고 적당한 틈을 타서 없애려고 합니다. 이에 진관 스님은 그것을 알고 수미단 밑에 굴을 파고 12살 먹은 대량원군을 숨겼습니다. 목숨을 구한 아이가 후일 왕의 자리에 오르니 그가 바로 여덟 번째 왕인 현종입니다.

현종이 어찌 진관 스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신혈사 터에 진관 스님의 이름을 딴 대가람을 세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왕실의 보살핌은 계속되어 태조는 수륙사(水陸社)를 설치하여 육지와 수중의 고혼들에게 법식(法食)을 베풀었습니다. 세조 때 불타 없어졌다가 현종 때 중수하여 명맥을 이었으나 6 · 25때 칠성각과 독성각만 남고 다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1964년부터 진관 스님이 당우를 다시 세워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경전 독송 한글로

역사적 배경에 비해 오늘의 진관사는 소박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볼 만한 구석도 많습니다. 우선 칠성각과 독성각입니다. 사방 벽면을 돌 조각으로 세워 올린 모습은 민예적인 질박함에 수공예적 정성으로 윤기가 흐릅니다. 안에 모셔진 칠성도와 영정, 그리고 산신도는 모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조선 후기 불교 미술의 한 면을 곱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역시 서울시 무형문화재인 나한전의 16나한상은 자그마한 크기에 각기 개성적인 표정으로 보는 이의 눈길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드라져 보이는 진관사의 미덕은, 이 시대에 필요한 행태의 믿음이 살아 숨쉰다는 점입니다. 모든 예불과 법회 의식에서 경전 독송은 한글로 합니다. 가족 모두가 절에 와서 내집처럼 머물 수 있다는 점도 여간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법회, 청소년법회, 어린이법회가 매주 열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진관사에서만큼은 치마불교라는 자조적인 말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산을 오르며 심신의 피로를 내려놓으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산을 그저 러닝머신쯤으로 여깁니다. 그곳에 절이 깃들어 있어 산의 신령함을 지켜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삶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 혹은 아련한 옛 추억에 잠기고 싶을 때, 진관사를 찾으십시오. 버스 값 동전 몇 잎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피의 순수를 한아름 가득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봉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108참배 금강경 사경 및 큰스님 초청 7일 정진 대 법회 축

도심속의 포교전당

본 금하선원은 2001년 인도 가니스와르 고승으로 부터 부처님 사리 5과를 모셔왔습니다.
이제야 우리 불자님께옵서 2546년 전 부처님의 진신사리 친견 참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하선원은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108참배와 금강경 사경 및 큰스님 초청 7일 정진 대 법회 1000일 기도 입제를 봉행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 정 표
2002년 10월 14일(월) - 10월 20일(일)
오전(10:00) 사시기도 (11:00) 큰스님 법어(11:40) 백팔 참배 및 진신사리 친견 (12:30) 점심공양 (14:00) 금강경 사경 (15:00) 회향

금강경 사경 불탑 봉안

- 금강경 사경 완성 후 불탑에 봉안 됩니다.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본 사찰로 전화주시면, 금강경 사경을 댁으로 우송, 사경 완성 후 본 사찰로 보내 주시면 불탑에 봉안해 드립니다.
- 성지 순례차 오시는 주지 스님과 신도분들은 미리 전화주시면 점심공양을 준비해 드립니다.

법회 집행 위원회

- 회 주 : 일륜 ◆ 주 지 : 청암
- 집행위원장 : 신도회장 ◆ 집행부원장 : 거사림 회장, 신도 부회장
- 위 원 : 금하선원 신도회, 거사림회, 불교 교양대학 1기~17기생
- 사 무 장 : 덕광 ◆ 재 무 : 여.래심
- 포 교 임 원 : 금하선원 신도 회장단, 거사림 회장단, 불교 교양대학 : 1기~17기 총무단

- 일 시 : 2002년 10월 14일 오전(10:30)
- 음 력 : 9월 9일.
- 장 소 : 금하선원 법당
- 접수기간 : 2002년 9월 25일~ 10월 13일
- 사경법회 동참비: 5만원(금강경 사경책 3권 포함)

대한불교 조계종 금하선원
전화 02)823-9135~6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7호선 장승백이역 4 · 5번 출구 1분거리